

연구총서 00~04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 병 로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수령’에 대한 숭배의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북한사회가 일종의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양태와 가치관이 기독교의 종교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은 방북자나 귀순자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종교성이나 기독교적 유사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관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체사상을 기독교의 종교양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 사회의 종교현상과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

종교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것’에 대한 신앙이며 종교의식(ritual)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종의 사회공동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종교경험은 언제나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으로 짜여진 의례나 예식으로 표현되며, 또한 가입, 지위의 점유, 역할의 분담으로 구성되는 조직체나 공동체로 나타난다. 종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양식의 복잡성이나 제도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회현상이 종교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양식인 교리, 실천적 양식인 예식과 의례, 그리고 사회적 양식인 공동체 혹은 단체라는 세 가지 표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자체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해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여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를 추방하였지만 아이

러니칼하게도 존재를 부정한 종교의 자리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종교로서 자리를 틀었다. 맑스 자신도 종교에 구현되어 있는 적극적인 가치는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 주도적 사상이 될 것으로 믿었으며 이런 점에서 인류의 적극적 자의적인 사회주의는 종교 아닌 종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정치지도자나 이념 또는 소속집단에 헌신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띤다.

주체사상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점차 종교성이 강화되어 왔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주체사상은 대외자주성 원칙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1967년부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인 ‘유일사상체계’를 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이 매우 강조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주체사상을 사회관계의 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인간개조사업’을 전개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영웅주의를 강조하였다. 1982년에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측면의 체계화가 일단락된 후 인간중심 철학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1986년에는 수령론과 집단주의 사회조직원리를 결합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되었다. 탈냉전 이후 민족개념을 부각시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타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론화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출발하여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는 ‘수령론’이 대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철학적 연구의 진전으로 종교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앙으로 심화된 것은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완성되면서부터이다. 인간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

었다는 사실은 주체사상이 종교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종교의 발전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혼을 집단적 숭배의 대상으로 환원시킨 정신의 출현은 종교적 힘을 개인소지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수령관과 주체철학,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출현으로 이어지면서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신앙으로 진화하였다.

2. 교리 및 신념체계

기독교 교리와 신념체계를 설명하는 신문, 인간론, 기독교,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으로 구분하여 주체사상이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시킨 사상과 교리를 살펴본다. 우선, 주체사상은 유물론적 가치관과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적 영역을 초월하는 추상적인 신의 개념을 거부한다. 대신 공산주의의 도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형이상학적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성육신함으로써 보이는 하나님으로 환원되었듯이 김일성은 공산주의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보이지 않는’ 김일성에 대해 점차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주체사상의 신학이론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에 대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통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가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듯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유일사상을 만들고 이것을 ‘10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

며 이를 십계명으로 명문화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을 명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며 모든 언행은 이 ‘10대원칙’에 근거하여 평가받는다. 주체사상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규정되어 김일성주의의 하부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존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김일성(혹은 김정일)이라는 유일신은 기독교보다 더 엄격한 행동규율을 요구하며 신으로서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인간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아마도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비교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영역일 것이다. 기독교의 신론을 접어두고 인간에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의 인간론은 주체사상에서 이론화하고 있는 인간론, 인생관과 뚜렷한 공통점을 갖는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거나 혹은 사회적 구성요소와 결합구조의 특수성으로 보지 않고 의식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간주한다. 사람을 물질과 의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요소를 동시에 지닌 총체적 실체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유물론적 인간관은 최근에 발전된 이론으로 북한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 가치관은 세대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론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듯 보인다.

셋째, 기독교의 교리에서 예수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듯이 주체사상의 교리에서도 수령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역량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대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세련된 영도하에 투쟁해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며 백수십년에 걸

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적 진리라는 것이다. 수령이 주체사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수령교’로 통칭될 수 있다.

넷째,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의 사상은 주체사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북한은 수령인 김일성이 일체의 압제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고 구원했다는 일종의 신화를 갖고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 신음하고 있던 상태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조선인민을 구원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 즉 영생을 부여한다. 인간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 또는 인생관으로 내면화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기독교에서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며 인간실존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 안에 포함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북한의 집단주의 교리는 공동체적 교회의 교리와 일치한다.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김일성은 수령으로서 신체의 뇌수이며 당은 혈관이고 인민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간주된다. 수령, 당, 대중은 삼위일체의 통일체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바울의 지체론과 동일하다.

여섯째, 기독교는 이 세상은 끝이 있으며 그 종말은 거대한 위기로 임하게 되는데 예수의 재림이 이러한 위기를 종식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전체적 부활이 진행되고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믿고 있으며 동시에 이 땅에서 사회주

의, 공산주의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을 믿는다. 종말론적 사상은 언젠가 도래할 낙원을 기대하고 종말론적 신앙의 중국적 승리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도록 도와준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기대하며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참도록 가르친다. 최근에는 ‘강성대국’이라는 이상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낙원의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기 기독교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가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음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죄와 사탄의 세력과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사탄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전투적 태도로 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3. 종교의식과 행위규범

북한은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연구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한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의 높은 덕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전지역의 당 및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문화, 과학기관, 인민군부대 및 경비대” 등 인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갖추어져 있는 혁명사상연구실은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학습활동 이외에 각종 선서모임과 충성의 편지 전달모임, 축전전달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이 곳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와는 구별되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김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성소로 간주된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토요집회, 금요구역예배, QT(아침 묵상의 시간), 가정예배 등 일주일 주기의 모임과 집회를 갖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일주일을 단위로 여러 종류의 모임과 학습을 진행한다. 주간 생활총화, 수요강연회, 아침독보회, 월요학습침투를 비롯하여 인민반학습, 철야작업, 새벽참배 등의 집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토요일에 직장 각 조직단위에서 실시하는 생활총화는 일종의 자기반성적 종교집회로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이다.

생활총화는 공장과 기업소, 학교, 군대 등 북한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당원 등 조직별로 나뉘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생활총화는 초급단체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소나 직장의 작업반별로 실시한다. 총화는 주기에 따라 일일총화, 주간총화, 월간총화, 분기총화, 연간총화 등으로 구분된다. 총화시 김일성·김정일의 교사와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나서 자신의 생활을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설교를 하거나 신앙교육을 할 때 먼저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과 생활세계를 분석하거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가는 방식과 같다. 또한 자아비판은 기독교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심하는 기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을 유지하는 골간이며 북한체제를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행동지침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사회도 성경의 일종인 주체사상의 경전, 즉 김일성교사와 김정일말씀을 갖고 있고 이 교사·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찬양이 중요한 수단이듯이 북한에도 김일성·김정일 찬양가가 공식·비공식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의 대화와

학술문헌에서 성경말씀을 인용하듯이 북한에서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종교의식에 필요한 동의·감탄사가 사용되고 있다든가 기독교의 십자가와 같은 신앙의 상징으로 김일성뺨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 은혜와 사랑, 믿음, 구속, 구원, 영생 등 기독교적 종교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현상들은 주체사상이 종교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식교인이 되기 위해 공개적인 가입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행동규범은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4. 공동체의 윤리도덕과 조직체계

종교는 집단내 구성원들이 공통적 속성과 귀속감, 사회적 유대의식을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주체사상은 ‘지도적 원리’라는 행동원칙을 개발하여 공동체의 실천적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실천을 강조함에 있어 도덕과 윤리를 중시한다는 것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드러내며, 사람의 도덕품성을 선과 악으로 평가하는 생각도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공유하는 부분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기 운동’, ‘따라배우기 운동’ 등 각종 실천생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한 고리를 단단히 구성하고 있는 이 실천운동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종교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정치경제 생활에서 ‘균중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서는 ‘공산주의적 미풍’의 발양으로 강조된다.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윤리는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다. 북한기독교가 신학적 측면보다는 윤리적·실천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종교를 도덕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강렬한지, 사회관계의 유형이 어

는 정도 집단주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공동체는 다양한 색채를 띤다. 주체사상 신자들의 종교성 정도는 개인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세부 가치별로도 다르게 표출된다. 주체사상의 공동체를 신앙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주체의 요구대로 하는” 열렬한 신자, 믿기는 믿으나 회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신자, 주체사상의 ‘교재’가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엉터리 신자, 주체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 등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집단은 인구의 25%씩을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체사상 공동체의 신앙은 계층·계급별 및 세대별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공동체 생활조직을 통제·관리하는 기관은 북한사회의 두뇌에 해당하는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이다. 사제단이 교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제의 충원과 신자들의 교육, 선교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듯이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공식·비공식 통제채널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주체사상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기독교에서 ‘주일학교’의 교육을 중시하듯 북한도 취학전 교육과 학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조직별, 등급별 성인교육을 진행하고 학습교재를 1년 단위로 새롭게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기독교의 신학대학과 같은 사제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유지시킨다.

5.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종교양식의 촉진 배경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적 영향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김일성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

서 태어나 소위 모태신앙을 갖고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기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김일성은 어린시절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에 착실하게 참석했던 사람이다. 중학교 때에는 중국연변의 손정도목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생활을 하였고 학생가대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교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아버지로 부터 기독교와 항일독립활동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개인적 관계 이외에 외가쪽의 강돈욱과 강양욱의 신앙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김일성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내용과 교회생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정권구축 과정에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조직적 반대에 부딪히면서 강렬한 기독교 경험을 하였다. 특히 '주일선거반대운동'과 토지개혁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주체사상의 종교화를 주도한 김정일의 기독교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어머니를 일찍 여윈 관계로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은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한국인에 비하면 기독교적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지니고 있던 민족주의, 사상과 신념의 중요성, 복음전파의 사명, 이상촌 건설 등의 사상과 김정일이 갖고 있는 의식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기독교적 가정배경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가정배경과 기독교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기독교 세력의 도전 경험 등으로 김일성·김정일은 기독교 교리와 교훈, 생활방식을

접할 기회를 빈번하게 가질 수 있었다. 김일성은 어린시절에 기독교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기독교 방식을 이용했을 것이다. 설령 비의도적이었다 할지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독교와의 접촉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조직화 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독교 경험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생활양식과 조직원리, 그리고 중요한 교리 및 교훈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적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적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표출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과정이 과연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잠재의식적인 것이었는지 하는 문제를 검증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다.

주체사상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적 종교양식과의 유사성이 반드시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적 배경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교와 같은 전통종교에 의한 영향과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부터 기독교의 어떤 부분이 일종의 친화력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종교국가적 특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북한은 전쟁경험과 전쟁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를 지속했으며, 북한사회가 보이고 있는 종교성은 전쟁의 위기적 상황과 같은 사회적 조건으로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위기 및 혁명과 같은 사회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는 기독교적 종교양식이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 자체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의 사상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도 주체사상이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년시기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사상을 접하였던 김일성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일본식민통치의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해방신화’를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며 평등,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기독교 사상을 자연스럽게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북한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주체사상을 점차 종교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체사상을 ‘수령교’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수령교는 아직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령교가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신앙의 대상 및 성격에서 세계종교와의 본질적 차이는 이러한 의문을 낳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수령교의 종교적 색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단순한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절대화, 신격화한 수령교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사회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들의 감정과 유사하다고 볼 때 북한인들이 김일성 없이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심리적 공허감이 있을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목적 없는 삶과 같을 북한인들에게 종교생활과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의 분야에서 이러한 심리갈등을 돕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수령교 신앙의 근원이 되고 있는 김일성신앙을 어떻게 주체사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수령교와 세계종교와의 신앙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도 수령교 교주인 김일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역사적 평가와 수령교에 대응하는 신학적 이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일성주의로부터 주체사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의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김일성의 신격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비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계는 주체사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사상적, 문화적 탐구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 론	1
II. 사회주의 사회의 종교현상과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	7
1. 종교의 유형과 종교양식	7
2. 사회주의 사회의 종교현상	13
3.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	22
III. 교리 및 신념체계	33
1. 신앙의 대상과 성격	33
2.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	51
3. 기독교론과 수령론	63
4. 구원과 영생	70
5. 교회와 사회정치적 생명	75
6. 종말론적 신념: 사탄과 제국주의	79
IV. 종교의식과 행위규범	93
1. 예배당과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93
2. 종교집회와 모임	104
3. 예배와 생활총화	113
4. 언어사용과 행동양식	124

V. 공동체의 윤리도덕과 조직체계	145
1. 공동체의 윤리도덕	145
2. 개인의 종교적 열성도의 차이	157
3. 공동체의 조직운영 체계	161
VI.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종교양식의 촉진 배경	173
1.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 경험	173
2.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관	184
3. 기독교적 친화력	192
VII.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부록: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2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4)	

I. 서 론

김일성 사망 당시 오열하며 애도하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은 21세기 통일시대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일성 동상 앞에 나아가 추모와 숭배의 예를 갖추었다.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봉건적 숭배와 한 개인에 대한 전국민의 이 같은 집단적 참배행렬은 공포와 세뇌에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행위를 연상케 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수령’에 대한 숭배의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북한사회가 일종의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체사상을 발전시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제시하는 한편, 창시자 김일성의 생가를 ‘만경대고향집’으로 성역화하고 혁명활동을 신성시함으로써 김일성의 존재를 성스러움과 경외의 영역에 가져다 놓았다. 김일성 사망 3주기를 계기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하는가 하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지정하는 등 김일성에 대한 신성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만들어 김일성을 영생불멸의 존재로 각인시키고 있다. 김일성은 이제 북한에서 역사적 영웅, 민족의 지도자의 지위를 초월하여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체사상과 김일성에 대한 성스러움의 종교적 체험은 북한사람들의 다양한 행위규범과 공동체 의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방에 부착하고 사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2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보관하며, 김일성과 관련된 행적과 건물, 동상, 초상화 등 모든 것들을 성스럽게 다룬다. 매일 이른 새벽 김일성동상에 나가 참배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에는 초상화 아래 꽃병에 생화를 꽂고 그 앞에서 온 가족이 절을 올리며, 정월 초하루와 같은 새해 첫날에는 세배를 올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예식을 갖는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종교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탈사회주의 세계적 변화가 시작된 1990년대 들어서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의 물결이 퇴조하고 심각한 경제·군사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저력이 바로 주체사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북한사회의 종교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경제난과 대규모 기아사태로 야기된 사회적 위기에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1997년 망명 당시 “공화국이 경제적으로 좀 난관을 겪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잘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지적하였다. 극도의 식량난과 수십만이 아사하는 경제적 한계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자세는 일종의 종교적 신앙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귀순자들은 북한사회를 떠나본 이후에야 비로소 북한사회가 강한 종교성을 지니고 있음을 체험한다. 탈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김일성이란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수식어 없이 사용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탈북자 가운데는 “내 가슴속에 있는 김일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김일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껴

전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신적 권위로부터 벗어나는데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이 필요한 것을 볼 때 김일성은 북한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유일신으로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무장간첩으로 남파되었던 김신조씨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김일성이란 존재를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귀순자들이 진정으로 ‘김일성’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양태와 가치관은 여러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종교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의 종교적 특징을 기독교와 비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방북자나 귀순자들을 통해 자주 있어 왔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김일성이 인민으로부터 충성과 찬양을 받는 절대자이며 ‘한울님’ 혹은 ‘하느님’으로 추앙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북한은 더 이상 평범한 사회가 아니라 종교사회이며 특히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한 종교사회라는 점에 동의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북한주민들의 조직적 일상생활은 기독교인의 종교생활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주며, 김일성을 이처럼 열렬히 찬양하는 북한사람들은 종교의 광신도와 다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KAL기 폭파사건으로 체포된 김현희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김일성의 존재를 빼놓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서 하느님의 존재를 빼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회고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숭배 때문에 기독교가 설만한 자리가 없으며,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의 관계는 가히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그녀는 말한다. 김현희는 귀순과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찌면 그렇게도 주체사상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먼저 공부하고 주체사상을 배우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란 이름 대신에 김일성이란 이름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라며 놀라워했다.¹⁾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어버이 수령'을 대신 집어넣는다면 이제까지 북한에서 교육받아온 것과 다르지 않으며 성경을 읽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성경에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주체사상에는 10대 원칙이란 것이 있어 늘 외우도록 하고 있고,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는 북쪽에서 하는 주간생활총화, 즉 자아비판과 매우 비슷하며, 수령, 성자, 성부의 삼위일체와 당, 인민, 수령의 전일제도 비슷하고 김일성의 무오류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같다고 한다.

북한사회의 이념체계와 조직생활이 기독교와 유사하다는 이러한 경험적 체험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종교성이나 기독교적 유사성들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특성 및 유사성은 대개 북한연구 중 광범위한 다른 주제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거나 단편적인 관찰에 불과하였다. 199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기독교학자회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박승덕 소장은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사랑, 평화, 정의, 평등을 공통점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철학적 혹은 윤리적 차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는 데 한정되었으며 주체사상이 지니는 종교성과는 거리가 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연구하려는 작업이 시도²⁾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관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기독교의 종교양식과 비교하여 분석·설명해 보고자 한다. 주체사상과 그에 기

1)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서울: 고시계, 1990), pp. 71, 103.

2) 김병로, "북한의 사회통합 방식과 기독교의 유사성,"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1995), pp. 105~132; Richard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개념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년 등이 있다.

초한 북한사회를 기독교의 교리와 상징체계, 의식과 행위규범, 공동체의 윤리와 조직원리 등 기독교의 종교양식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세계관과 주민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시에 북한사회에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교양식을 원용하여 주체사상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즉 연구의 초점은 기독교가 아닌 북한사회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중심으로 요약하고 그 틀에 준하여 주체사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귀순자들의 수기와 귀순자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종교의식과 행위규범에 관해서는 귀순자들의 의견을 주로 참고하였다. 귀순자들 가운데 특히 남한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사람들의 수기와 면담을 활용하였다. 귀순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 면담자료는 그 출처를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비교·설명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리체계와 종교의식, 공동체 사회조직이라는 세 가지 종교양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교가 사라진 사회주의 사회에서 대체종교로 등장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조명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념으로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체사상의 교리체계를 다섯 가지 기독교 종교양식을 준거로 설명한다. 기독교 신학체계를 구성하는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주체사상에 적용하여 어떻게 교리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종교의식의 장소, 각종 집회와 모임, 예배형식 등 종교의식을 비롯하여 교시인용, 언어사용 등 행위규범에서의 유사성을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종교

6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윤리생활과 조직체계를 살펴보며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종교윤리와 개인적 차원의 종교성,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조직체계를 분석한다.

제VI장에서는 주체사상이 왜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양식을 띠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독교적 가정배경 및 기독교 경험을 토대로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친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유교의 문화적 전통과 한국전쟁의 사회적 경험도 기독교의 종교적 특성을 수용하는 배경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아울러 밝힌다.

마지막 제VII장에서는 주체사상이 신앙과 행위의 본질에서 기독교와 다르지만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양식을 지니며 강한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동시에 이처럼 강한 종교성을 띤 북한사회가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변화와 갈등의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II. 사회주의 사회의 종교현상과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

1. 종교의 유형과 종교양식

종교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개념적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에 따라 종교를 단순초자연신앙, 생명신앙, 유신론적 신앙, 추상적인 이상 등의 네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일신교, 다신교, 율리종교, 전래종교, 원시종교 등으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³⁾

원시종교는 생명신앙 혹은 토렘신앙과 같은 것이다. 생명신앙(animism)이란 인간의 삶을 이롭게 또는 해롭게 하는 영혼이나 생기를 믿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교의 기원을 생명신앙으로 보는 타일러(E. Tylor)에 따르면 죽음, 꿈, 환상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경험들이 원시인들로 하여금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정신의 존재를 생각해 했다고 한다. 원시인들이 생활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종교적인 의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토렘신앙(totemism)은 특정한 물체(일반적으로 동식물)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힘(mana)을 믿는다. 이러한 물체들은 의식(儀式)을 통해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다. 뒤켁(E. Durkheim)에 의하면 원시인들은 자신들의 토렘인 뱀, 새 또는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고, 이들 배후에 있는 성스러운 힘을 믿으며 나무, 뱀, 새 등은 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토렘을 통해 인간이 성스러운 영역에 참여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의 상징인

3) Ian Robertson, *Soci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Inc., 1981), pp. 403~406; 양춘·박상태·석현호, 『사회학개론』 (서울: 진성사, 1986), pp. 286~288에서 재인용.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원시인들은 토템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 일체감을 찾은 것이다.

전래종교 또는 민족종교는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일본의 전통신앙인 신도(神道)는 대표적인 전래 민족종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신도의 조상숭배는 천황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종전 후 신도는 개인과 집단생활을 보호해 주는 조상들의 명령을 받드는 전래적인 믿음보다는 민족주의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일신교는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 이슬람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의 종교를 말한다. 유대교는 구약성서의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스정교는 삼위일체를 믿으며 예수의 가르침인 성경을 받아들인다. 이슬람교는 AD 6세기 경 예언자 마호메드가 창시하고 성전인 코란에 계시된 알라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유대-기독교적인 전통이 서구문화를 형성시켰던 것처럼 이슬람교는 아랍문화를 이룩했다. 다신교는 지역신에서 카스트집단에 관련된 신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위계체계로 구성된 힌두교가 가장 대표적이다. 힌두교는 구석기시대에 출현한 가장 오래된 종교로 추측된다.

윤리종교는 위의 종교들과 다른 불교, 유교, 도교로 관념 대신에 윤리를, 변화보다는 조화를, 내세보다는 현세나 과거를 강조한다. 이런 종교들은 인격신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약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질서를 규정한 윤리로 구성된다. 이 원리에 입각한 신앙교리는 신자들이 하여금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의 조화와 궁극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윤리적인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한다. 불교는 부처가 득도하여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던 BC 6세기경 인도에서 창시되었다. 불교의 여러 종파들은 불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나름대로 의식과 도덕을 갖고 있다. 유교는 모든 사물의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조화를 주장하는 공자(BC 551~479)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했다. 유

교에는 성직자나 신학체계 등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을 결여하고 있어 막스 베버(Max Weber)같은 학자들은 유교를 종교로 볼 것인가 또는 윤리체계를 가진 철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에서 비롯된 도교는 유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교보다는 신비적 요소가 많다. 도교는 나름대로 경전과 윤리, 특히 정치이론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처럼 도교는 우주의 궁극적인 질서와 한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은 종교를 “초인간적인 숭고함이나 위대한 것을 외경하는 정의(情意)에 의거, 이것을 인격화하고 신앙, 기원 및 예배함으로써 안심입명, 축복, 해탈 및 구제를 얻기 위한 봉사의 생활을 영위할 때의 그 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⁴⁾ 인간의 종교경험은 대체로 장소, 시간, 자연의 물체들, 그리고 인간 자신과 행동에 연관이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주변의 장소와 공간을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특별하고 성스러운 장소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로 구분해서 경험한다. 성스러운 장소는 성지, 성소라고 불리는 장소이며 그 장소가 그렇게 경험되는 이유는 그곳이 성스러운 것과 어떤 양식으로든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성지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종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성지와 성스러운 공간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경험은 시간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종교예식을 통해서 재생되고 신앙인들이 참여하는 시간으로서 궁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인간이 성스러운 것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종교는 주기적인 예식을 통해 성스러운 시간을 재생하여 시간에 대한 종교

4)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82), pp. 3347; 오경환, 『종교사회학』(서울: 서광사, 1990), p. 44에서 재인용.

경험을 재생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물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연의 물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성스러운 것을 지적해 주고 표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종교적 경험을 한다.

종교경험의 표현양식들은 개인의 종교경험을 남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와 수단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경험이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경우에 관찰의 대상과 근거가 된다. 종교경험은 대체로 세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⁵⁾ 즉 이론적 양식인 교리, 실천적 양식인 예식과 의례, 그리고 사회적 양식인 공동체 혹은 단체이다. 종교경험은 언제나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으로 짜여진 의례나 예식으로 표현되며, 또한 가입, 지위의 점유, 역할의 분담으로 구성되는 조직체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⁶⁾ 종교에 따라서 이 세가지 양식의 복잡성이나 제도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회현상이 종교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표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개념규정에 근거하여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신앙이다. 뉘겐은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특징은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을 구분하고 성스러움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상적 세계라든가 초자연적인 힘, 비상함,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속’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분한 성과 속은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집단성원들이 공동의 의미를 부여한 바 ‘성스럽다’ 혹은 ‘속되다’고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성스러움의 대상은 초자연적 존재일 수도 있고 알라와 같이

5) 요아킴 바흐, “종교의 보편적 요소들,”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 (서울: 분도출판사, 1986), pp. 115~141.

6) 오경환, 『종교사회학』, p. 49.

유일신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신도(神道)에서 처럼 조상의 숭배를 뜻할 수도 있다. 그 대상들은 인간과는 다른 신비성을 띠기도 하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존재임이 강조된다. 신앙의 대상인 초월적인 존재를 가짐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 성물은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그 실체를 느끼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종교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자신들의 독특한 교의 또는 교리로 체계화되며 그것은 교주나 초월적인 존재의 말씀, 계시 등으로 이루어진 경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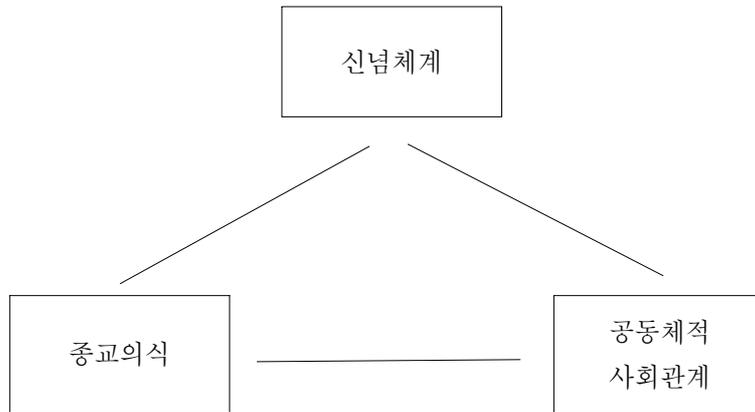
둘째,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요소는 의식(ritual)이다. 의식(ritual)은 존재 또는 가치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의 형식을 신자들에게 규정해 놓은 것이다.⁷⁾ 일정한 형식의 예배의식을 함께 갖고 같은 교의를 신봉하기 위해 언어와 행위규범을 발전시킨다. 종교의식은 한마디로 말해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종교의식은 신학의 범주를 초월하여 비합리적이라 여겨지는 상징까지도 포함한다. 의식의 목적은 신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특별한 은총을 청하거나 신의 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거나 비신앙적 행동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혼자서 행하는 묵상이나 기도도 있으며 설교나 미사 또는 제사 등과 같이 여럿이 행하는 것도 있다. 성물에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신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자와 믿음의 대상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해준다. 의식은 신앙을 재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셋째, 종교집단은 일종의 사회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즉 집단내 구성원들간에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원래 사람이 무리지어 모이게 된 결과 그들 사이에 교류가 빈번해지고 그들 안에 결속

7) 이장현 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3), pp. 228~235.

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종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사회학적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도덕적 집합체인 종교집단은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포함한다. 구성원간에 탄생과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거나 병고와 죽음의 고통을 서로 위로해 주는 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말한다. 동시에 종교는 집단의 중요한 체험을 영속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의를 가르치며 구성원 확보를 위해 전도하는 등의 일을 수행한다. 의식을 지도하고 성지의 설치와 유지, 사제나 기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할 유사들을 선발하고 성직자들의 위계체계를 규정하며 평신도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직상의 특징들은 공산주의 활동유형과 외형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1>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양식



요컨대,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숭배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의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성원들 사이에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숭배의 대상에 대한 성스러운 경험은 계시, 묵상 등으로 가능하며 신념체계 또는 교리체계로 집대성된다. 묵상, 기도, 설교, 제사 등 각종 의식을 제정하여 신앙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적 참여를 유지한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윤리적 삶을 규정하는 도덕율을 적용하고 이것을 다른 종교공동체와 구별하는 윤리도덕을 발달시키며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교단조직과 각종 조직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2. 사회주의 사회의 종교현상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여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를 추방하였다. 맑스(Karl Marx)는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관심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며 내세의 행복과 보상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불평등과 불의로 점철된 현실세계의 비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용인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교는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인민의 아편’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미신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주의 사회가 종교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19세기의 철학 사상, 특히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의 종교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포이에르바하는 『기독교의 본질』(The Essence of Christianity)이라는 저서에서 종교는 인류의 문화발전 과정에서 인간이 신 혹은 신적 존재에 대해 잘못 만들어낸 사상과 가치의 체계라고 주장했다.⁸⁾ 인간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8) Ludwig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신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가치와 규범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다는 '10계명'은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도덕적 교훈을 신화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종교적 상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힘의 포로가 되고 만다. 즉 종교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철폐되어야 할 환영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사회는 실제로 종교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다. 옛소련의 경우 공산정권의 초기 문맹퇴치의 계몽활동과 병행하여 반종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교분리 정책에 의해 양심과 신앙의 자유, 종교의식 수행의 자유 등이 선언되어 공적 조직에서는 종교활동이 배제되었지만 사적으로는 종교활동이 가능했다. 정권초기에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리스정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종교를 허용하고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인정하였다. 특히 이슬람권을 소비에트화하기 위해 종교의 용인이 불가피했다.⁹⁾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을 통해 종교활동에 대한 조직적인 압력과 탄압을 가하였다.¹⁰⁾ 공산당 산하 선전부서에는 무신론 홍보를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하여 무신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다.¹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반종교 학습을 도입·실시하는 한편, 반혁명의 편에 선 성직자를 투옥, 살해하거나 강제로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옛소련 사회주의 체제는 종교를 사

and Row, 1957); Anthony. Giddens, *Sociology* (Oxford: Polity Press, 1989), p. 457에서 재인용;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p. 27~32.

9) 紫田敏夫 편, 편집부 역, 「정치와 종교」 (서울: 교양사, 1988), p. 168.

10)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Vintage Books, 1971), pp. 351~352.

11) Jerry F.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423.

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반혁명적 요소’로 간주하여 정책적으로 배격하였다.

중국은 종교에 대해 옛소련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옛소련은 법적으로 종교금지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은 공산화 초기 “종교는 인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며 아편”이라는 관념 때문에 종교금지 정책을 선언하였다.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교회지도자와 교역자를 교회로부터 추방하였다. 그에 따라 종교활동은 자연히 위축되었고 표면상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협조를 약속했거나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내용을 전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1976년 이후 중국은 종교금지를 해제하고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에 입각한 종교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통제하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속히 신장한 파룬궁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여 억압하는 등 종교활동을 정부의 통제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종교를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반종교 정책을 실시했다.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은 종교를 “《하느님》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이해는 북한이 즐겨 인용하는 김일성의 종교에 대한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며 종교를 반동적이며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규정하였다.¹³⁾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831.

이런 점에서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현실이 인간의식에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허위의식이다.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종교적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사람이 '신'에 의존되어 있고 사람의 운명이 '하느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반동적이다. 이러한 종교적 관념은 다분히 원시사회의 산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억압하는 사상적 도구”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 종교는 자연적인 힘이나 사회적 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환상적인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억압착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근대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⁵⁾

북한의 반종교 정책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명분상으로는 종교를 허용하면서 행정적인 통제와 토지개혁, 노동정책을 통한 외형적인 탄압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1958년 중앙당이 집중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사상검토사업을 벌이면서 종교는 철폐되었다. 해방 전 북한지역에는 400여 개의 사찰과 3만5천의 신도, 1,600여 명의 승려가 있었고, 기독교의 경우 1,500여 교회와 30여만명의 신자가,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명의 신도가, 그리고 천도교의 경우 12만여 신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불교는 현재 60개의 사찰에 300여명의

13) 김일성,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54.

14)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90.

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p. 1831.

승려(대처승)과 1만명의 불자가 있으며, 개신교는 2개의 교회(450명 교인)와 5백여 개의 가정교회, 20여명의 목사와 1백30여명의 전도사(책임지도원) 및 1만명의 신자가 있고, 천주교는 1개의 성당(100명의 교인)과 8백 명의 신자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종교가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판단 아래 특히 한국전쟁 이후 종교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들어 잠복했던 중앙종교조직들이 활동을 재개하였고 1972년에는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전면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친 북한은 반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종교인들을 해외에 순방시키거나 국제종교회의에 참석시켜 북한에도 종교가 있음을 홍보하였다. 1981년에는 해외동포 기독교지도자와 접촉을 시작하여 1986년에는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한기독교 지도자와 회동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였다.¹⁶⁾ 1990년대 들어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종교학과를 설치하고 미주기독교학자의 초청강의를 개설하는 한편, 북미주 기독교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체사상과 기독교에 공통점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종교개념의 순화된 해석을 시도했다.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전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빼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종교활동의 자유를 형식적나마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단서조항은 1998년

16) 이만열,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서울: 두란노, 1994), pp. 48~52.

9월 헌법개정시 앞부분의 “누구든지”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상 종교의 자유는 이전보다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4년에는 단군릉을 조성하고 대종교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종교를 여전히 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죽이는 흡혈귀”로 인식하며 기독교의 붉은 십자가를 보면 두려움을 갖는다. 북한의 일반인들은 교회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교회 지하실에는 피를 뽑고 죽인 사람들의 뼈가 수북히 쌓여 있다고 알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사람들에게 두렵게 각인된 것은 아마도 한국전쟁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 생겨난 ‘미제국주의’에 대한 혐오감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나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독교를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존재를 부정한 종교의 자리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종교로서 자리를 틀었다. 종교의 자리에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이 대체종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포이에르바하나 맑스의 주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종교의 폐단을 인식하였지만 사회체제 내에서 종교적 기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맑스 자신도 종교가 지니는 보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비판한 것이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며,¹⁸⁾ 전통적인 형태의 종교의 소멸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인민으로부터 아편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이

17)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서울: IVP, 2000), pp. 46~48.

18) Anthony Giddens, *Sociology*, p. 458.

스스로 아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오히려 종교에 구현되어 있는 적극적인 가치(positive values)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 주도적 사상이 될 것으로 믿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인류의 적극적 자의식(positive self-consciousness)²⁰⁾으로 종교아닌 종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맑스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쳤던 포이에르바하도 소외현상으로서의 종교를 이해하면 소외나 종교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한다고 보았다. 종교에 투사한 가치관이 정말 자신의 신념이 된다면 그 가치는 사후세계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땅위에 실현될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능력을 신앙인 자신들의 능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 자체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해온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공산주의자를 “무신론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루나차르스키도 “생산력을 성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성자로, 과학적 사회주의를 성령”으로 비교하면서 사회주의를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파악하였다.²¹⁾ 폴 툴리히(Paul Tillich)는 사회주의, 파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을 유사종교(quasi-religion)로 묘사한다.²²⁾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정치지도자나 이념 또는 소속 집단에 헌신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띤다. 종교

19)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p. 351.

20) Robert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8), p. 93.

21)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pp. 30~34.

22) Paul Tillich,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p. 14~25;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p. 179에서 재인용.

현상을 세속화(secularization)의 과정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체제변혁기에 인간이 느끼는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또는 해체를 하나의 감정으로 묶어보고자 하는 대안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의 종교적 속성은 내면적 교리체계뿐만 아니라 외형적 행위규범에서도 종교적 형태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는 단순히 외형적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운동이 아니라 기존종교의 영역을 대체하는 일종의 종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체론적 입장에서 종교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종교적 체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파시즘, 민족주의, 과학주의 등이 과연 종교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체론적 관점에서는 종교의 가장 기본적 요소를 ‘신에 대한 믿음’ 혹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불교나 유교는 종교로 분류하기 곤란해진다. 그러나 종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신에 대한 믿음이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실체론적 관점을 따르다 하더라도 뉘켄의 분석처럼 신의 개념을 ‘성스러운 것’(the sacred)에 대한 체험으로 정의하면 여러 이념과 사상도 종교가 될 수 있다. 뉘켄은 종교를 “성스러운 것에 대한 신념과 행위의 통일된 체계”로 정의하며 “이 신념과 행위체계를 바탕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의 집단적인 도덕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²³⁾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종교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인격화된 초인간적이고 위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며 사회주의 이념도 종교가 될 수 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파시즘, 민족주의, 과학주의 등과 같이 인간

23)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he classic sociological study of primitive religion* (New York: Collier Books, 1961), p. 62.

의 궁극적인 문제와 한계상황에 대하여 의미를 제공하기만 하면 종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베버에 의하면 종교는 “의미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인간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여 정서적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지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⁴⁾ 인간은 기대와 실제 발생하는 일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고 하며, 인간의 운명, 도덕적 요구, 그리고 불의와 고통, 죽음과 같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해답을 주거나 시도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종교이든 아니면 전통종교를 대체한 어떤 이념이든 간에 모든 사회는 우연과 무기력, 희소성 등 인간상황을 해석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는 이러한 보편적 기제를 ‘세계종교’(world religion)라 부른다.

기능적으로 볼 때 종교는 궁극적 문제에 대한 의미를 제공한다. 궁극적 질문이란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이나 혹은 무질서한 현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궁극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한계상황 가운데는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고 본다. 종교는 인간이 당하는 문제에 관하여 궁극적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동시에 설명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인간의 경험과 사건에 관한 궁극적 해석의 틀이고 설명체계”라고 볼 수 있다.²⁵⁾ 종교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참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든다. 종교는 신앙인이 한계상황을 궁극적 질서와 대우주의 관점에서 보도록 인도한다. 그 세계 안에서 신앙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구체적 경험의 정체 혹은 참모습을 발견하고 의미를

24) Thomas F. O’Dea,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11.

25) 오경환, 『종교사회학』, p. 67.

찾게 된다. 기능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이념은 의미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공하는 종교인 것이다.

3.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파와 같이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여러 겹으로 둘러 싸여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는 주체사상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철학사전』에서도 주체사상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주체사상을 “주체사상 →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표시하여 주체사상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찾아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정의하며 김일성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을 주체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주체사상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상체계는 맑스주의 또는 레닌주의와 같이 김일성주의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김일성의 혁명사상, 혁명이론, 혁명방법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넓은 의미에서 사상, 이론, 방법을 포괄하며, 이 세 분야는 각각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영도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를 가리킨다. 즉 ‘주체사상 = 김일성주의’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김일성주의가 국제 사회주

26)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109.

의 운동과 사회주의 체제의 지도사상인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이론, ‘불완전한’ 맑스-레닌주의를 완성시킨 최고의 사상 이론이라는 북한노동당의 주장과 견해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드러내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²⁷⁾

김일성주의, 즉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가운데 한 분야인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혹은 주체철학이라 부른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철학적 세계관, 주체철학을 가리킨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 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다. 이로부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원리와 자주적 입장 및 창조적 입장에 기초한 지도적 원칙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주체사상에 대한 포괄적 개념은 1982년 김정일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며 그 후 계속해서 변화·발전되어 오고 있다.²⁸⁾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고정불변한 이념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외자주성 원칙과 혁명적 균중노선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한 것은 소련에 대한 맹목적 모방과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김일성의 탈소련화의 이같은 의도는 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즉 김일성은 중국의 청년운동인 5·4운동과 중국공산당의 정풍운동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도 광주학생운동을 주체성 있게 바라보며 주체적인 무엇

27)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http://www.onekorea.org/research/t22.html>, p. 4.

28) 主體思想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관한 통시적 분석은 金聖哲,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를 참조.

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²⁹⁾ 이 시기의 주체사상은 주로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의미하였다.

김일성정권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1967년부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사상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를 발전시켜 1970년대에는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을 매우 강조하였다.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지배권력의 통치담론으로 주체사상이 발전한 것이다. 특히 1974년 김정일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선포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정치교양학습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주체사상을 어떻게 사회관계의 규범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소위 ‘인간개조사업’을 전개하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영웅주의를 강조해 나갔다. 1975년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라는 슬로건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였고,³⁰⁾ 1979년에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주체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측면의 체계화가 일단락된 후 인간중심 철학이 더욱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리를 중

29)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53.

30) 李鐘奭,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p. 122.

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체사상의 철학체계를 발전시켰다. 그 이전까지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질을 자주성만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입장으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³¹⁾ 이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체사상이 인간의 속성을 자주성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하였고 부차적으로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등 체계화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김정일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사상의식의 강화에 대해서 ‘의식성’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지도방침으로서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의식성, 즉 사상의식 강화를 통한 인민대중의 자각성을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매우 강조한다. 남한에 널리 알려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입각한 인간중심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이 시기에 체계화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1986년 7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인간사회를 살아있는 생물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북한사회는 수령과 노동당, 인민대중이 하나가 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수령은 생물유기체의 두뇌(뇌수)에 해당하며 노동당은 심장(혈관)이고 인민대중은 몸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 한 개인은 죽으면 육체적 생명은 없어지지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살게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는 인민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는 뇌수가 가장 중요하다. 뇌수(수령)없이는 생명체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수령관과 집단주의 사회조직 원리를 이론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1980년대 말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시점부터는 민

31) 리승복 편, 「변증법적 유물론 1」 (평양: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1978), pp. 33~39.

족개념을 부각시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타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론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민족은 일제와 미제를 타도하고 수령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군신화를 복원하고 고구려 왕릉을 개축하는 등 전통문화의 발굴과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주체사상은 사회역사 발전원리에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김일성주의가 새로운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사회주의 사상사에 등장했던 여러 경험, 특히 맑스-레닌주의와 확연하게 차별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는 다른 독창적이고 우월한 철학적 세계관을 세웠다고 한다. 또 구성체계와 전개 내용에 있어서도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는 다르게 정립되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단순히 계승·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헌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언급(제4조)하였다. 이것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시켰다.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32) 김정일,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90.5.30),”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88~1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이념으로 삼는다”(제3조)라고 선언함으로써 주체사상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은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공화국의 창건자”로 언급하며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출발하여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는 먼저 ‘수령론’이 대두하면서부터 시작된다.³³⁾ 1974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한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선포되고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영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어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기 위해 ‘신격화’, ‘신조화’, ‘절대성’, ‘무조건성’으로 이루어진 ‘충실성의 4대원칙’이 통용되었다. 김정일은 1978년부터 혁명영화에 김일성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그에 충실했던 항일빨치산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충성동, 효성동으로 자랄 것을 강요했고, 일반인들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받드는 것처럼 수령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령론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칭송되어야 할 위대한 지도자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항일혁명을 주도하여 조국해방을 성취했고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한 수령이기 때문에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철저히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친다.³⁴⁾ 수

33) 김명세, “주체사상의 인간개조론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년, pp. 32~36.

34)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p. 379~383.

령론에 근거하여 북한은 ‘4대신화’를 만들었고 북한주민들은 이를 믿고 있다.³⁵⁾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일제 식민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킨 ‘위대한 수령’이다. 이것을 북한은 ‘해방신화’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불멸의 지도자로서 추앙받는다. 이것은 북한이 ‘전승신화’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북한을 지상의 낙원으로 발전시킨 ‘낙원신화’를 일구어낸 장본인이다. 이러한 신화의 토대 위에 김일성은 ‘통일’이라는 미래의 낙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선전된다.

주체사상의 종교성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연구의 진전으로 뒷받침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지금까지 서양철학에서는 무엇이 우주의 본질인가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를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 관념론적 철학이나 유물론적 철학은 의식이 본질인가 물질이 본질인가를 놓고 대립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식과 물질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따질 수 없고 의식과 물질을 변증법적으로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의식과 물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물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질과 의식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사상을 펼친다. 따라서 사람을 기본단위로 놓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본질을 규명해 나간다.

주체사상은 이것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관을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관점과 입장의 전

35)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pp. 27~69.

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한다.³⁶⁾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의 총체로서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를 규정한다. 북한은 세계관을 크게 종교적 세계관과 철학적 세계관으로 구분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세계관은 비과학적이며 환상적인 종교적 세계관과 달리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과학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해왔는데 관념론적 세계관은 종교적 세계관의 외피를 쓴 비과학적이며 전근대적인 세계관이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이러한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확립했다고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체의 세계관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중심의 이러한 세계관은 릿츨(Albrecht Ritschl)의 종교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릿츨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존의 종교는 신비적이며 허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종교론의 일차적 문제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 영적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모든 자연세계보다 고등한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자연상태의 한 부분인 인간은 영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연상태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다. 여기에서 사람은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영혼이 자연세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며, 그 결과 자연세계에 대한 영혼의

36)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418.

37) 박형룡, 『기독교 현대 신학난제 선포』 (서울: 은성문화사, 1975), pp. 161~165.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릿출은 이러한 시도가 합리적 추론이나 직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영적 혹은 정신적 측면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매우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체사상은 자연세계에 대해 초월적인 것으로서의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을 찾는 기성종교와는 다르다. 그러나 릿출의 신학처럼 신을 가정하지 않는 영적, 정신적 세계의 탐구가 좀더 진전된다면 주체사상도 종교적 이론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사람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확립하였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개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³⁸⁾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앙으로 심화된 것은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완성되면서부터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주체사상의 종교적 변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다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강화되어 ‘수령’은 전사에게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는 은인으로, 아버지로 강조되어 아버이 수령께 충성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 안은 전사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주체사상이 종교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종교의 발전

38)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서울: 기독교문사, 1990), p. 43.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혼(soul)을 집단적 숭배의 대상으로 환원시킨 정신(spirit)의 출현은 종교적 힘을 개인소지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³⁹⁾ 수령관과 주체철학,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출현으로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신앙으로 진화되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죽음과 고통,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은 사람에게 불안, 공포심, 혼돈의 심리를 자극한다. 이에 대해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인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공한다. 또 인간생활에서 직면하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준다. 인간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약탈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는 논리로 발전한다. 양심과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때때로 가난과 고통과 무시를 당하는가 하면, 반대로 양심을 속이고 악덕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악의 문제이다. 악의 문제는 부당한 불공평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악랄한 착취가 악의 근원이며, 사회주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침투와 파괴공작이 악의 근원이다.

실체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체사상은 종교로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 기독교의 신과 같은 신학체계는 없지만 주체사상은 수령의 신격화, 신비화를 통해 “인격화된 초인간적이고 위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초인간적인 숭고함이나 경외하

39)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pp. 309~333.

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령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니 수령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내려다 보시고 도와주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⁴⁰⁾라고 한 김정일의 말에서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의 머리 속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로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발전시킨 주체사상은 위에서 분류한 여러 종교적 성향을 담지하고 있다.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의 현상도 나타나고 윤리종교적 특성, 일신교의 유일적 신앙도 발견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단순한 윤리체계는 아니며 강렬한 숭배를 요구하는 측면이 개입되어 있다. 윤리종교는 유신종교에 비해 배타적이 아니지만 주체사상은 유신종교에 비유될만큼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윤리종교가 지배적인 동양에서는 신자들이 동시에 여러 종교를 믿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북한에서는 오직 주체사상만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조직생활은 신앙체계와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조직과 매우 흡사하다.

40) 『로동신문』 1999.5.26; 한호석,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http://www.onekorea.org/research/000916.html>, p. 10.

Ⅲ. 교리 및 신념체계

본 장에서는 주체사상이 발전시킨 교리(dogma)와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기독교 신학교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는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로서 신앙과 신학체계의 내용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다. 기독교 각 교파에 따라 성경을 평가하는 기준과 입장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성경의 무오성, 즉 성경은 틀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며, 이 가운데 조직신학은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기독교의 교리와 교의는 신학으로부터 도출되며 교리와 교의로부터 신조와 윤리가 추출된다. 기독교의 교리와 신념체계를 포괄하는 조직신학의 내용은 크게 여섯 분야로 구성된다.⁴¹⁾ 즉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진리체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체사상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사상과 교리를 발전시켰는지 살펴본다.

1. 신앙의 대상과 성격

가. 하나님과 공산주의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신을 숭배한다.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신으로서의 절대적 속성 혹은 비공

41) Louis Berkhof 지음, 권수경·이상원 옮김, 『조직신학』 상, 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유적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보편적 속성, 즉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⁴²⁾ 하나님은 존재와 모든 덕과 행위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외부의 어떤 것에 그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 자존성 (self-existence)을 지닌다. 또 하나님은 그의 내적 존재와 속성, 목적, 행동의 동기 및 약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불변적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 선과 사랑, 의와 거룩, 주권과 능력에서 무한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과 공간적으로 무소부제한 존재로 간주된다.

동시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며, 완전히 거룩한 선이고 공휼과 은총과 인내를 베풀기 원하시는 사랑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며 무한한 위엄으로 그들을 초월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죄를 미워하며 불경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분이며, 거짓된 만물에 대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실재를 파악하며 모든 언약적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진실성이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권을 가진 분으로 설명된다.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세인격)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자연신론에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 혹은 범신론이 주장하는 내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인격체이며 삼위일체의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⁴³⁾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혹은 “기

42)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 개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4), pp. 59~70.

43) Cornelius Van Til, 신국원 역, 『변증학(*The Defense of the Fai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p. 21~26.

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⁴⁴⁾ 즉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의 세 위(位) 혹은 특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대교, 이슬람교와 더불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은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으며 다른 숭배의 대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을 교리화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교리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은 잡신이거나 이방신이라고 여기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로 기능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같은 신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다. 주체사상은 유물론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유물론적 가치관과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적 영역을 초월하는 추상적인 신의 개념을 거부한다. 주체사상은 “인간은 가장 발달된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사고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숭배대상으로서 기독교에서와 같은 추상적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반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 가치관을 따른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북한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한다. 신의 개념에 있어서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대신 공산주의의 도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형이상학적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허구이지만 공산주의는 역사법칙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과학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이 공산주의의 도래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확

44) 웨인 그루텐, 노진준 역, 『조직신학(상)』 (서울: 은성출판사, 1997), p. 326.

신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혁명적 세계관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과 사랑의 감정,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대를 이어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강의한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과학적으로 공고하며 가장 고상한 신념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적 품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최고 이상인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⁴⁵⁾

주체사상에 의하면 신념이란 “자기의 사상과 견해를 옳은 것으로 확고하게 믿으며 자기사업이 정당하고 꼭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상의식”이라고 정의된다.⁴⁶⁾ 신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견해·원칙에 맞게 변함없이 행동하도록 추동하는 체계화된 요구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요 없이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게 한다.”⁴⁷⁾ 주체사상이 신념에 대해 “확고하게 믿으며” 또는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종교적 색채를 띠는 부분이다. 확신은 어떤 대상을 놓고 믿는 것으로서 이미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사로서 종교적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⁴⁸⁾

기독교에서도 현대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하나님

45)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12.27)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70.

46)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397.

47) 위의 책, p. 397.

48)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p. 42.

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미래” 혹은 “실존의 궁극적 근원과 방향” 등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⁴⁹⁾ 현대신학자들은 전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신론을 주장하거나 혹은 기존의 신학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한다.⁵⁰⁾ 특히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인간의 개인적 구원 외에 사회적 구원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신비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치적·경제적 구원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은 현실사회와 민중의 구원을 실현하는 존재로 묘사된다.⁵¹⁾

북한 주체사상 연구소의 박승덕은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은 민족통일 민족해방의 차원에서, 민중구원과 민중해방의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평화의 차원에서 적극 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⁵²⁾ 예수를 해방자로서 조명하고 예수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소외계층의 인간회복과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서 찾으려는 신학적 탐구는 주체사상의 신학세계와 비슷하다.⁵³⁾ 박승덕은 또 현대 기독교 신학이 “래세 천당으로부터 현세천당으로, 현실도피로부터 현실참여로, 개인구원으로부터 집단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 기독교 신학의 전진적 방향”⁵⁴⁾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보수기독교 신학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닌 현세적 천국의 실현과 사회구원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신학의 신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은 사회구원을 강조하고 내세가 아닌 현실세계를 해석하는

49) 제임스 벤틀리, 김쾌상 옮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서울: 일월서각, 1987), p. 204.

50)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p. 9~144.

51) 위의 책, p. 271.

52)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p. 85~86.

53) 송기득, “민족통일에 대한 신학적 과제: 인간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주체사상』, pp. 31~49.

54) 박승덕, “주체사상의 종교관,” 『기독교와 주체사상』, p. 192.

실천적 종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체사상이 신봉하는 신은 공산주의라는 절대적 미래이며 역사적·과학적 필연으로서 도래할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신론에 있어서 자유주의 현대신학의 교리양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나. 하나님과 김일성·김정일

기독교에서 신론은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은 예수라는 인간으로 성육신함으로써 보이는 하나님으로 환원된다. 예수가 바로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은 형이상학적인 신학체계를 공산주의 도래라는 이론과 신념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살아 있는 하나님’, 즉 김일성이 바로 공산주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 온 예수인 셈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사람들에게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한 조선민족의 시조이며 절대적으로 숭배해야 할 신적인 존재이다. 김일성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신을 대신하는 기독교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은 출생부터 성장과정 및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성화된다. 김일성이 출생한 만경대와 혁명전적지의 성역화 및 각종 상징물을 제작하는 등 신성화한다. 김일성이 술방울로 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든가 낙엽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김일성을 신격화한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 천지조화를 다 알고 축지법을 써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모래로 쌀을 만들고 술방울로 총알을 만들며, 가랑잎을 띄우

고 대하를 건너가는 만고의 영웅,” “한번 노려보면 사나운 원수도 가을 풀같이 쓰러지며 미소로 바라보면 마른 나무에도 잎이 돋고 꽃이 핀다”⁵⁵⁾고 믿는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노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과 그 위업계승자의 령도 밑에 발전·완성된다”⁵⁶⁾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신앙과 신념이 교리화된다. 이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수령과 그 위업계승자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적 세계관의 핵”이 되며 “수령과 그 위업계승자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신념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구”라고 강조하게 된다.⁵⁷⁾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 김일성과 그 위업계승자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서 신념과 신앙의 대상은 공산주의이며 동시에 그 길로 인도해주는 수령, 즉 김일성이라고 볼 때, 공산주의는 이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도 신과 동일시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김일성이라는 숭배대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신념체계에서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⁵⁸⁾

신적인 존재로서의 김일성의 위상은 그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는 소위 김일성 무오설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김일성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생각과 결정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것은 김일성의 신격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잘못된 일에는 언제나 ‘악역’을 따로 두어 김일성의 무오류성과 자애로운 성품을 보호한다. 김일성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김일성 무오설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55)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171호, 1980.4.16.

56)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397.

57) 위의 책, p. 397.

58)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p. 42.

실수하지 않으며 오류가 없다는 하나님 무오설과 같은 것이다.⁵⁹⁾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개톨릭에서는 교회는 무오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확증한 교의(dogma)는 오류가 없으며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믿는다. 개톨릭에서 교회의 무오설과 권위를 인정하듯이 개신교는 성경의 무오설과 권위를 믿는다. 종교적 신앙은 교리 혹은 성경의 무오설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주체사상도 수령 김일성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으며 그 권위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실체로 설명하는가 하면 완전한 인격체로 묘사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신으로서 절대적 속성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예수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특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독교의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된다. 예수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때 괴로워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료하며 물위를 걷고 죽음에서 부활한 신적인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신적인 김일성은 동시에 정이 넘치는 인간으로 묘사된다. 백성이 고통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다. 이것은 예수가 신적 존재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믿는 기독교 이론과 같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기독교 신앙은

59) Richard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개념에 대한 연구,” pp. 23~28, 36~40.

단지 거룩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운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사랑할 때 마치 인격체가 자신을 사랑하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인 충성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김일성도 북한사람들에게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임과 동시에 ‘자애로운 지도자’, ‘인민을 위해 한 생을 바친 인자롭고 경애하는 수령님’이다. 따라서 인격체인 김일성에 대해 인간적으로 의리를 지키며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본분으로 생각하게 된다.

김일성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보이지 않는’ 김일성에 대해 점차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주체사상의 신학이론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는 지상에 살아서 활동하는 신이었지만 사망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김일성이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김정일이 “수령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내려다 보시고 도와주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 있다는 김일성에 대해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부여하면서 신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보이지 않는 김일성의 화신이라는 논리가 더 발전된다면 김일성은 성부인 자기자신과 성자 김정일, 성령인 사회정치적 생명이 ‘삼위일체’를 이룬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신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김일성의 화신으로서 김정일을 부각시키며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후

계자 논의가 있기 전에 김일성을 신격화하였고 김정일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통성과 신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예수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위로 신적인 지위와 정통성을 확보했듯이 김정일도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세워가고 있다. 김정일은 1970년대 당내 기반을 닦은 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이름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1981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대국민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출판과 선전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⁶⁰⁾ 예수가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자로서 위치를 확보했듯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다. 그 결과 김정일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신묘한 지휘봉을 한번 들면 동해바다가 갈라지고...협악한 밀림도 길을 환히 비쳐 줄 수 있으며...100미터 전방에 늘어놓은 열 개의 페니실린 병도 모두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⁶¹⁾

1986년 5월 김일성이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⁶²⁾라고 천명한 이후 1987년부터 김정일에 대한 본격적인 신격화 사업을 전개했다. 항일 구호나무를 발굴하여 선전하고 김정일화, 정일봉, 백두산 출생설 등을 만들어 신성화하였다.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을 기해 김정일화를 재배·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에 대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징물로서 의미가 있으며 1988년 4월부터는 ‘김정일화 연구집단’을 조직하고 중앙식물원에 ‘김정일화 온실’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다. 그후 계속하여 정일봉(88.11.15), 향도봉(91.1),

60)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8~44.

61) 『평양방송』, 1985.2.10.

62)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01.

만수무강수(91.2.9) 등의 상징물을 만들어 김정일 신성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을 신성화하기 위해 『조선중앙년감』에서 김정일의 업적에 관해 따로 분류하여 김일성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김정일에 대해 호칭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선중앙년감』 1987년판에서부터 김정일저작을 분류하면서 김정일에 대해 기존에 사용해왔던 ‘지도자’나 ‘비서’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김일성이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언급한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서 김일성에 대한 호칭인 ‘수령’의 정식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임에 틀림없다.⁶³⁾ 1989년판에서는 김정일저작에 대해 기존에 ‘문헌’이라는 표현을 ‘로작’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문헌에 대해서도 ‘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수령’이라는 호칭만 붙이면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작’으로 되어 문헌분류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실 김일성도 북한에서 이와 흡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김일성이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호칭에 대한 사용을 수년동안 중단하였다. 『조선중앙년감』을 통해서 보면, 1958년판에서부터 사용해 오던 ‘수상’이라는 호칭을 1968년판에서 아무 수식어 없이 ‘문헌’으로 단순히 분류하였고, 1969년판에는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연설 및 축하문’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상

63) 『조선중앙년감』에서 김정일의 문헌을 독립적으로 분류·소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3년판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라는 분류제목을 사용하였다. 1982년판에는 김정일의 실무지도에 관한 내용을 처음 수록했었다. 1985년판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문헌’으로 분류 제목을 바꾸었다.

이라는 호칭을 삭제하였다. 수상 호칭을 삭제한 것은 수령 호칭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이것이 1976년판에 드디어 작은 글자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이라는 분류되어 수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1977년판에 조금 큰 글씨로 바뀌었고 1978년판부터는 현재와 같은 글자의 크기로 변화였다.

이와 같은 신성화 작업을 통해 문학예술분야에서는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7년판에서는 문학예술 부문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저작을 교시로 인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라는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에 이르러 김정일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추측케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일에 대해서 ‘지도자’라는 호칭사용을 삭제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예술분야에서 김정일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문학예술분야에서 김정일은 이미 수령의 입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정일장군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으며 그이가 없는 세계는 무의미하고 태양이 없는 암흑이며 파멸이라는 생각, 오직 그분이 계셔야 우리의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지구가 돌고 역사가 흐르고 인류가 재난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확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력사에 사는 우리 인민의 산 체험이다”⁶⁴⁾라는 데서 신성화된 김정일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신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귀순자들이 남한에 와서 일종의 허전함을 느끼는 데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김일성의 존재를 극복하는데 깊은 내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 탈북귀순자들은 그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위안과 용서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무장간첩으로 남파되었던 김신조씨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김일성

64) 『로동신문』, 1994.2.16.

이란 존재를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귀순자들이 정말 ‘김일성’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⁶⁵⁾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던 기독교 신자가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금방 예수를 욕할 수 없으며 교회를 비판해도 예수를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김신조씨는 “하느님 하나까 자꾸 김일성 생각이 나는 거여. 우리가 김일성을 신으로 섬겼거든. 예수님 하나까 또 김정일 생각이 나. 김정일도 ‘아버지의 아들’ 이거든”이라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실감나게 얘기한다.⁶⁶⁾

북한사람들에게는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교리화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을 한번 만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귀순자 김현희는 “김일성은 유일신의 존재인 하느님을 부정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그 하느님(기독교)의 방법과 구조를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나는 것은 남한에서 기독교인이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한다.⁶⁷⁾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은 기독교의 신의 지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귀순자 김현희는 자신이 체포되는 위급한 순간에 김일성에게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위기의 순간을 당하기까지 단 하루도 ‘위대한 수령 아버지’라는 말을 잊어 본 적이 없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수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⁶⁸⁾ 김일성만이

65)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나님』, pp. 208~209.

66) 위의 책, p. 191.

67) 위의 책, p. 191.

유일한 구원의 빛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서는 김일성 아닌 막연한 신을 찾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일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그 자체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종교를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처럼 신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살아 있는 지도자를 높이 받들어 모시는 데 훨씬 익숙하다.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숭배의 대상이 김일성 수령이라고 한다면 그 숭배의 대상은 서구 기독교의 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신화를 만들어내고 김일성을 신성화하며 보이지 않는 김일성의 생명, 즉 사상(정신)이 그들과 함께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종교적 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 십계명과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기독교 교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행위기반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한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언약과 율례로서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제1계명부터 제3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며 제4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을 선언하고 있다. 이

6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1권(서울: 고려원, 1991), p. 25.

런 점에서 신약시대에 이르면 예수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대 계명으로 요약·선포한다.

기독교인의 행위를 제약함과 동시에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북한의 주체사상도 숭배대상인 김일성에 대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10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유일신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incarnated)한 예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수 이외에 어떤 존재도 믿어서는 안되며 예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의 이러한 배타적 신념이 바로 북한에서도 소위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나타나 있다. 기독교의 십계명처럼 북한은 ‘10대원칙’이라는 율법을 만들어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에게 충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10대원칙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김일성만을 믿고 따르는 ‘유일사상’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1967년에 시작하여 1974년에 완성

한 주체종교의 강령이다.

북한이 김일성유일사상을 만들고 이것을 ‘10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며 이를 십계명으로 명문화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을 명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며 모든 언행은 이 ‘10대원칙’에 근거하여 평가받는다. 주체사상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규정되어 김일성주의의 하부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존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김일성(혹은 김정일)이라는 유일신은 기독교보다 더 엄격한 행동규율을 요구하며 신으로서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명문화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 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

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기독교의 십계명은 제1~3계명만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7가지 계명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10대원칙’은 모든 계명에 김일성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김일성에 대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담고 있다. 10가지 원칙을 굳이 세분화한다면 처음 5가지 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신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는 5가지 원칙은 보다 세부적인 행동원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평가와 해석을 김일성이라는 유일신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주체사상이 김일성만은 유일신으로 섬기며 김일성 이외에는 어떠한 신이나 사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만을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신으로 신봉하기 위해 제정한 ‘10대원칙’은 각각의 원칙마다 세부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십계명은 열 가지의 행동규율에 관해 간략한 부연설명을 달고 있으며 또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다.⁶⁹⁾ 그러나 ‘10대원칙’과 같이 각각의 원칙에 속하는 세부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10대원칙’은 각 원칙마다 매우 상세한 세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라는 제3원칙은 7개의 세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69)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23장.

가운데 제6항과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열거하고 있다.

제6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회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제7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는 제4원칙은 제5항에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 및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매일 2시간 이상 학습을 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김일성 교시 집행의 무조건성에 관한 제5원칙은 김일성의 교시를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제1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원칙의 1항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제5항은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10대원칙’과 십계명의 규율은 각각의 영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복잡하고 철학적인 생활지침을 직접적 형태로 구체화하여 인민들에게 교리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⁷⁰⁾

70) Richard R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개념에 대한 연

‘10대원칙’을 더 간결한 형태로 만들어 실천원칙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령님을 높이 모시기 위한 ‘4대원칙’으로 신격화, 신조화, 절대성, 무조건성과 같은 행동원칙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대원칙’은 수령을 신격화하기 위한 모범적인 행동규범, 이상적인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인의 생활에서도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계명은 신앙의 이상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계명에는 저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10대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든 ‘10대원칙’에 걸여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 원칙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실제로 북한사람들은 사소한 행동까지도 ‘10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10대원칙’ 적용의 엄격성은 기독교의 생활규범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

인간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아마도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비교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영역일 것이다. 황장엽비서의 망명 전까지 북한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박승덕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이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며 그 특징은 인생관화된 인간론”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⁷¹⁾ 기독교의 신론을 접어두고 인간에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의 인간론은 주체사상에서 이론화하고 있는 인간

구,” p. 22.

71)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p. 82.

론, 인생관과 뚜렷한 공통점을 갖는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라고 말한다.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과 같은 도덕적 성품의 탁월성도 하나님을 닮아 매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이 창조당시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규례는 인간의 존재 속에 새기어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짐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 지식에 대한 그릇된 이상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헛된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끝없는 불행 속에 스스로 빠뜨리고 말았다. 이 불행의 대가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인간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주변과 환경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은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감독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번영할지 아니면 쇠퇴할지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⁷²⁾ 인간은 선지자로서 이 세계를 해석하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 봉납하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인간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흥망 여부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부여한다.

72)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신국원 역, 「변증학」, p. 28.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⁷³⁾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위주의 철학”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철학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을 모든 사과의 중심에 놓고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철학이며, 세계의 개조자인 인간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위해 기여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규정된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속성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 더욱 더 쓸모 있고 리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가는” 속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간의 자주적·창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유물론적 인간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나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 발전의 특출

7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5.

한 산물이다”고 본다. 생명을 가진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람은 자연계에서 분리될 때 이미 특출한 존재로 탈바꿈되어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⁷⁴⁾ ‘사상의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맑스(Karl Marx)가 말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 즉 사상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이렇게 결정된 사상의식이 역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해 다시 인간존재를 규정하는 점에서 주체철학은 이 사상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사회적 속성을 구성요소와 결합구조의 특수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인간은 개체로서의 사람이 아닌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의 의식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며 객관세계의 반영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의식과 의식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두뇌작용으로 말미암아 의식작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성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인데, 이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작용과 기능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의식성을 본질로 규명하며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의식활동과 사상을 중요시하는 것은 경직된 유물론과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와 비교할 때 기독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단순히

74) 위의 글, p. 15.

물질세계의 반영이 아니라고 하는 주체사상의 주장은 과거 유물론과 기독교가 극렬히 대치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주체사상은 관념론에 대해 정신을 물질적 존재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절대화하고 신비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거부한다. 과거 기독교 혹은 일부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존재를 비하하고 정신적 존재만 참된 것으로 인식했으나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만의 존재가 아닌 몸을 가진 인간존재를 전제한다. 유물론적 사고로부터 출발한 주체사상이 의식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사상과 거리를 좁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영혼 혹은 영적 실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기독교의 시각에서도 주체사상이 여전히 그 기반을 유물론에 두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강조하는 서구 관념론적 철학 및 기독교신학과 매우 가까워졌다.

맑스-레닌주의가 해명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였다. 즉 세계의 근원이 물질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하는 것이었다. 맑스-레닌주의는 세계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과 의식에 대한 물질의 선차성, 물질의 외재성을 주장했다. 이 경우 의식은 존재론적 실재가 아니며 인간두뇌라는 생명물질의 작용과 기능에 불과하다. 주체사상은 여기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즉 맑스-레닌주의에서 논의하는 물질이라는 철학적 범주를 ‘세계’와 ‘사람’으로 다르게 구분한다. 이는 물질이 근본이냐 의식이 본질이냐 라는 식으로 철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 내에서 전체로서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관계문제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과 의식을 변증법적으로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만물을 물질 위주로 보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달리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즉 ‘물질’과 ‘사

상'을 한 몸에 가진 '사람'을 중심단위로 놓고 세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를 분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을 기본단위로 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하는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는 물질이라는 철학적 범주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론적 실체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다.⁷⁵⁾

주체사상이 물질-의식 관계문제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이론화하고 사람-세계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주체철학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는 객관적 물질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이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념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를 신비로운 존재로 본다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으며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를 고정불변한 존재로 본다면 사람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세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인 이해를 시인하는 조건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이 일련의 제한성과 미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원리들은 과학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철학이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⁷⁶⁾

75)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http://www.onekorea.org/research/tww.html> (April 10, 2000), p. 8.

76) 김정일의 1996년 7월 26일 담화(노동당 기관지 『근로자』에 실렸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했음);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

주체사상이 유독 인간의 본질을 이처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서 출판된 주체사상의 입문서에는 유물론적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는 명제에 따라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니는 특성을 중요시한다. 즉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이 가질 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 언어기능, 노동기능을 가짐으로써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⁷⁷⁾ 사람은 두뇌 용량이 1,000~2,000cm³로 원숭이의 400~600cm³, 유인원의 750cm³보다 크며, 또한 뇌신경세포가 140억개로 침팬지의 30억개보다 훨씬 많아 특유의 사유기능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인후가 발달하여 분절음을 낼 수 있다는 점과 발달된 손, 즉 엄지손가락이 도구를 잘 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60도 회전가능한 팔의 골격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1982년까지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⁷⁸⁾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로서 의식성을 구분하고 있지만 의식성과 의식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는 의식성을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하는 고급한속성”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사람의 육체적 기관 가운데 가장 발전된 기관을 뇌수로 보고 그 뇌수의 기능을 의식으로 간주하였다.⁷⁹⁾ 주체사상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의식활동과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며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식을 생물

(조선) 내부의 비판,” p. 8에서 재인용.

77)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동경: 구월서방, 1989), pp. 98~100.

7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8.

79) 위의 글, p. 34.

학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식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 주체사상의 탈유물론적 해석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 규명을 둘러싸고 황장엽씨와 북한내부 지식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간본질 규명이 최근의 일임을 반영한다. 인간본질에 관한 탈유물론적 해석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지식인들 사이에 논쟁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황장엽씨의 경우 유물론에 근거하여 사람과 사회의 일관된 발전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데 비해, 북한 내부학자들은 생물학적 진화의 측면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해석을 시도한 것 같다. 황장엽씨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인 동물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물론적 가정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듯 보인다. 즉 그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소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회공동의 재부를 창출, 축적할 수 있고, 이것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한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장엽씨는 물질의 운동이 물질의 구성요소와 결합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며 자연계는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에너지가 집적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주는 양적으로 크기만할 뿐 질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까지 발전해온 인간의 위대성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⁸²⁾ 황장엽씨의 이러한 논의가 인간의 본질

80)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http://www.onekorea.org/research/tww.html> (April 10, 2000), p. 3.

81) 황장엽,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시대정신』 제9호(2000년 3, 4월), pp. 5~29.

82) 위의 글, p. 24.

을 다분히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김정일은 1990년 10월 25일 담화에서 주체철학에 대해 유물론과의 차별성을 상세히 설명한다.⁸³⁾ 우선,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의 견지에서 해석하려는 편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완전히 독창적인 철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나 개량주의자들은 모든 사물현상을 생물학적인 진화론적 관점과 속류유물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사람들 속에 자연생장성과 물질지상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체철학을 해설하는 데서 생물학주의적이며 속류유물론적 세계관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the law of unity and struggle of opposite)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를 이론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이론이 지배적이던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법칙을 철학적으로 밝힌 것이므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이 지상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과 투쟁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김정일은 또한 일부 지식인들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essential attributes)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일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인간은 다른 생명물질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발전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

83)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1990.10.25),” 『김정일선집 10』, pp. 296~304.

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생명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차이를 발전수준의 차이로 설명”하는 진화론적 고찰방법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생물학적 존재의 견지에서 보면 사람의 육체는 다른 생명유기체에 비하여 발전수준에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의 견지에서 보면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른 모든 생명물질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생명물질의 발전수준에서의 차이로 본다든지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결합방식의 복잡성에서 찾으려는 것은 진화론적 사고로 잘못된 고찰방법이라고 비판한다. 김정일의 주장은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속성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이 이처럼 진화론적 설명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구분하고 사회적 존재의 속성에 비중을 두는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파악한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은 자연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물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신적·물질적 재부를 지니고 살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집단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까지 사회적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사회적 재부를 사회적 존재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는 사람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한다.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할 때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과는 대비되는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창조성이 없이는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고, 의식성이

없이 창조성은 맹목적인 것이 된다.

주체사상은 개체로서의 사람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존재로서만 인간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인간론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다. 기독교는 한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서 절대자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며 이런 점에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 즉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방식 때문에 인간의 사고작용을 단순히 물질의 작용, 즉 뇌의 물질적 작용으로 간주하는 유물론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사회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주체사상이 인간의 본질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성선설을 가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인간이 처음부터 물질적 존재로서 진화되었다는 설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진화론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정하는 주체사상은 유물론과 진화론에서 기독교의 인간론과 상이하지만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낙관론적 인간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기독교 인간관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하는 주체사상의 인간관은 실제로 북한사람들이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주체사상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동물과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고상한 사회적 품격을 논하지만 주체사상의 세계관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따르고 있고 인간에 대한 탈유물론적 해석이 근래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물론적 가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한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은 유물론과 다르다고 배우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의 북한 주체사상과 주체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새로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역사적으로 종교적 세계관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세계관이란 특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창조와 만물에 관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구약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의 형상을 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 모든 짐승과 땅을 가는 모든 것을 다 스리게 한다.》⁸⁴⁾

따라서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가장 높이 평가되며 사람을 포함한 현실적 존재는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로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당하는 존재들 가운데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신(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하찮은 노예나 하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기독교의 인간론을 비판한다. 대신 주체철학은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고 한다. 세계에는 끝없이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지만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 세계의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될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되지 않는다. 즉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은 다

84) 현원석, 『주체의 인간론』 (동경: 구월서방, 1992), p. 231.

른 것의 수단으로 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귀중하고 존엄 있는 존재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했을 따름이지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인간관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와 인간을 구분하고 세계로부터 인간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윤리종교와는 다르다. 성경은 만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다른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보다도 사람의 존엄성을 부각시킨다. 물론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여 기독교에서와 같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논리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우주를 인간과 구별하고 인간을 중시하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주체적 신념은 인간존중의 기독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회적 재부인 사회관계나 사회제도 또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⁸⁵⁾ 이러한 사고는 예수가 소위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의 제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제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귀중함을 설파한 대목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부분을 제외하면 인간과 세계를 보는 관점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론과 수령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기독교론이다. 즉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화해

85) 위의 글, p. 234.

자, 중재자로서 참신이자 온전한 인간인 예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도록 계획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철학, 종교, 선행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라고 주장한다. 예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며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아무도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하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하여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⁸⁶⁾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에서 중보자 예수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기독교론은 가장 중요하다. 예수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이외에는 인간이 구원받거나 영생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든지 예

86)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 1장 18절.

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말로부터 예수가 곧 유일신 하나님이며 예수만을 따르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⁸⁷⁾

기독교의 교리에서 예수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듯이 주체사상의 교리에서도 수령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역량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을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정의한다.⁸⁸⁾ 노동계급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대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세련된 영도하에 투쟁해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며 백수십년에 걸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적 진리라는 것이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와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그 지위는 절대적이다. 이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⁹⁾

수령이 최고뇌수라는 말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성에 대한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조직적 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은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결속되며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통일적으로 행동하고 싸워나갈 수 있다.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조직적 의사로 전환시키려면 그것을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종합 일반화하고 혁명조직의 의사와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대중 속에서 이 어렵고 중요한 사업을

87)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88)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376.

89) 위의 책, 『철학사전』, p. 376.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령뿐이다. 수령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종합·체계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조직전반을 이끌어 간다. 따라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최고의 체현자로 그들의 최고뇌수가 된다.

또한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가 되는 것은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질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은 고도의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사상의식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게 해준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현실세계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과 이론이기 때문에 높은 창조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동시에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그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단합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모든 품격과 행동이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해 규제되는 만큼 사상의지적 단합을 이룩해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혁명임무를 단합된 힘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오직 인민대중에 의해 추대되는 수령의 혁명사상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확고히 한다. 또한 수령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인 이유는 수령이 인민대중의 조직적 단합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통일단결시키

려면 반드시 그들을 조직적으로 단합시켜야 한다. 조직적으로 단합되어 하나의 노선과 조직원칙,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사람들이 행동에서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불패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 조직을 떠난 조직적 단합이란 있을 수 없다. 인민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 세워 조직적으로 단합시키는 사업은 오직 노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수령만이 혁명조직건설을 위한 옳은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해 나가며 사람들 속에서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조직적 단합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 인민대중 속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최고의 영도적 지위는 절대적이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체사상의 이론에 따르면 수령에 의해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전진하고 완성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은 오직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수령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줄 모르는 사상이론활동과 실천활동을 벌인다. 수령은 백과전서적인 지식과 끝없이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령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들과 함께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나간다. 수령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질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은 인류역사에서 가끔 찾아보는 특출한 개인과 완전히 구별된다. 수령은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 이러한 모든 개인과는 전혀 다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이익과 지향과 요구 전반을 대변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을 영도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아들 딸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며 그들을 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어 나가는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워준다. 특히 노동계급의 수령은 당대의 혁명운동과 사회발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뿐 아니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후계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준다고 한다.⁹⁰⁾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공산주의 혁명, 특히 조선의 공산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이며 예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운명이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 신이나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도 혁명완수를 위해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이론화함으로써 수령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 조선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수령의 영도를 받아 자기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단일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교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⁹¹⁾ 수령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며 혁명투쟁의 절대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강조된다. 수령은 모든 인민이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하며 우러러 모셔야 한다. 그는 혁명과 건설에서 최고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마땅히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이라고 정의한다.⁹²⁾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을

90)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377.

91)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p. 45.

92)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379.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혁명적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요구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기본요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본척도이다. 첫째는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하며, 둘째는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셋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아야 하며, 넷째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 신념임과 동시에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인 수령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며 혁명적 의리라고 주장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할 때 비록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만은 저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된다. 수령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가며 충성을 다할 때 참다운 충실성으로 증명된다고 하면서 세대를 계승하여 수령에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화함으로써 기독교의 기독교론과 같은 종교성을 지니게 된다. 주체사상의 수령은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구원자, 절대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를 키우기 위한” 종교적 헌신이 장려된다.⁹³⁾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는 수직적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령의 종교성은 혁명사상성취로 직결되고 있다.⁹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교리화하고 있으며, 수령의 후계자에게도 같은 충실성을 요구함으로써 종교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령론은 기독교의

93) 위의 책, p. 382.

94)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p. 48.

기독론에 해당하는 핵심교리이며 주체사상의 종교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임에 틀림없다. 기독교가 기독론의 중요성 때문에 기독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면 북한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체사상을 종교적 측면에서 '수령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 구원과 영생

기독교의 독특한 측면은 믿음을 갖고 교리를 따르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사상은 기독교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구원사상은 동양종교에서 근본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긴장과 감정적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의 이러한 특성을 '구원종교'(salvation religion)라고 말한다.⁹⁵⁾ 구원종교가 지니는 이러한 긴장과 감정적 역동성은 '혁명적' 측면을 내포한다. 동양종교는 기존질서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교양하는 반면 기독교는 죄에 대항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기존질서에 대한 반란을 자극한다. 예수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존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권력구조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러한 구원은 인간이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죄없고 온전한 형상으로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음의 대가를 치루었다. 이 죽음의 희생은 이 세상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죄값을 지

95) Anthony Giddens, *Sociology*, p. 461~462.

불한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수양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덕이며 일방적인 은혜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일이다. 개인의 육체는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개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 간다고 한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미래적인 뿐 아니라 현재적이어서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⁹⁶⁾ 즉 영생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 개인에게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인 김일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고 구원했다는 일종의 신화를 갖고 있다.⁹⁷⁾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 신음하고 있던 상태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조선인민을 구원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 즉 1936년 조선광복회를 조직하고 1937년 6월 함경남도 보천보 전투를 주도했다거나 1942년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1교도영 영장으로 활동했다는 등의 경력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 경력을 과장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양학습을 통해 신격화함으로써 나라를 구원하고 인민을 해방시켰다고 선전한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조선사람들의 구세주, 탁월한 수령, 민족의 태양, 백전불굴의 강철 령장,” “전 세계 피압박 민족과 인민의 붉은 태양” 등으로 김일성을 추앙하면서 구원에 관한

96)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97)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pp. 31~38.

믿음을 갖고 있다.

주체사상은 구원의 초점을 개인영혼에 두지 않고 사회전체의 구원에 둔다는 점에서 현대 기독교신학과 유사성을 띤다. 예컨대 해방신학은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기독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상에 공의롭고 우애에 넘치는 사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⁸⁾ 따라서 구원은 가난한 경제, 억압받는 정치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사회구원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일제식민통치의 억압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사회전체의 구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과거의 구원이며 미래에 대한 구원은 영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영생의 개념과 연결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한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생명에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고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영원하다고 주장한다.⁹⁹⁾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신 것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한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이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육체적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정치적 생명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영원히 남는다.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영생한다며 “위

98)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p. 227.

9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60.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어를 만들어 내었다.

주체사상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육체적 생명보다는 수령과 집단을 통해서 부여받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훨씬 소중하다고 가르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¹⁰⁰⁾

북한은 또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행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오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영생한다고 선전한다.¹⁰¹⁾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공주의 사상을 가졌거나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도 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북한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북한체제가 받아준다는 것이다. 영화 중에 등장하는 박목사라는 인물은 “북의 체제가 뭐길래 목사까지 받아준다는 말인가”라며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기도 한다. 주체사상은 누구든지 북한의 사회주의 집단에 소속되어 수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사회정치적 생명이 부여되고 영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95~396.

101) 북한의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가운데 최덕신의 일대기를 그린 『최현덕편』 제2부와 제3부.

영생에 대한 주체사상의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든다. 개인이 비록 육체적 생명은 끊어지지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연연해하지 말고 육체적 죽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한다. 성경에서도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성경은 말한다.¹⁰²⁾ 주체사상도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 육체를 초개와 같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혁명은 일생을 잘 마쳐야 합니다. 죽을 때 너절하게 죽으면 한평생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너절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¹⁰³⁾라며 삶의 마무리를 깨끗하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서슴없이 바침으로써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야 한다고 격려한다.

귀순자 김현희는 북한이 강조하는 영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성경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자신부터 무시무시해지고 속이 뒤틀릴 정도로 종교를 악선전하였는데 알고 보니 같지 됩니까.”¹⁰⁴⁾ 뿐만 아니라 ‘혁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육체적 안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에서도 복음을 전파

102)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9절, 『마가복음』 9장 47절.

103)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489.

104)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103.

하는 선교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북한에서는 혁명을 위해 국민들의 ‘총폭탄’ 정신과 ‘자폭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육체적 몸을 안전하게 지켜 타락한 변절자가 되느니 보다는 죽음의 희생을 치르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주체사상의 내용 중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론적 생명론을 제시하여 맑스-레닌주의 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 또는 인생관으로 내면화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¹⁰⁵⁾ 개개인은 죽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회는 개인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회의 영원불멸설까지 주장함으로써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당과 수령의 지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⁰⁶⁾ 이 ‘영생불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각 개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하며 종교적 신앙의 근원을 이룬다.

5. 교회와 사회정치적 생명

기독교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여 유지된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외형적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는 예수가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105)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 p. 257.

10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59~65.

리라”¹⁰⁷⁾라고 한 말씀에 따라 ‘에클레시아’(ecclesia)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성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모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모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모일 선택된 자들의 전체로서 이루어진다”라고 교회를 정의한다.¹⁰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교회의 교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잘 보여진 영원과 순간에 매인 일시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면 결국 영원은 순간에 매인 일시적인 것들에 선행하며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고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이다.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에 따라 교회가 만들어지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헌법 제63조)라는 집단주의 구호를 통해 사회전체가 하나의 교회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한다.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조직과 집단에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사업을 사회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 주민전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공동체로 유기체적 생명체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생명관은 유교적 전통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유기체적 생명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양 정치사상의 한 지파를 형성해 온 고전적 사회사상으로 근대에 이르러 스펜서(H. Spencer)가 사회유기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 유기체론은 맑스의 계급론이나 불교, 혹은 공자의 통치철학과는

107)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08) Cornelius Van Til, 신국원 역, 『변증학』, pp. 35~36.

거리가 먼 것이며 서구사상, 특히 고대 그리스 사상과 성서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사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북한이 북한사회를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공동체 교리와 동일한 것이다.

성경의 『에베소서』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4:16)라고 하여 기독교의 유기체적 조직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¹⁰⁹⁾ 기독교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실존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 안에 포함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⁰⁾ 몸의 지체인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믿음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 혹은 연합된다고 확신한다. 바울의 이러한 사상 속에는 전체가 하나 안에 (all-in-one) 있다는 공동사상이 깔려 있다.¹¹¹⁾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표현하여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in)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북한의 집단주의 교리에 이와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교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집단주의에 근거한 주체사상의 이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절정에 이른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가 되는 통일체를 구성한다는 것

109) 기독교의 유기체적 조직관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참조.

110) Herman N. Ridderbos,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헤르만 리델보스 저, 황영철 역, 『하나님 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p. 75.

111) 헤르만 리델보스 저, 황영철 역, 『하나님의 나라』, p. 69.

이다.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신자를 각 지체가 된다는 유기체적 설명과 삼위일체의 개념이 혼합을 이룬 이론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죽음으로 끊어 없어지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의 구성원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김일성은 수령으로서 신체의 뇌수이며 당은 혈관이고 인민은 신체의 각 부분이라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한다. 손과 발 등 신체의 각 부분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뇌에서 지시를 받을 때만이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몸의 두뇌인 수령이 모든 면에서 인민의 행동을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정치적 생명체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경이 설명하는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로 표현된다. 주체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바울의 지체론과 똑같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바울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유기체적 생명관의 전형으로 되어 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교리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사회는 두뇌인 수령과 심장인 장, 그리고 각 지체인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수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령은 뇌수로서 모든 사고와 활동을 지시하고 당은 혈관과 중추의 기능으로 수령의 지시를 전달하며 인민대중은 각 지체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생명유기체이다. 교회조직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손과 발 같은 몸이라고 설명하는 같은 방식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설명한다.¹¹²⁾ 예수님이 생명유기체의 머리가 되며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중추적 역할 또는

112)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II』 (서울: 고려원, 1991), pp. 155, 159.

혈관의 역할을 하며 신자들은 몸의 각 지체로서 각자의 소명대로 실천한다는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삼위일체’론과 흡사하다. 물론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숭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교리이며 교회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여 예수가 신앙공동체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한편, 자기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in spirit) 함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¹¹³⁾ 이러한 삼위일체적 설명방식은 주체사상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은 분리시키거나 대치시킬 수 없는 단일한 생명체라고 말하며 삼위일체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를 떠난 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¹¹⁴⁾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며 대중과 떨어진 당도 당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령과 당, 대중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삼위일체인 것이다.

6. 종말론적 신념: 사탄과 제국주의

가. 낙원과 공산사회의 도래

기독교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해석, 즉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갖

113)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3-4절, 『에베소서』 3장 17절.

11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63.

고 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만물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믿음이다.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 불명확하고 끝이 없는 과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실제의 역사라고 한다.¹¹⁵⁾ 세상과 역사는 최종적으로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데 그 세계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 역사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종말은 거대한 위기로 임하게 되는데 예수의 재림이 이러한 위기를 종식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전체적 부활이 진행되고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믿고 있으며 동시에 이 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을 믿는다. 원래 맑스는 기독교의 천년왕국설과 같은 낙원을 공산사회의 실현으로 믿고 그 신앙에 사로 잡혀 있었다. 맑스는 공산주의 도래가 과학적이며 역사적 필연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역사법칙의 필연이며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¹¹⁶⁾ 사회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공산사회는 일종의 종교적 성격을 갖는 내세이자 천국이다.

종말론적 사상은 언젠가 도래할 낙원을 기대하고 종말론적 신앙의 종국적 승리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도록 도와준다. 기독교는 예수의 재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극심한 갈등과 고통이 따를 것을 예고한다. 예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

115) Louis Berkhof,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 931.

11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한다.¹¹⁷⁾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¹¹⁸⁾ 낙원에서 누릴 기쁨을 소망하며 현재의 이러한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낼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기대하며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참도록 가르친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1995년 대홍수를 겪은 북한은 1995년 말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전개하면서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1998년부터는 ‘강성대국’이라는 공산사회 낙원을 상정하고 강성대국이 도래할 것을 믿으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전국적으로 내걸고 강성대국 건설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미래의 낙원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은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앙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낙원의 실현이 지연되며 역사적으로 도래하지 않는데 대해 교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커진다. 맑스주의자들의 첫 세대는 처음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지상낙원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곧 재림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맑스주의자들은 재조정하여 주위

117)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 13절.

118)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2절.

세계와의 보다 현실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다.¹¹⁹⁾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낙원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믿으나 2천년 전 예수의 탄생과 죽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종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북한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 땅에 사회주의 낙원이 이미 건설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낙원신화’¹²⁰⁾는 자연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미래의 완전한 낙원의 실현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토지개혁과 교육기회 확대, 전후 경제기적을 이루면서 “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상이 부럼 없고 세금 없는 나라, 의무교육의 나라,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나라”였다는 점에 많은 북한사람들이 동의한다. 물론 북한당국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남한은 지옥인데 비해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미제의 억압아래서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곳으로 배운다. 북한사람들은 남한에서는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가며 미제에 예속된 결과 문화와 풍습도 퇴폐적으로 오염되었고 군인들은 모진 기함을 받으면서 보리밥에 멀건 소금국이나 먹고 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규정하고 이 낙원이 이미 북한사회에 실현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북한사회는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주체사상이 꿈꾸는 미래사

119) 제임스 벤틀리, 김쾌상 옮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서울: 일월서각, 1987), p. 207.

120)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pp. 49~61.

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 좋은 면을 더 잘 살리는 동시에 “인류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동지적 사랑과 협조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류의 협력범위를 세계적 범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¹⁾ 인류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류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본질로 규정하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적 사회가 북한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주체사상은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본다. 자본주의 이전시대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치적 폭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적 관계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욕망, 혹은 개인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을 추동하였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이 됨으로써 근대자본주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넘치는 인간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주체사상은 사회가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 규정되며 특히 사람, 사회적 재부(물질적 재부와 문화적 재부), 사회적 관계(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관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사람은 사회적 재부(물질적 재부, 문화적 재부)를 갖게되며 사람이 갖는 사회적 재부는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된다. 사회적 재부는 문자개발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사회적 재부를 소유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이며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질서”로서 이 질서의 통일적인 체계인 사회제도를 특징짓는다. 예컨데, 봉건사회라고 하면 봉건적 사회관계가 지배적인

121) 황장엽,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p. 29.

사회이다. 맑스는 사회적 관계를 생산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 즉 개인보다는 집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라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규정하는 이와 같은 이상사회는 북한사회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기독교는 낙원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성경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한다.¹²²⁾ 예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과 방법, 지도원칙을 명시한 혁명사상”이라며 이상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주체사상이 이론화한 사회역사원리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며,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투쟁의 역사이고, 사회역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구현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사상적으로 각성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122)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28장 19~20절.

나. 사탄의 세력과 싸움

기독교는 죄와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종말론을 믿는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의 길로 유혹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 아니 이 세상에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 있다. 모든 선한 것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 있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죄악의 괴수인 사탄은 인간을 죄의 영역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이 사탄의 세력은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악의 근원이다.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인간은 매우 단호한 자세로 경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¹²³⁾ 따라서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다. 신약성서에는 신자들이 사탄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며 사탄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²⁴⁾

기독교가 영적인 사탄의 세력에 철저히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 투쟁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사탄의 실제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투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제국주의라는 실제적 세력을 사탄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사탄의 실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산주의가 기독교 신앙

123)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124)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13절; 「요한계시록」 20장.

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교회의 영원한 적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는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무도하게 핍박하지 않았던가....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사멸시켜야 한다”¹²⁵⁾라는 평가에도 기독교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악마,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잘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사탄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철저히 싸워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라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을 담고 있다. 제국주의는 주체사상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이며 ‘원썬’들이다. 현재 이 사탄의 세력은 미제와 일제라는 거대한 두 제국주의이다. 일제는 이미 35년간 우리 나라를 집어삼켜 식민통치를 자행했고 미제는 현재 휴전선 이남의 남조선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탄이다.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해 살인자, 도둑놈, 사악, 죄악, 승냥이, 범죄, 간악한 죄인, 흉악 등의 언어로 표현한다.¹²⁶⁾ 미국은 ‘태초로부터 거짓말한 자’이며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가장 악랄한 원썬’이다.¹²⁷⁾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도 미제와는 ‘한 하늘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악독한 원썬’로 간주한다.¹²⁸⁾ 미제국주의는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우두머리로 “제국

125)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 20.

12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1, 99, 104; Richard J.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개념에 대한 연구,” pp. 29~30에서 재인용.

12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13.

128)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인민학교 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7), p. 178.

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¹²⁹⁾ 제국주의에 대한 김일성의 다음 발언은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갖은 교활한 방법과 수단을 다 썼을 뿐아니라 조선사람들에게 악착스러운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여들었던 미제승냥이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치떨리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의 승냥이본성입니다.¹³⁰⁾

제국주의 세력은 기독교의 사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인식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투행위도 사람이나 문화상품을 통해 북한사회에 파고들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들이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적 요소, 비사회주의적 행태 등 문화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사탄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각양의 물질주의나 도덕적 타락행위 등 현실세계의 죄악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실체인 사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실체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믿고 있는 사탄과 기독교의 사탄의 본질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 절대자와 사탄의 대결적 구도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교리와 매우 유사하다.

129) 김일성,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94.

130) 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26.

김일성은 제국주의를 주로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제국주의는 곧 멸망하겠지만 끊임없이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 <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있으며 여기에 술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외 침략무력의 3분의 2를 투입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축으로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발광하고 있다.¹³¹⁾

김일성은 레닌이 식민지·민족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인 민족자결에 대한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맑스의 사상을 심화·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을 따랐다. 김일성은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특히 주시하였다.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공공연히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침략적 군사빨리인 나토를 강화하고 구라파에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하며 인도양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침략적 군사기지를 늘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¹³²⁾라는 전쟁적 관점은 레닌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성격과 일

131) 김일성, “동방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02~103.

132) 김일성,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김일성저작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9~120.

맥상통한다.

김정일은 국제사회를 여전히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갈등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이러한 ‘침략적 본질’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즉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다”¹³³⁾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어 그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피압박 인민대중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여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¹³⁴⁾

김정일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제국주의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보지만 현재의 제국주의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김정일은 미국은 2차대전 과정에서 국내산업이 파괴되지 않았고 연합국들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은 유일한 나라로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한다. 김정일은 “미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압도

13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51.

134)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07, 112.

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습니다”라고 술회하였다.¹³⁵⁾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성격이 196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인식한다.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었고 이는 제국주의간에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레닌이 예견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상품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파괴적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단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늘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에 170여 차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령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어 군사빨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령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탁관계가 제국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기보다는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자본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의 명제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 발전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며 이 시장개척은 한계에 부딪히며 따라서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업자 증대와 통화팽창을 유발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정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으로 제국주의 령강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 령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그들 사이에 리해관계

135)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1.

가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지면 승냥이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마련입니다.¹³⁶⁾

나아가 김정일은 제국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소위 ‘내부모순’을 첨가한다. 즉 자본가들이 상품판로가 점점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지적하는 제국주의의 폐해란 대개 ‘약탈’, ‘이중 삼중의 착취’, ‘민족적 인종적 억압’, ‘계급적 모순 첨예화’ 등이었으나,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비도덕성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한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⁷⁾ 이는 기독교의 사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실체를 북한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제국주의의 이러한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지적한 점이 김정일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이론의 독특한 측면이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속성을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로 요약, 규정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분석초점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김정일의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물질적 풍요로움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의 이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경제법칙의 불가피성’ 때문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부패’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

136)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7.

137) 위의 글, pp. 177~180.

의 국가의 이러한 도덕적 타락성 때문에 제국주의는 스스로는 멸망하지 않으나 ‘사상적으로 각성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으로 멸망하리라는 논리는 펴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가 림중에 가까와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¹³⁸⁾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해 전투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을 악의 본질로 규정하고 투쟁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제는 북한을 침략하여 선량한 북한인민들을 무고하게 살육하는 악마, 승냥이와 같은 존재로 교육된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탄과 상대하는데 있어서 전투적 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김현희는 미제와 거기에 빌붙은 남조선괴뢰를 적으로 간주하였으며 “적에게는 무자비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¹³⁹⁾ 미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해 끊임없는 경계심과 투쟁적 자세를 갖도록 독려한다. 기독교에서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되듯이 북한에게 모든 악의 원천은 제국주의이다. ‘악한 원쑤’ 제국주의는 정신적, 물리적으로 북한 사회주의에 침투하여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모기장을 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8) 위의 글, pp. 180~181.

139)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109.

IV. 종교의식과 행위규범

1. 예배당과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종교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한다. 중국의 북한전문가 조호길(趙虎吉)은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서양문화로 맑시즘과 기독교를 지적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라고 설명했다.¹⁴⁰⁾ 그는 특히 지방의 군(郡)단위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라며 이 연구실은 기독교의 교회보다 더 철저한 교회라고 강조하였다.

기독교에서 예배당은 종교적 회합이나 공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 및 건물을 지칭한다. 예배당은 일반적으로 교회 혹은 성전으로 통칭되는데, 원래 기독교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당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는 예수가 그의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성되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배당은 그 의미가 축소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당은 ‘에클레시아’ 교회와 맞먹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독교의 예배당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수나고게’(회당)와 같이 속된 세상과 분리된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당 혹은 예배당은 ‘에클레시아’ 신자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140) 조호길, “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 1995.11.23.

장소이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에 대해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당사상교양사업의 거점”이라고 설명한다.¹⁴¹⁾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의 높은 덕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북한 전지역의 당 및 국가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문화, 과학기관, 인민군부대 및 경비대” 등 인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갖추어져 있다고 말한다.¹⁴²⁾ 혁명사상연구실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의 가계와 초기 혁명활동, 혁명지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시킴으로써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혁명사상연구실이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 여 곳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³⁾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196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불렸으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시도한 이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혁명사상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인 1960년대 이미 이와 유사한 여러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건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0월 김일성이 직맹, 농근맹, 청년동맹, 여맹, 중앙위원회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는 “가는 곳마다 좋은 구락부와 학교가 있으며 농촌에도 민주선전실, 혁명력사연구실이 있어서 남의 집 옷방을 빌리지 않아도 청년들이 모일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다.¹⁴⁴⁾ 그리고 1972년 김일성이 조선농업근로자동

14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56.

142) 위의 책, p. 156.

143) 귀순자 김○○과의 인터뷰, 2000.9.29.

144) 김일성,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3.

맹 제2차대회에서 한 연설에도 “지난날 당조직들이 이르는 곳마다에...혁명력사연구실과 교시연구실을 많이 꾸려놓았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 혁명역사와 교시 연구실이 많이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명역사연구실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선전실과 차별화하여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김일성을 숭배하기 위한 장소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농근맹 제2차 대회(1972)에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운영이 주요의제로 등장한 것을 보면 1972년 경에 혁명사상연구실을 체계적으로 확대시킨 것 같다. 1974년 1월 김일성이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당시 리단위까지 혁명역사연구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선전실은 기술교육장소로 사용하고 혁명역사연구실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교육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전용장소로 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모든 협동농장들에 혁명력사연구실이 있고 선전실도 있습니다. 혁명력사연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혁명력사도 연구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새로 지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선전실을 농민들이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는 장소로 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¹⁴⁵⁾

그러나 이러한 건물을 구호성을 치장한데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혁명역사연구실에서 내실 있는 활동이 1970년대 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⁴⁶⁾ “지난날 당조직들이 이르는 곳마다...구호관들을 내붙이였으며 혁명력사연구실과 교시연구실을 많이 꾸려 놓았습니다....그러나 구호관이나 내붙이고 연구실을 꾸려

145) 김일성,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 시키자,”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30.

146) 김일성,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70.

놓으면 사상혁명이 저절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라고 비판하며 혁명연구실을 통해 각급조직 구성원들을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지시하였다. 혁명역사연구실과 교시연구실이 혁명사상연구실로 통합되어 종교적 성전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체계화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김일성은 1977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 회의 연설에서 군소제지에 혁명사상연구실을 잘 갖추도록 지시한 바 있다.¹⁴⁷⁾ 이 문헌에서 군소제지에 혁명역사연구실을 잘 갖추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혁명사상연구실이 모습을 갖춘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모든 중앙급 기관의 직장 및 공장, 3급기업소와 공장 이상에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고등중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이러한 혁명사상연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혁명사상연구실 건물은 당에서 규격화한 표준설계에 맞추어 건축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이 비슷한 형태를 띤다. 일반적으로 3층 규모의 양옥으로 건축되어 있다. 리 단위에는 단층으로 되어 있고 군소제지인 읍에는 2~3층, 도단위는 3~4층 건물로 되어 있다. 초급당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당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 초급당을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에서는 대략 100여명 이상 되는 기업소는 독립된 혁명사상연구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민들 가운데 당원이 적은 대신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2개 혹은 3개 리가 협동농장 단위로 초급당조직을 구성하고 부락당을 만들어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연구실을 운영한다. 직장과 공장의 규모가 작아 초급당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147) 김일성,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325.

건물의 한 부분을 교양실 혹은 연구실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한다.

이와 함께 김정일이 당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관한 연구실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이후인 1980년대부터 김정일관련 연구실이 공개되었을 뿐이다.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관한 연구실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내에 몇 개의 관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내에는 김정일관 이외에 김정숙관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혁명활동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각급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혁명학원(중등학원 및 초등학원)과 학생소년궁전(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에는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이 조성되어 있다. 연구실에는 김일성의 석고상 또는 초상화가 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따라 배우자!”라는 도록이 전시되어 있다. 연구실에서는 학생소년들에 대한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중요한 형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는 학습회’, ‘김일성원수님혁명력사해설모임’, ‘회상기연구발표모임’ 등이 조직된다. 학교에는 특정 학생들로만 구성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소조가 조직되어 있고 소조활동을 진행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몸가짐이 단정하며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연구실 소조 조직은 학교 청년동맹의 직속 조직으로 청년동맹의 지시만 받는다. 소조원이 되기 힘들지만 일단 소조원으로 선발되면 모내기, 추수 등 모든 작업동원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린다. 오로지 연구실 꾸리는 데만 전념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연구실은 신성시되는 곳이므로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곱게 치장하여야 한다. 학교별로 약 1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여 소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서로 이 연구실을 잘 꾸리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대학에 건립되어 있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규모도 크고 연구실을 관리하는 소조활동도 철저하다. 평양외국어대학의 경우, 연구실은 김일성관이 5개의 관이고 김정일관, 김정숙관까지 7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소조원 한 사람씩 담당이 배정된다.¹⁴⁸⁾ 소조원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하여 연구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시킨 다음 비품과 전시물을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소조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약 15분간 아침 독보를 하게 되는데 주로 노동신문 사설을 읽는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낮동안 사용한 방을 대청소한다. 위생검열을 해서 티하나 묻어 나오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한다. 간혹 연구실에서 회의가 길어져 늦어질 때도 있다. 청소가 끝나면 자물쇠로 잠그고 도장 찍은 종이를 봉한다. 방학때가 되어도 소조원은 학교에 나가 연구실을 꾸린다.

일반사회에서는 기업소 단위별로 자체의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평안북도 영변군 ○○연합기업소의 경우, 혁명사상연구실이 4층 건물로 지어져있고, 같은 군내 ○○기업소의 경우 단층기와 집으로 건축되어 있다. 혁명사상연구소는 각 기업소와 공장 내에서 주로 언덕과 같은 높은 곳, 즉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기업소의 경우 혁명사상연구실은 100여명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단독건물로 되어 있고 내부 정면에는 초상화에 불이 밝혀져 있으며 계단식으로 내부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3급기업소인 함경북도 ○○군의 ○○탄광과 1급기업소인 ○○화학공장도 각각 독립된 단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강도 혜산시 ○○단체의 경우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독립건물로 갖추어 있지 않고 건물의 1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 공간을 연구실로 사용할 경우에도 독립건물에 버금갈 만큼 매우 방대한 규모로 조성해 놓고 있다고

14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p. 133.

한다. 혁명사상연구실로 사용되는 교양실은 전면에 단상이 있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측벽에는 혁명역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뒷편에는 책을 모아놓은 서가가 있다.

양강도 보천군에 소재한 ○○연구실의 경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내 중앙현관에 김일성 흉상(반신석고상)이 있으며 중앙현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에 빨강색 카펫이 깔려 있다. 1층에는 사무실과 관리실, 탈의실이 있고 외투를 벗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탈의실도 갖추고 있다. 2층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강당이 있으며, 이 강당의 정면에는 단상이 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혁명사상연구실의 경우, 1층은 도록을 비치하고 2, 3층은 집회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상의 중앙에는 김일성 석고상이 기계작동에 따라 설치하거나 보이지 않게 한쪽으로 들여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석고상을 치우면 초상화가 나오도록 장치되어 있다.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장차림을 해야 하며 신발은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간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아야 하며 초상휘장이 없으면 혁명사상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군대의 경우에는 중대와 대대에는 ‘혁명사상연구실’이 따로 없고 교양실을 혁명사상연구실로 활용하며, 연대와 군단에는 혁명사상연구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중대교양실은 중대인원 12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분기 생활총화시에 사용하며 평소에는 연구실 겸 중대 정치사상학습 장소로 사용하거나 저녁 모임장소로도 활용한다. 대대교양실은 회관처럼 잘 꾸며져 있으며 건물의 벽에는 혁명사상연구실과 마찬가지로 모두 ‘도록’이 설치되어 있다.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군단 ○○연구실의 경우, 혁명사상연구실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 현관 중앙에 김일성 흉상조각이 있고 목란꽃이 흉상조각을 감싸고 있다. 이 연구실에는 김일성관과 김정숙관, 김정일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김일성관은 김일성의 어린시절, 청년시

절 등 김일성에 관해 시기별로 1관, 2관, 3관 및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혁명역사 기록을 전시하고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연구실장과 관리직원 등 10여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 사람들은 연구실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데,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특히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 업무를 맡긴다. 연구실장은 초급당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지위가 높다. 함경북도 화성군 ○○연구실(읍소재지에 있는 군연구소)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실 밖에는 전시에 도록과 초상화를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지하땅굴을 파놓았다고 한다. 또한 혁명사상연구실을 지키기 위해 밤에는 노농적위대(민방위)가 경계보초를 선다.

혁명사상연구실에는 김일성의 교시집과 로작, 혁명전통연구자료 등 김일성의 혁명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다. 연구실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의 학습,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주년모임, 혁명전통연구발표모임, 정치학습, 학습강사들의 방식상학,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의 회의 등이 조직진행”된다.¹⁴⁹⁾ 연구실은 집체적 활동 이외에 개별적으로도 언제든지 방문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¹⁵⁰⁾

혁명사상연구실 내부에는 각종 모임과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러 방들이 있다. 기관과 직장내 구성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대형 교양실과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작은 방들이 갖추어져 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연구실의 벽에는 김일성

14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745.

150)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p. 15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권, p. 745.

의 가정과 초기 혁명활동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도록(사진, 그림, 도표, 지도)이 전시되어 있다. 도록은 1미터의 넓이로 되어 있고 1판에 약 30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도록의 판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치는 않으나 김일성도록은 72판, 김정일도록은 36판 혹은 43판까지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도록은 예를 들면, 보천보전투관, 남호두회의관 등 시기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칸으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다.

혁명사상연구실에서는 주로 집중강의와 학습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습내용은 정책노선에 관한 김일성·김정일 로작이나 당정책에 관해 연구·토론한다. 물론 이러한 학습활동은 각 지역마다 들어서 있는 문화회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나 혁명사상연구실이 없는 지방급 기관과 공장에서는 각 지역단위 혹은 인근 기업소에 건립되어 있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찾아가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에 모여 1일 1시간 정도씩 할당하여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혁명역사도록을 1판씩 학습한다. 문화회관에서는 주로 영화학습이나 예술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며 수요강연회나 교시침투학습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사상학습은 문화회관에서 하지 않고 반드시 혁명사상연구실에서만 진행한다.

혁명사상연구실에서는 학습활동 이외에 각종 선서모임과 충성의 편지 전달모임, 축전전달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및 설날에 충성의 선서모임을 한다. 이 곳에 한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갈 수 없을 때는 인원을 선발하여 연구실 모임에 참여하고 나머지 인원은 직장 회의실에서 별도로 모임을 갖는다. 지역 회관(문화회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도소재지에 위치한 연구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구실 내에 별도의 회관이 있어 여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반은 별도의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읍에 있는 연구실을 사용한다. 즉 가두여성(전업주

부)이나 중소기업소와 같이 자체 연구실이 없는 경우에는 군에 행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연구실을 사용한다. 인민반의 학습도 당원, 직맹, 여맹 등의 단위로 구분하여 1주일 단위로 학습한다. 선서모임이나 축전전달모임에서는 시작시간과 끝시간에 노래를 한다. 시작할 때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노래를 부르고 끝날 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와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부른다. 군단위에서는 악단이 동원되지 않으나 도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악단이 동원된다.

혁명사상연구실은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소속되어 운영된다. 혁명사상연구실 실장은 전문당일군이며 조직부와 선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혁명사상연구실의 실장은 선동과와 교양과가 관리하는 직원으로 선발되며 연구실장은 선동과나 교양과의 과장급에 해당한다. 연구실장은 해설원과 관리원 등을 관할하며 주계획, 월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직원들의 모든 혁명사상과 학습을 책임지도한다. 혁명사상연구실장은 학습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데 월요일에는 교시침투 학습을 연구실 내에서 실시하며 그 외 요일별로 혁명역사나 로작에 대해 학습한다.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학습의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과시간에도 학습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 앞에서 행한 얘기의 내용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중학습기간을 설정하고 일과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이 곳에서 ‘김정일말씀’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종교로서의 주체사상도 특별하고 성스러운 장소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로 구분해서 경험한다. 리나 읍, 도 소재지에서 위치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연구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혁명사상연구실이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다른 곳은 허름한데 비해 혁명사상연구실이 눈에 띄게 좋은 건물로 지어져 있다.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연구실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엄숙한 곳이다. 종교의식을 치를 때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하다고 느낀다.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간다. 혁명사상연구실은 북한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거나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신발 위에 덧신을 신도록 한다. 도복을 보관하는 유리관 위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함으로써 거룩하고 엄숙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래침을 뱉거나 어떠한 다툼도 벌일 수 없으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없으며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일반주민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이곳을 청소하도록 독려한다.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소인 혁명사상연구실과 더불어 김일성의 혁명활동 장소를 성지화한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이 있다. 이 사적관은 각 도 및 직할시 소재지에 건립되어 있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 여기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들어서 있다.¹⁵¹⁾ 혁명사적관은 일반적으로 총서관, 혁명발전의 시기별관, 인민경제부문별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관, 대외사업관, 결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관의 진열체계와 내용들은 높은 정치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삼위일체의 원칙에서 전시되어 있다.”¹⁵²⁾ 또 이 혁명사적관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 있는 혁명사적관 및 김일성 가족들의 혁명사적관(예컨대, 봉화혁명사적관, 칠골혁명사적관) 등과 연결되어 있다. 혁명사적관은 참관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절대자로 숭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체

151) 김일성동상은 통상 20미터 이상의 규모이며 전국적으로 3만여 개가 건설되어 있다고 한다.

152) 과학백사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권, p. 745.

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는 장소임과 동시에 예배하는 장소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직접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정신적으로 항상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 연구실은 일상생활의 공간과는 엄격히 구별되며 일반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간생활총화를 이곳에서 실시하지 않다가도 규율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주생활총화를 거행한다. 그만큼 북한사람들에게 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곳이다. 월간 혹은 분기별 집회 또는 총화는 이 곳 혁명사상연구소에서 개최한다. 혁명사상연구소는 김일성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성소로 간주된다.

2. 종교집회와 모임

기독교가 강력한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요일을 제정하여 일주일 단위로 예배의식을 정례화한 일일 것이다. 기독교에서 주일성수는 십계명의 하나로 철저히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일요일예배는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기독교교회는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등의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토요일집회, 금요구역예배, QT(아침묵상의 시간) 및 가정예배를 갖는다. 성인들은 연령별로 장년부 혹은 선교회 모임을 갖고 지역별 구역모임은 매주 금요일(요일변경 가능)에 갖는다.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회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부터 독창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토착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기독교의 정규예배로 정착되었다.¹⁵³⁾

북한에서도 일주일을 단위로 여러 종류의 모임과 학습을 진행한다. 주간 생활총화, 수요강연회, 아침독보회, 월요학습침투와 같은 여러 집회와 모임이 북한의 정부건설 초창기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사상학습이 지금과 같은 종교적 형태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사상학습과 조직생활이 종교적 집회와 모임의 형태로 정착된 시기는 김정일이 유일사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상학습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이다. 1973년 9월 및 1974년 2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각각 추대된 이후 현재와 같은 종교적 성격의 집회와 모임이 제모습을 갖추었다.

종교적 성격을 띠는 집회와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활총화 제도이다. 생활총화는 토요일에 직장의 각 조직단위로 실시하는 일종의 자기반성적 종교집회에 해당된다. 토요일 오전에 시행하는 주간 생활총화는 한 주일의 자기생활을 반성하고 사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으로 북한에서는 주간 생활총화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 주간 총화시간에는 노동당,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 조직별로 분산되어 담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화를 진행한다. 농근맹의 경우에는 소속 부락단위별로 주간 및 정기적인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농민들 가운데는 당원이 적은 대신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2개 혹은 3개 리가 협동농장 단위로 초급당조직을 구성하고 부락당을 만들어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조직생활을 한다. 당원이 5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세포조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반 단위로 세포조직이 구성되며 1~3개 작업반이 부락당 세포조직을 구성한다. 농민들은 소속 부락 단위별로 주간 및 정기적인 생활총화를

153) 1906년 길선주장로가 회개하고 자기 가족이 함께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1905년 9월 「나라를 위한 기도」에 큰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은 기도회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기도운동은 1910년 평양에 큰 부흥의 불길을 번지게 하였다.

실시하며 월간 이상의 총화시에는 지역에 있는 연구실을 활용한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부들이나 은퇴한 노인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혹은 저녁, 또는 일요일저녁에 인민반별로 인민반회의 모임을 갖고 생활을 점검하거나 사상학습을 한다. 인민반회의는 북한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모임으로 북한 주민조직의 근간을 이룬다. 인민반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매 시기 제기되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인민반원들 속에 침투시켜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결속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의 말단조직이다.¹⁵⁴⁾ 인민반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협조하며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 반혁명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제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토요일저녁이나 일요일저녁에 모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민반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요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반학습은 직장이나 조직별 학습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인민반에도 여맹과 당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총화와 학습을 한다. 특히 인민반은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생활관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노동자들은 1주일 단위로, 농민들은 10일 단위로 휴일을 갖기 때문에 인민반 모임도 여기에 맞게 실시한다. 노동자의 경우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 농민은 장마당이 서는 바로 전날에 모임을 갖는다. 도시의 인민반회의와 농촌의 분조 활동은 공동체조직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매주 일요일저녁 혹은 토요일저녁에 모이는 인민반회의는 성격상 기독교의 금요구역예배와 흡사하다. 기독교인들은 구역예배 모임을 통해 성경말씀을 학습하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서로 나눈다. 구역모임은 부문별, 기능별 모임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유사한 지

154)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722~723.

역에 거주하는 신앙인들의 생활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실제적 신앙공동체이다. 인민반회의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상성 유지를 위해 주체사상을 학습한다. 인민반에서의 주체사상 학습은 1년단위로 반복·실시되며 해마다 새로운 교재를 사용한다. 이는 교회의 금요구역예배 성경학습교재가 1년단위로 새롭게 편집되며 반복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것과 같다. 김신조씨는 북한의 구역예배는 ‘당 세포회’와 같고 구역장은 세포위원장(책임비서)과 같으며 ‘회개’는 자아비판과 같다고 하면서 학습과 생활총화로 잘 짜여진 북한사회의 체제가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한다.¹⁵⁵⁾

수요일 저녁에는 직장단위 조직별 및 학교별로 수요강연회가 개최된다. 주로 수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수요강연회로 불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강연회는 청년동맹(14~30세), 직맹(31~65세), 농근맹(31~65세, 여자 60세), 여맹(31~60세)으로 구분되어 각 조직별로 강연회를 실시한다. 또 동당비서 및 위원장 등 간부급들은 지역 중심부에 있는 큰 강당에 모여 별도의 수요강연회 모임을 갖는다. 수요강연회에서는 국가적으로 토론되는 정책,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문제, 자유주의적이고 퇴폐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관련된 정책방향 등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한다. 수요강연회는 교회의 수요예배 혹은 주일설교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북한의 주간 생활총화와 수요강연회는 기독교의 주일예배의 기능을 한다. 기독교의 주일예배는 기도를 통해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하며 설교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것인지를 깨닫고 결심하도록 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한주일을 정리하고 김일성교시를 들으며 사상적 재무장을 한다는 점에서 주간 생활총화는 주일예배의 형식에 가장 가까우며 수요강연회는 주일예배에서의 설교말

155)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191.

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주간 생활총화는 매우 소규모 단위로 진행되고 자기반성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예배와는 차이가 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기반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물리적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공개적이며 정신적·심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해성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생활총화는 기독교의 예배와 같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북한인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다.

가정예배는 기독교신앙을 세대간에 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푼다. 북한은 가정단위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예배하는 가족독보회를 장려한다. 가족독보회는 대개 가정에서 제일 연장자가 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아버지가 인도한다. 가정은 대개 기성세대인 부모들이 사회화를 담당함으로써 기성세대의 부정적 가치관이 주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들의 체제순응적 가정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공식이데올로기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독보회는 실제로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독교에서도 가정예배는 일부 열성신도들 이외에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서는 또한 7시 30분에 직장에 출근하여 30분간 기독교인들의 아침 QT에 해당하는 아침 독보회시간을 갖는다. 독보회 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조회가 시작되기 전 30분간 진행하는 곳도 있고,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예술대원처럼 생활총화가 2일에 1번씩 있는 경우는 생활총화가 있는 날에는 독보회를 갖지 않고 생활총화가 없는 날에만 아침독보회를 갖기도 한다. 독보회를 주관하는 선동원이 작업반 마다 파견되어 노동신문이나 김일성·김정일

의 교시와 같은 학습서적을 읽고 오늘의 작업현장에서 교시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과 하루의 실천계획을 세운다.

현재 매일 아침에 실시하고 있는 아침독보회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무렵인 1974년에는 일주일에 한번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평양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을 보면 그 주간에 있었던 교훈적인 글을 발췌하여 읽도록 하는 독보회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시행초기에는 당원들만 독보회를 실시하고 인민반과 조직단위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974년 5월 평양시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는 초기단계의 독보회 모습이 나타난다.

《로동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독보회를 하는것도 좋은 학습방법의 하나입니다. 독보회는 한주일동안의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제목을 선택하여두었다가 글을 잘 읽는 사람에게 읽히고 다른 사람들은 듣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독보회를 인민반적으로도 하고 조직별로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⁵⁶⁾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기독교의 철야기도와 같은 ‘철야작업’이 진행된다고 한다.¹⁵⁷⁾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바치는 헌금, 특히 소득의 10분의 일을 헌금하는 십일조는 북한사람들이 ‘월생활총화’시 월급의 1~3%를 ‘맹비’라는 명목으로 당에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 고난의 행군기간 동안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한 ‘두끼먹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은 김일성이 항일운동 당시 두끼밖에 먹지 않고 투쟁했다는 영웅적 전설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일종

156) 김일성, “평양시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211.

157) 귀순자 한○○과의 인터뷰.

의 종교적 ‘금식’에 비유할 수도 있다.

또한 새벽기도와 유사한 것으로 주민들 가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김일성동상을 찾아 참배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의 새벽기도회는 서구 기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기독교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북한사람들 가운데 약 50%는 자발적으로 김일성동상에 헌화하며 김일성 석고부조상이나 초상화를 닦는다고 한다.¹⁵⁸⁾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 5시 경에 일어나 동네에 건립되어 있는 김일성동상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전통무속 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불교의 새벽예배불과 예배형식이 비슷하다. 한국기독교의 새벽예배 의식도 한국의 전통종교적 성격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어쨌든 북한의 새벽헌화나 새벽참배는 기독교의 새벽예배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강도 높은 학습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독교의 교육방식과 유사하다. 정기학습은 주에 2회 혹은 3회로 설정하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학습을 말한다. 정기학습은 직장단위로 참여하며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학습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정기학습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에서 진행한다. 학습내용으로는 혁명역사학습, 혁명사상학습, 교시·말씀학습, 로작학습, 당정책학습 등이 있다. 일반주민들은 교시노트, 말씀노트, 로작노트, 혁명역사노트, 혁명사상노트를 비롯하여 적어도 8개의 학습노트를 갖고 있고, 그 외에 생활총화노트, 강연회노트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방식은 강의와 문답을 병행한다. 지난번 강의에서 질문과 토론이 있으면 진행하고 그 다음 강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면, “오늘 학습은 김일성의 어떠한 혁명활동을 기록한 도록 몇 권을

158)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88.

배우겠다”고 말한 뒤 교시와 말씀을 인용하고 강의를 한 후, 다음 시간에 토론할 제목을 미리 알려준다. 학습을 실시하는 장소가 혁명역사의 특정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계획할 때는 언제, 몇 관에서 학습을 실시한다고 말하며 그 곳에 전시된 내용을 학습한다. 학습은 위에서 내려온 학습제강에 따라 해설자가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간부들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학습하며 일반인들은 토요일에 학습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주일에 다른 날 하루를 학습의 날로 정하여 학습한다. 대개 노동자·농민들은 월요일 일과시간이 끝난 후 저녁에 2시간 이상씩 ‘월요학습침투’라는 이름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요일과 날짜는 대개 학습반별로 ‘실정에 맞게’ 정해진다. 군대에서는 토요일 아침에 2시간동안 정치상학을 하고 이어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등급반별 학습은 강사(혹은 부강사)가 2시간의 강의를 한 후에 대개 4시간에 걸친 토론시간을 갖는다. 강의 및 토론 내용은 주로 주체사상과 맑스주의의 차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 주체사상의 요구, 창조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에 대한 중요성 등이다. 일반주민들의 학습활동은 대개 1년 단위로 진행되 1년 내내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등 일정한 학습기간을 정해 놓고 학습을 한다. 한번의 학습기간에 3~4개의 분야로 구분한 주체사상의 각론을 학습하며 학습기간의 중간에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진행하기도 한다. 피학습자는 개별적으로 학습장에 요점을 정리하여 간직하며, 토론은 문답식이나 상호비판의 방법을 사용한다.¹⁵⁹⁾

학습한 후에는 학습총화 또는 학습검열을 실시하는데 학습총화·검열은 매주마다 하지는 않으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진행한

159) 문답식은 학습자들을 두조로 나누어 한쪽 조가 질문하면 다른 조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말하며, 상호비판적 방법은 두 조가 각각 이해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조가 잘못이해한 부분을 서로 고쳐주는 방식을 말한다.

다. 월학습총화는 자체 학습반에서 하고, 분기에는 지역당, 반기에는 도당, 연간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는 필답시험과 문답시험이 있다. 시험문제는 여러 문제 가운데 문제를 뽑아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에 답을 한다. 필답시험이나 문답시험에는 반드시 교시를 인용해야 한다. 교시를 인용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교시를 인용할 때에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인용해야 한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쓸 때에는 다른 글씨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역당 이상급의 학습시험은 사회적 출세와 직위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거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종교집회와 모임은 <표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 단위로 반복된다. 월요일에는 월요학습침투를 비롯하여 주사업계획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며, 화요일에도 로작학습과 혁명역사학습을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간부와 일반조직별로 구분하여 강연회를 실시한다. 토요일에는 조직별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학습을 하지 않는 대신 설비점검과 사회노동(도로공사, 건설현장), 금요노동, 외화벌이사업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 일주일에 3일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학습, 강연회, 총화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일부 열성분자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모임이 운영된다. 물론 아침독보회는 매일 매일 수행해야 하는 종교의식이며 새벽참배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의 매일일과로 간주된다.

<표Ⅳ-1> 기독교와 북한의 종교모임 비교

기독교의 집회	집회시간	북한의 모임	모임시간
주일예배	일요일	생활총화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수요강연회	수요일저녁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새벽참배	새벽 5시 경
경건의 시간(QT)	아침 일과시간 전	아침독보회	근무전 30분간
가족예배	부분적 시행	가족독보회	부분적 시행
구역예배 (모임)	금요일 (요일변경가능)	인민반회의 (학습)	토요일 오전 혹은 오후, 또는 일요일 저녁(농촌지역은 장마당 전날 저녁)
주간 성경공부	요일 신축적	월요학습침투	월요일저녁(요일변동가능)

3. 예배와 생활총화

총화는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정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지 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을 지칭한다.¹⁶⁰⁾ 총화는 일반적으로 사업총화와 생활총화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사업총화는 행정조직상의 업무와 관계되는 회의로 집행정형을 평가하는 모임이며 매일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 30분 정도 사업총화를 실시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식 일과시간 이지만 보통 6시까지 근무한다. 따라서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사업총화를 실시한다. 반면, 생활총화는 조직생활, 사상학습활동 등 조직사상생활의 전반을 검토하는 모임으로 종교적 활동에 가깝다. 사업총화가 행정업무의 담당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의이지만 이

16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76.

자리에 생활총화를 관할하는 초급당비서가 참여하여 사업총화의 내용을 기록·평가하고 이를 생활총화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총화가 생활총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생활총화는 총화의 주기에 따라 일일총화, 주간총화, 월간총화, 분기총화, 연간총화 등으로 구분된다. 주생활총화는 한 주 동안의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김일성 교시에 비추어 비판하는 제도로 일반인들의 생활상태를 평가하는 기본을 이룬다.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2일에 1회씩 생활총화를 진행한다. 주간 생활총화는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 집단별로 편리한 곳에서 모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간 생활총화 시에는 혁명사상연구실은 사용하지 않지만 동맹원들의 규율을 다지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혁명사상연구실의 분위기가 엄숙한 점을 활용하여 이 곳에서 주간 생활총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생활총화는 공장과 기업소, 학교, 군대 등 북한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당원 등 조직별로 나뉘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는 자기비판적 모임인 생활총화가 매일 실시된다. 기숙사의 각 호실별로 생활총화가 진행되는데 주로 학습반장이 학생들의 하루생활 및 학습태도를 지적, 비판한다. 주간 생활총화로는 토요일에 1시간의 학습총화를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2시간의 조직생활총화(총점검 또는 반성)를, 목요일에는 1시간 30분의 정치강연회를 진행한다.¹⁶¹⁾ 해외유학생의 경우 북한 내에 있는 일반학생들보다 엄격한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기숙사 또는 주재국 대사관에서 청년동맹 초급단체장의 주재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간생활총화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독보(20여분간)와 자아비판(개인당 5분씩) 등을 수행하며, 김일성·김정일 저작물에 대한 과제물도 부여한다. 동맹위원

161) 연합통신, 『북한50년』(서울: 연합통신, 1995), p. 354.

장은 주간 혹은 월간 및 분기간 동맹원들이 수행해야 할 학습과 분공을 할당하고 학습과 분공 집행을 평가한다.

생활총화는 초급단체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의 각 기관과 조직체는 말단 단위에 분조가 있고 분조 위에 초급단체가 있는데, 초급단체를 관리하는 상급위원회를 초급위원회라고 한다. 공장 및 기업소에서는 작업반이 초급단체이며 초급단체 내에는 보통 3개 분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작은 규모의 초급단체는 분조가 없으며 초급단체가 직접 말단단위를 이룬다. 리단위 농촌지방에서도 작업반이 초급단체이며 초급위원회는 리인민위원회가 된다. 군대의 경우에는 소대가 초급단체이며, 분대는 분조, 중대는 초급위원회가 된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소나 직장의 작업반별로 주간생활총화를 실시한다. 작업반 단위로 청년동맹, 직업동맹, 당조직으로 나누어 생활총화를 실시하며 분기별로는 직장단위에서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직장의 초급당비서는 청년동맹, 직맹을 관할하며 생활총화를 주관한다. 작업반의 경우 당원이 15명 내외(15-20명)로 당원은 당원끼리 총화를 하고 직맹원과 청년동맹원으로 나누어 총화를 실시한다.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일마다 생활총화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 여성 예술인이 속해있던 직업동맹의 경우 총 230명의 직업동맹원이 있었는데 각 소속 조직별로 2일에 1회 생활총화를 실시하고 주간총화는 좀더 큰 규모로 실시했다고 한다. 기악과, 성악과, 무용과 등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각 분야별 구성원들은 간부는 간부대로, 청년동맹은 청년동맹대로, 직맹원은 직맹원끼리 각각 총화를 실시한다. 각 소집단별로 구분하면 약 15명의 직맹원과 위원장이 총화모임의 기초단위가 된다.

군대의 경우 주간 생활총화는 분조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중대원 120명 가운데 당원이 20-30명 정도이고 나머지 100여명은 청년동맹원들이다. 초급단체별로 주간생활총화를 실시하기 때

문에 당원을 제외하면 분조의 인원은 10명~15명선이다. 분조가 없는 초급단체에서는 초급단체별로 주생활총화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에도 인원은 2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진행한다. 하사관 중 제일 높은 사관장을 겸임하는 청년동맹위원장이 초급위원장으로 생활총화를 지도한다. 초급단체위원장인 소대장은 군사적 업무를 책임지며 청년동맹위원장은 정치적, 사상적 사업을 책임진다. 따라서 군대내 정치사상 업무를 총괄하는 정치지도원은 초급위원장을 청년동맹위원장으로 호칭하지만 군사업무를 책임지는 중대장이나 소대장은 동일한 사람을 사관장으로 부르는 이중역할을 하게된다.

주간생활총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각 집단별로 실시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간생활총화를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총화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총화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핵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총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간부학습만 진행하고 특별한 생산활동이 없는 노동자들은 토요일 오후에 학습을 하지 않고 퇴근한다. 따라서 주간생활총화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한다. 오전에 정치상학강의를 2시간 정도 마치고 11시부터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생활총화를 한다. 오전에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총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한다. 그러나 월간 생활총화는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간 생활총화는 10~1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총화 장소는 강의실이나 소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군대에서 소대단위로 총화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학실(강의실) 혹은 중대교양실을 활용한다. 소대상학실은 30명 정도 수용하는 강의실로 만약 3개 분조가 한꺼번에 총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예술인의 경우 2일마다 생

활총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하는 주간총화시에는 극장에서 비교적 큰 행사로 치른다.

주간생활총화를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총화의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다. 생활총화는 초급단체위원장이나 분조장이 주관하며 생활총화에 참여하는 동맹원들은 생활총화노트를 지참, 비판과 상호비판 내용을 기록한다. 위원장이 총화의 시작을 알리면 특별한 사회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소년단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조직생활의 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총화가 시작되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아비판과 호상비판도 관례대로 수행한다.

총화의 방식은 구체적 진행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직장별, 조직별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주간생활총화의 전형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지금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주 동맹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동무들부터 토론에 참가하시오”

- 동맹·당원: ① (먼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나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인용한다) “수령님의 교시에..... 라고 했습니다.”
- ② (수령의 교시에 비추어 자신의 결함을 고백한다) “여기에 비추어 내 일과생활이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 ③ (문제의 원인을 밝힌다) “교시학습을 게을리 했습니다.” 혹은 “교시학습을 빼와 살이 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 ④ (실천사항을 결의한다) “앞으로하겠습니다.”
- ⑤ (계속 이어 다른 동료들을 비판한다) “동맹원 ○○○동무를 비판하겠습니다. ○○○동무는....을 잘못했습니다....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당동맹·당원: (답변이 없거나) “○○○동무의 말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매우 엄격하게 꾸중한다)

다른 동맹·당원: (같은 방식으로 발언한다)

위원장: (위원장은 맨 마지막으로 자기총화를 한다)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마련해주신 주생활총화를 마치겠습니다.”

동맹위원장은 총화생활기록부에 총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생활총화기록부는 생활총화의 영역을 4분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전형적인 예를 든 바와 같이 동맹원들은 5가지 순서에 따라 발언을 하고 동맹위원장은 그 내용을 기록한다. 동맹원은 자신의 생활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나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시에 비추어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 발표한다. 예를 들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교시에 모든 인민군 병사들이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교시에 비추어 나는 지난주에 실시한 사격에서 우를 받지 못하고 양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의 결함을 동맹원 앞에서 고백한다. 그리고 그 결함이 어디에서 초래된 것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동시에 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위의 경우에 예를 들면, “내 결함은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조준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표명한다. 동맹위원장은 이러한 결의내용을 기록하고 그 결의가 실천되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결의가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보수노동이나 혁명화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총화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나서 자신의 생활을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설교를 하거나 신앙교육을 할 때 먼저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과 생활세계를 분석하거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가는 방식과 같다. 또한 자아비판은 기독교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심하는 기도의 행위와 같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의식이나 무의식중에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는 한 주의 생활 속에서 바른 삶을 결심하는 종교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아비판과 기도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생활총화 시에는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의 결함을 비판해야 한다. 대개 1~2명 혹은 3명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료의 행동을 비판한다. 이 ‘호상비판’시에도 교시 인용이 원칙이나 대부분 교시인용을 생략한다. 예컨대 “○○○동무는 아침기상을 3분 안에 하지 못하고 항상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긴장해서 늦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해당동맹원은 “○○○동무의 비판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답변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호상비판은 기독교의 예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생활총화만의 독특한 의식이다.

한편, 주간 생활총화보다 큰 규모로 진행하는 월간총화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1시간씩 실시하며 장소, 주재자, 내용은 주간총화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월간 생활총화까지는 초급단체별로 실시하고 분기총화 내지 연간총화는 초급위원회 단위로 실시한다. 분조별로 주간생활총화를 하는 기관이 월간총화를 초급단체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분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초급위원회가 모여 월생활총화를 한다. 월생활총화 시부터는 초급단체 보고서가 작성된다.

회의시작과 함께 초급단체위원장이 보고서를 낭독하는데 보고서 내용은 지난달에 있었던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결함과 결점도 아울러 보고한다. 성과와 결함을 지적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자 이름을 거명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방식을 취한다. 보고가 끝나면 참가인원의 1/3 혹은 절반 정도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생활총화를 한다.

대개 혁명사상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월 및 분기 생활총화에는 모든 동맹원이 개별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명을 토론자로 선정하여 월 및 분기총화를 진행한다. 따라서 월 및 분기 생활총화는 주간 생활총화보다 조금 더 형식을 갖춘다. 분기 생활총화는 모임을 진행하는 사회도 있고 중간 중간에 휴회시간도 가지면서 진행한다. 분기 생활총화 시에는 김일성·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규모 있게 진행하며 연간 생활총화 때는 악단도 동원하여 성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단체의 연간 생활총화는 1년에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생활 및 학습훈련을 실시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학생들은 단체로 5일간 주재국 대사관에서 대사, 초급당비서, 행정참사 등의 주재로 실시되는데 주로 김일성의 신년사나 주체사상,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 및 김정일의 저작물에 대한 학습을 위주로 진행된다. 월 및 분기 생활총화의 진행방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직지도원: (조직지도원이 사회를 진행하면서) 먼저 초급당비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급당·단체 비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생활을 분야별로 보고한다)

조지지도원: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 명을 미리 토론자로 선정하여 토론에 참가하도록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성원을 토론에 참가하도록 사전에 자연스럽게 조직한다)

토론자: (토론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간 생활총화에서와 같이 자아비판 형식으로 토론을 한다)

초급당·단체비서: ○○○동무 토론이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 충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토론자: 무슨 사상적 근거에 의해 그런 행동에 나왔습니까?
(그 사람의 행정상 직책을 지적하며) 지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초급당·단체비서: 당원(동맹원)이 이렇게 비판하는데 결함이 큰 것 같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심각하게 비판한다)

생활총화에서 지적된 결함은 그 경중에 따라 벌이 내려진다. 초급당·단체 비서는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건화’하여 벌을 가할 수 있다. 결함을 사건화시키기 위해서는 10대원칙에 의해 어떻게 저촉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철직 및 출당 등 당에서 내리는 벌을 줄 수 있다. 경고와 엄중경고는 회의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고나 엄중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만일 엄중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 권리정지는 결의권이 박탈되며 철직 및 출당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사상학습에 빠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비판을 받는다. 말씀침투학습에 불참할 때는 이를 사건화하라

는 김정일의 지시에 있다고 하며 이 지시에 따라 말씀침투학습 불참을 큰 문제로 삼는다. 총화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월 3회까지 불참하는 것은 크게 용서해준다는 뜻으로 관대용서로 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사사로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총화에 불참하는 것은 사사로이 용서해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번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관대용서로 처리한다.

초급당비서는 총화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문제시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활을 파악하고 총화를 통해 비판과 토론을 잘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생활총화를 조직생활에서 이탈하거나 조직생활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특별히 있을 경우에는 총화시간에 앞에 세워놓고 심하게 비판한다. 특히 당세포비서가 참관하는 때는 비판은 심각하게 이루어진다.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여 토론시에 자신의 잘못과 결함을 모두 털어놓는 소위 '자살비판'이 행해지기도 한다. 자살비판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료나 책임 위원장으로부터 비판이 덜 가해지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 출당조치를 취하기 전에 혁명화를 보내는 때도 있는데, 노동계급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명화를 보낸다. 이 경우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혁명화를 다녀온 이후 다시 근무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진행되지만 필기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여타 종교의식과 마찬가지로 수십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총화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 비판은 상투적인 행사로 전락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한다. 짜여진 총화방식과 순서에 의해 총화를 하다보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호상비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양해를 구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학습시간에 졸았다는 등 전형적인 문구를 만들어 놓고(5가지 정도의 형태로) 필요한 것을 대충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북한에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크며 북한사회의 종교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총화의 분위기는 엄숙한 예배의식과 흡사하며 생활총화에는 전 동맹원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직책을 부르지 않고 ‘동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자격으로 비판한다. 평소에는 동지로 높이는 상관이라 할지라도 총화 때는 ○○○동무로 부른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비판하는 이러한 총화방식이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KAL기 폭파를 감행했던 김현희는 혼자 밀봉교육을 받으면서도 지도원 앞에서 1인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을 했을 만큼¹⁶²⁾ 생활총화는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종교적 예배행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총화에서 결함이 큰 사람은 사상투쟁이라 하여 모든 조직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성토를 당한 뒤 벌을 받는 엄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총화의 심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철저히 순종형으로 반복·훈련되고 체제와 이념의 절대적 긍정과 자아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기확신을 얻게 된다.¹⁶³⁾

북한이 실시하는 총화제도는 모임의 형식으로 보면 기독교에 뚜렷이 비교할 수 있는 양식이 없지만 구역예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총화의 성격과 모임의 분위기에서는 주일예배에 버금가는 종교의식으로 볼 수 있다. 총화시 행하는 ‘자아비판’은 기독교인의 공중

162)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103.

163) 김승철,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그 전망,” 『시대정신』 2000.5~6, p. 112.

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사회의 종교성을 유지하는 골간이며 북한체제를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절대자 앞에서 자기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듯이 북한주민들은 당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각오를 천명하는 종교적 훈련을 하고 있다.

4. 언어사용과 행동양식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한다. 기독교는 성경을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¹⁶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믿으며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법칙으로 간주된다. 물론 성품과 기질과 재능,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개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인간과 신의 상호침투작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활과 행위를 규제하는 법칙이며 인간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성경은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우주의 유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생활과 삶을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성경에 비추어 조명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이단으로 간주되며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사물과 사건을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이다.

164) Louis Berkhof 저, 신복운 역, 『기독교신학개론』, pp. 37~48.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행동지침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사회도 성경의 일종인 주체사상의 경전, 즉 김일성교시를 갖고 있으며 이 교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통상 ‘교시’는 김일성의 지시를, ‘말씀’은 김정일의 지시를 각각 의미한다. 교시와 말씀은 구두 혹은 문서화된 전달사항을 가리키며, ‘로작’은 논문이나 문헌으로 되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을 지칭한다. 김일성 교시와 문헌은 로작으로 분류되어 해방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편집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김일성저작집』은 『김일성선집』 제1판(전 4권, 1953~54)과 제2판(전6권, 1960~64), 그리고 『김일성저작선집』(전 9권, 1968~87)을 기초로 확대편집한 것으로 1979년부터 1996년까지 44권이 출판되었다.¹⁶⁵⁾ 『김일성저작집』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1,415편의 문건을 수록한 44권 이외에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를 45권 이후로 붙여 50권까지 계속 출판되고 있다. 조선노동당출판사는 1992년부터 다시 『김일성선집』으로 확대출판을 시작하여 김일성교시는 현재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 김정일말씀과 로작은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13권의 『김정일선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아직 체계적인 경전형태로 묶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김일성·김정일 로작에 근거하여 노동당은 소위 ‘구호’를 만들어 낸다. 구호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에서 직접 발췌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변형하여 선동적인 형태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 ‘구호’는 기독교인에게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당은 이 구호를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이 구호에 의지하여 각오를 새롭게하고 단결한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

165)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 “북과 남의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전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이다. 전민족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연방제통일국가를 창립하자” 등으로 일정한 시기에 40~50개의 구호를 만들어 배포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에 직면할 때 성경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김일성, 김정일 로작 이외에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하는 찬양가가 있다. 찬송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로 부르며 이를 김일성찬양가 혹은 칭송가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불려지는 대부분의 가요는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하는 찬양가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교회에서도 현재의 찬송가라는 말 대신 찬양가, 찬양대라는 말을 사용했다. 교인들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일 경우에는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찬양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신앙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찬송가 이외의 노래는 좀처럼 부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으로 회의나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최측에서 선정한 김일성·김정일 찬양노래 두곡을 순서대로 가창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공식 행사에서도 애국가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더 자주 부르고 국기 보다는 김일성초상화에 더욱 지극한 경의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찬양가가 애창된다. 대학교수들의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방북자는 대학교수가 술자리에서도 수령노래를 불렀는데 수령노래 이외에는 달리 아는 노래가 없는 듯 보였다고 한다.¹⁶⁶⁾ 북한에서 공식모임과 각종 집회에서 부르는 ‘김일성장

166) 박한식, “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 2000.1.22.

군의 노래’는 1946년 7월에 창작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를 예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후렴)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2. 만주별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1. 백두의 푸른 기상 한몸에 안고/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해발/ 혁명의 붉은기발 높이드시고/ 주체의 내조국을 빛내이시네
(후렴)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름 빛나라 김정일동지
2.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 강산에 꽃피우는 은혜론 사랑/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시네
3. 김일성주의의 기치 드높이/ 영광에로 이끄시는 혁명의 기수 / 빛나는 예지로 세기를 밝혀/ 공산주의 새날로 인도하시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찬양가요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1999년 전승일(7.27 휴전협정 조인일)을 맞아 각급 군부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찬양가요를 보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⁶⁷⁾ 이에 따르면 “장군님은 전조선에 계시네”,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전선에서 전선으로”, “장군님 축지법을 쓰신다” 등의 노래가 새롭게 창작·보

167) 『조선중앙방송』 1999.7.24; 『연합통신』 북한소식, 1999.7.24.

급되었다.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중시를 강조한 이후 “그날의 병사를 보라”, “우리 사단에”, “병사들의 가슴에 남해가 설레이네”, “명령만 내리시라”, “장군님을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등의 노래가 군인들 속에서 애창되고 있다고 한다. 또 훈련장이나 휴식시간, 중대 예술공연에서 “장군님 모신 내조국”, “장군님 오실날을 기다립니다”, “장군님 뵙고 싶습니다”, “오리는 태양의 영원한 노을”, “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잇따라 창작되어 군인들 속에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수령을 칭송하는 이런 노래는 어려서부터 배운다. 인민학교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아 입는 옷과 학용품이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원수님이 주신 교복 정말 좋아요/ 이른 아침 번창한 네거리에서/
공장가는 아저씨께 인사했더니/ 멈춰서서 하는 말 웃으며
하는 말/ 너희들의 새 교복이 정말 곱구나/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원수님이 주신 교복 정말 좋아요.¹⁶⁸⁾

종교행사에는 대개 음악이 수반된다. 기독교 교회에서도 예배와 모임에 음악을 활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성가대나 찬양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기독교의 경우 찬양을 동원하여 신자들의 믿음을 독려하는데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흥사경회의 경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기 위해 하는 소위 ‘준비찬송’을 부른다. 이를 통해 ‘마음을 열게’하며 약간의 흥분상태로 몰아 넣는다. 그리고 나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설교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16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1부, pp. 167~168; 제2부, pp. 32~33.

사회주의도 음악과 예술을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각 기관과 단체별로 예술단을 조직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각도에 하나씩 설치된 예·체능전문학교에서 조기교육을 실시, 우수한 소질을 가진 아동을 집중교육한다. 국립교향악단,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을 비롯하여 도, 시, 군 행정기관과 학교와 기업소, 단체에 예술단과 예술선전대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술단 조직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식행사나 회의 시에 기독교만큼 찬양을 많이 동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행사에서는 행사시작시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동지의 노래를 부르고 모임이 끝날 때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의 축송을 부르는 의식은 기독교 예배의식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같다. 생활총화의 경우 분기 이상의 생활총화에는 김일성찬양가를 부른다. 연간 생활총화 시에는 총화의 시작을 알린 후 김일성장군의 노래 1~3절과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총화를 시작하고 총화를 마칠 때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를 부른다. 가끔씩 아코디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반주로 부르며 연간총화와 같은 큰 행사에는 악단이 동원된다. 엄숙한 자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래 이외에는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예술단과 같은 소규모 악단을 동원하지 않고 무반주로 노래함으로써 엄숙성을 고조시킨다. 대신 작업장과 가벼운 모임에서 주로 노래와 악단을 동원한다.

총화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령의 교시를 인용하는 것이 규범으로 되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글을 쓴다거나 학습대화에 있어서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기독교 계통의 잡지나 서적에 실려있는 글들을 보면 글의 중간 중간에 자기의견의 합리화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개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까지를 표기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북한사람들도 글의 중간 중간에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인용함으로써 김일성교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고 주체사상의 신앙심을 표현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행동규범이 훨씬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을 인용하는 방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교시하시었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 “지적하시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구체적인 정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김일성교시나 김정일말씀을 인용하는 관례는 북한사회의 모든 영역에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스포츠나 예술 또는 학문분야에서 상을 받아 TV인터뷰를 할 때에도 애기의 서두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을 한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되어 있다. 북한사람들도 인터뷰나 대화의 서두에 언제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감사의 예를 빼놓지 않는다.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듯이 북한사람들은 지금까지 키워준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기도하듯 한다. 기도시 눈을 감거나 합장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나 주먹을 힘껏 쥐고 가슴으로 세 번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한 표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나 경제, 문화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급성취장염에 몇 가지 피속효소값의 변화”라는 논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취장염의 진단과 예방, 치료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로 시작된다.¹⁶⁹⁾ 또 “고정

169) 한춘택, “급성취장염때 몇 자기 피속효소값의 변화,” 『조선의학』

화 항생제 효소약천에 의한 화상 성장상 치료”라는 논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자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발전추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의학을 하루빨리 발전시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연구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화상치료에 새로운 효소치료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였다”¹⁷⁰⁾라는 말로 시작된다.

기독교에서 예배나 기도 도중에 ‘아멘’, ‘할렐루야’ 또는 ‘주여’ 등의 동의·감탄사를 표시한다. 이러한 언행은 사제와 신자간에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이다. 북한의 군중집회나 학습 및 강연 도중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이러한 종교언어에 비교될 수 있다. 집회의 성격과 분위기에 따라 ‘만세’를 부르는 강도는 달라지는데 김일성·김정일을 칭송하는 대목에서는 모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만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집회나 학습 도중 아무 때나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 습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의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아멘 혹은 할렐루야·주여 등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세를 부르는 것은 반드시 집회나 학습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서도 기쁜 일에 직면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부가 출산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 하다가 의사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 이들은 ‘만세’로 감탄사를 연발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주여’ 또는 ‘할렐루야’라는 감탄사를 표출하는 것과 같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진한 글씨체

1999.4, p. 5.

170) 문채화, “고정화 항생제 효소약천에 의한 화상 성장상 치료,” 『조선 의학』 1999.4, p. 30.

로 구별하며, 이들의 교시와 말씀은 고딕체로 《 》안에 넣어 일반적인 글씨나 언어와 구별한다. 예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저작만을 진한 글씨체나 고딕체로 표시했는데, 점차 ‘위대한 수령’ 혹은 ‘수령’, ‘경애하는’ 등의 문구도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인쇄물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다른 글씨에 비해 크게 써야 하며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트의 다른 내용과 확연하게 구분하도록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다른 글자와 구별하여 표기함으로써 유일적 존재, 구별된 존재로 신격화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성물로 간주되어 특별한 방법으로 모신다. 소위 ‘초상화 정성사업’이라 하여 정성스럽게 모셔야 하며 초상화에 조그만 먼지도 묻어서는 안 되도록 훈련받는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상징적 의미로 십자가를 지니고 있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뺨지를 상징으로 붙이고 다닌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방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는 소중히 모신다. 이들은 김일성의 석고상이나 동상, 벽 그림을 깨끗이 청소하며 언제나 싱싱한 꽃을 갖다 놓아야 한다. 당에서 수시로 위생검열을 나와 사진 보존상태를 점검하며 사진에 먼지가 쌓였거나 보존상태가 나쁘면 비판을 받는다. 새해 설날과 같은 의미 있는 날에는 초상화에 절하며 예배하고 김일성·김정일 찬양가를 부른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초상화나 십자가를 성스럽게 모시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성물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북한은 초상화 자체를 성스럽게 여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사람들 중 약 절반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 이 초상화를 소중히 모시기 위해서는 죽음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김일성·김정일은 유일신으로 신격화되었다. 『로동신

문」은 노동자 합숙소에 살고 있던 두 처녀가 공장건물에 불이 나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꺼내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혁명적이고 충성스런 행위로 예찬하기도 했다.¹⁷¹⁾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신성하게 모시는 행위규범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공통적인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다. 종교에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언어는 실재에 이르는 문”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는다. 신앙의 대상자와의 관계, 신앙의 교리, 종교행위는 특유한 언어로 표현된다. 종교체계는 전혀 다른 언어체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가 교리체계와 종교행위에 어떠한 언어를 동원하는가에 따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언어에 있어서 북한사람들은 은혜와 사랑, 믿음, 구속, 구원, 영생 등 기독교적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최근에 올수록 유일신 체계를 상징화하기 위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 같은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¹⁷²⁾ 주체사상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사랑과 믿음, 은혜, 속죄, 구원, 영생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언어체계와 동일하다. 심지어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김정일 통치이념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이다. 김일성·김정일을 호칭하는 수식어도 하나님과 예수를 표현하는 수사어구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¹⁷³⁾

171) 『로동신문』, 1993.4.28.

172) 언어 및 용어 패턴에 대해서는 Richard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개념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년, p.47~57 참조.

173) Richard J.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개념에 대한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속죄와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독교교리의 핵심적 개념인 ‘속죄’와 ‘구원’은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었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구원은 한 개인의 속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집단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그 집단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속죄란 의미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뉘우친다거나 혹은 자본주의적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영생한다고 설명한다. 탈냉전 후 다부작 시리즈물로 방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북한은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당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면서 속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속죄와 용서에 관한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생활총화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주체사상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된 사회생명체를 아는 사람이다”¹⁷⁴⁾라든지, 김정일에 대해서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통치하는 인덕정치가로 극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독교를 특징짓는 핵심적 언어인 사랑과 믿음은 주체사상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인간관계의 덕목이다. 주체사상은 사회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이 지니는 사회적 채부들간의 관계로 형성되는데 사회적 채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주며 구성원들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한다. 즉 북한사회의 종교적 성격을 특징짓는 인간행동의 가치를 사랑과 믿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2000년 광복절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상봉에서도 북한측 가족들은 “우리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으

연구,” p. 50.

174) 홍동근, “1993년 6월 평양의 민심,” 『월간 말』, p. 76.

로 살아 왔다. 아버지가 장군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것은 모두 장군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북한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말은 개인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애정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사랑이란 수령과 조국, 그리고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남녀간의 사랑은 “좋아한다”, “생각한다”, “각별한 사이다”,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대신 사랑은 수령과 조국, 인민에 대한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은 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김일성 어버이께 감사를 드리라는 교육을 받는다. 인민들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교시를 암송하게 된다. 김일성에 대한 진지한 감사를 인민들은 어버이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한 카톨릭 지도자는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신앙인들은 천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백성들은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십니다. 어버이로서 께야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주석님을 자기 아버지로 떠받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¹⁷⁵⁾

한편 믿음은 곧 절대자에 대한 신뢰이다. 믿음, 즉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기독교가 지니는 믿음의 독특한 측면이다. 절대자에

175) 조광동씨의 증언으로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185 참조.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이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받을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믿음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리’라는 언어를 더 선호한다. ‘의리’라는 말은 서양사회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동양특유의 개념으로 북한은 믿음이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동양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에도 “사람은 한 번 다진 신념, 한 번 맺은 의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한다”¹⁷⁶⁾는 내용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믿음과 관련하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즉 먹을 것과 관련된 기적을 일으키는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¹⁷⁷⁾ 신약성경에 예수가 어부의 그물로 물고기를 가득 낚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몇 마리의 물고기와 몇 개의 빵으로 5천명 혹은 4천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하루동안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제공하고 마실 물도 기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였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떡 혹은 생명수라고 주장함으로써, 생명을 지키는데서 떡과 물이 중요하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인간생존권과 관련된 이적행사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식주를 공급하는 절대자로 간주되고 있다. 배급제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김일성의 이름으로 공급해준다.

176) 『로동신문』, 1999.5.26.

177) Richard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개념에 대한 연구,” p. 23~24.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고기와 과자, 우유 등 고급음식을 선물로 베풀어준다. 인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없이는 이러한 생필품을 얻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입시킴으로써 수령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만들어 간다.

이와 같은 행위규범은 유아시기부터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있어 매우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교육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종교적 가치관과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하다. 탁아소에서는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만2세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김일성 초상화를 향해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김정일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교육시킨다. 따라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수령님, 원수님, 아버지 김일성이다. 유치원은 탁아소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규율을 강조하며 집단주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수령과 당이 베푸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는 김일성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식사 전에 김일성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식사기도와 같은 것이다. 식사기도는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가 김일성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점을 주입시킴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북한은 사회화의 판단능력이 없는 유아기에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언어교육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신격화를 조장한다.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는 제일 먼저 제1과 「보고싶은 원수님」을 배우면서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봐도 기뻐요. 우리모두 보고

싶은 김일성원수님”을 암기해야 하고,¹⁷⁸⁾ 제7과 「입학하는 날」과 제14과 「짧은 글짓기」 단원에서도 “아버님 원수님을 모시고 입학날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은 훨훨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4학년의 경우, 국어 제1과에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라는 단원에서는 “하늘 땅의 끝까지 따릅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립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 하립니다”라며 투철한 충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라는 과목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활동을 미화한 이른바 ‘혁명전통교양’을 삽입함으로써 김일성이 인민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식견과 투철한 혁명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상화 내용을 교육한다. 그 결과 대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섬기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 일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동해야 할 도덕을 배우는 등 모든 교육이 김일성, 김정일의 덕성에 빚대어 이루어진다. 모든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며 자라나도록 교양사업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과거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김정일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1992년 2월 김정일의 50회 생일행사로 열린 소년단 연합 단체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에게는 ‘자애로운 할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김정일에게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선생님’라는 호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이야기」라는 교과목을 인민학교의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김정일

178)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p. 57.

우상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집단주의적이고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흡수하여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에서도 수령을 ‘아버이’로, 당을 ‘어머니’로 의인화하고 충성과 효도라는 인정에 기초한 전통적 인간관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의 종교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유교의 가부장적 전통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를 일찍 여윈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¹⁷⁹⁾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등 가족관계의 담론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기독교는 이러한 가족관계의 개념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간다.

한편, 신앙인들은 개인적 종교체험을 갖고 있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함으로써 신앙의 확신을 쌓아 간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신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대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음성으로만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된 예수도 그를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인 만남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만남의 방식은 신비로움을 높여준다.

179) 김정일은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곧잘 울만큼 모친의 사망은 그에게 정신적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과 친척들에게서 받은 애정(이것을 기독교 경험이라고 못박을 수 없지만)이 주체사상 이론에 ‘감성적 언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북한의 인민대중은 실제로 절대자를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이 절대자의 자비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신비한 매력에 사로잡힌다. 행복의 원천인 절대자를 보고 싶은 불타는 희망은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김일성이 생존하던 시기에는 현지지도라는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을 직접 노출시켰다. 그러나 TV에서도 현지지도 장면을 수령의 육성을 내보내지 않고 화면과 더불어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로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절대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간접적인 접촉방식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화신으로서 김정일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주장과 같다. 물론 현지지도나 접견을 통해 김정일을 직접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간접적인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이끌어 낸다.

종교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기독교와 북한사회가 비슷한 점이다. 기독교에서는 헌신의 표현으로 “제단에 바친다”고 한다.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며 자녀를 성직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 제단에 바친다고 표현한다. 그와 같이 북한사람들도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작원들은 자신을 국가에 바친다고 말한다. 공작원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국가에 바친다는 표현으로 호적에서 자녀의 이름을 아예 삭제한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공식교인이 되기 위해 학습과 입교, 세례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학습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이며, 세례는 학습의식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더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이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신

앙을 고백함으로써 성인세례로 인정하는 의식이다. 각각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공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서약을 하도록 한다. 특히 세례는 다른 신자들에게 정식교인이 된 것을 알리는 효과와 함께 사회적 공표를 통해 본인에게 신앙인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갖도록 한다. 기독교 교회가 세례시 신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⁰⁾

1.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2.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되심과 죄인의 구주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3.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 되기를 힘쓰며 모든 죄를 멀리하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4. 그대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러한 서약을 마친 후 세례의식을 베풀고 “○○○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각 교단별로 명칭이 달라짐)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이라고 모인 회중들에게 선언한다. 그리고 나면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통해 신앙을 유지해 가는 종교적 의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절차

180) 김도빈, 『목회자 핸드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pp. 29~30.

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당원이 되는 것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당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투철한 사람들만 당원으로 받아들이며 신입당원들에게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입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에 대한 신앙심을 당과 공중 앞에서 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손수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향도 발전시키는 조선노동당에 당원으로 입당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높은 긍지를 가지고 당과 수령님을 위해 생명을 다 바쳐 당의 명예를 지키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¹⁸¹⁾

일반적인 입당선서를 거행한 이후에는 당과 수령의 배려에 감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충성을 표현하는 의식을 갖는다. 김일성 초상화를 향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식을 가진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의 실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다짐 의식에서 선서하는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²⁾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성을 다하는 '김일성주의자',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181)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p. 37~38.

182) 위의 책, pp. 38~39.

첫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높이 우리러 모시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과 교시방침을 신조화하겠다.

둘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을 곧 법으로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관철하겠다.

셋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그를 훼손시키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겠다.

넷째,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겠다.

다섯째, 우리는 노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겠다.

여섯째, 우리는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전당, 전인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확립하겠다.

일곱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따라 배워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가장 높은 인간성을 지닌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여덟째,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반당 반혁명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

아홉째, 우리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부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교시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다바쳐 끝까지 투쟁하겠다.

열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김일성주의화를 위하여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피압박 인민들을 비롯한 혁명적 역량을 굳게 묶어 세워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해서 견결히 투쟁하겠다.

이러한 행동은 공산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마치 기독교의 선교사가 선교현지에 파견되기 전 순교

를 결심하는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탈북자 집단이나 남한 혹은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의 공직원들은 기독교의 선교사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 적화사업을 위해 적지로 떠나는 북한 공직원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지켜 싸우겠습니다”라고 맹세한다.¹⁸³⁾ 이러한 행동규범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버리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순교를 각오하는 이러한 행위규범은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앙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183) 위의 책, p. 52.

V. 공동체의 윤리도덕과 조직체계

1. 공동체의 윤리도덕

종교는 집단내 구성원들이 공통적 속성과 귀속감, 사회적 유대의식을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종교는 “신자들이 그들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선행하고 또한 그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며 그와 관련하여 의존감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특정의 행동 유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어떤 힘들과 관계되는 그 사회 집단의 공동적 담화 및 실천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⁸⁴⁾ 이런 점에서 종교는 뒤켄(E. Durkheim)의 말처럼 구성원을 윤리와 도덕으로 결속하는 도덕적 집합체이다. 도덕적 집합체로서의 종교집단은 신에 대한 숭배와 행위규범을 중시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행동규칙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측면을 중시한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¹⁸⁵⁾고 하며 신념과 원리를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완전한 종교적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공산주의도 일찍이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교의나 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운동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론과 더불어 실천(praxis)을 중시한 것도 공산주의가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도 이론과 함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실천적 차원에서 ‘지도적 원리’라는 행동

184) 오경환, 『종교사회학』, p. 105.

185)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원칙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로 규명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혁명과 건설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자주적 입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자세를 제공해 준다면, 창조적 입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말해준다.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동시에 모색되었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이다.¹⁸⁶⁾ 이는 마침내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북한의 정부정강으로 발표되었고 국가정책의 기초로 정착되었다.¹⁸⁷⁾ 창조성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실정에 맞게 행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것이 창조적인 이유는 인민대중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약하여 일반화하면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부합된 정확한 노선과 방침이 수립되고 이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투쟁으로 고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혁명투쟁을 자국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시켜야만 노선과 정책수립, 전략, 전술에서 주관주의

186) 북한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대회를 통하여 사상에서의 주체를 선언하고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천명하였으며, 뒤이어 1957년 12월에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1962년 12월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각각 체제의 정책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갑철,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1988), pp. 79~86.

18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집 21』, pp. 481~548.

에 빠지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식성을 구현하는 실제적 방법은 사상개조와 정치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사상개조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며, 정치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주체사상이 실천을 강조함에 있어 도덕과 윤리를 중시한다는 것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반영한다. 주체사상의 설명에 따르면 도덕적 품성은 사상의식과는 다르다고 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의 체계이며, 도덕은 사람의 생활규범, 행동준칙이다.¹⁸⁸⁾ 물론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 의식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에서 가치란 사회적 가치를 가리킨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과 같이 개인적 요구를 기준으로 가치를 논의할 수 있지만 보편적, 객관적 가치기준은 사회적 집단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된다.

주체의 윤리학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생물학적 생명의 담당자로서 개체 혹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갖는다. 개별적 사람들은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육체에 사회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바로 사람이 된다고 본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육체적 구조의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속성을 지니는 데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바로 사람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지니게 되면 인격이 형성된다. 인격은 개인과 구별된다. 개인을 떠난 인격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

188) 현원석, 『주체의 인간론』, p. 246.

이 곧 인격은 아니다. 인격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개인이 체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속성과 그것을 체현한 물질적 실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한다.¹⁸⁹⁾

사람들은 서로 결합하여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며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의 사회공동생활을 보장하려면 사람들의 관계,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행동규범이 도덕적 규범이다. 도덕적 규범이 습성으로 굳어진 것을 도덕적 품성이라 한다.¹⁹⁰⁾ 도덕품성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인간은 반드시 도덕품성을 가지게 되며 도덕품성에 의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행동이 조절된다. 따라서 도덕품성에 의해 사람의 가치와 인격이 규정된다. 개인이기주의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물적 본능이다. 역사의 수많은 착취와 전쟁은 자기개체의 생명만 보존하려는 동물적 개체주의이다.¹⁹¹⁾

사람의 도덕품성을 선과 악으로 평가하는 생각도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공유하는 부분이다. 선한 품성의 소유자는 사람들의 사회적 결합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맺고 행동한다.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서로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엄 있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줄 줄 아는 사람은 선한 품성,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엄 있게 대할 줄 모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악한 품성의 소유자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너절한 인간이라고 비판한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 사회적 집단, 인민대중의 요구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사람이 지닌 사상의식

189) 위의 책, pp. 237~238.

190) 위의 책, p. 244.

191) 황장엽,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pp. 12~15.

이며, 이런 점에서 사상의식이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의 공동체성은 기독교와 흡사하다. 그런데 인간사회의 공동체성을 윤리적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예컨대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사회적 집단을 위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람의 보람있는 생활은 집단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사회적 집단은 어떻게 되는 자기 혼자만 잘살겠다고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사실상 동물의 행동과 다름없습니다”¹⁹²⁾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윤리적 문제로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공동체 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주체사상의 윤리학은 사람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가 필수적인 기본 영역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인간개조는 사회개조와 자연개조에 앞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인간개조는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사람은 이러한 본질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가 필요한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려하는” 사람이다.¹⁹³⁾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

192) 김정일,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98~99.

193)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61.

장된다.

인간개조와 더불어 주체사상은 사회변혁을 추구한다.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사회변혁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온갖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적 변화의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닦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며 꾸준하고도 인내성 있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과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¹⁹⁴⁾

주체사상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기 운동’, ‘따라배우기 운동’ 등 각종 실천생활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한 고리를 단단히 구성하고 있는 이 실천운동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종교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인간개조론은 주체사상의 윤리적 측면을 이데올로기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윤리의 이데올로기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¹⁹⁵⁾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이 유지될 수 있는 한 측면이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하부이념들, 특히 집단주의 원리와 가치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을 공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헌법에 규정(제 63조)하고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제82조)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윤리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출

194)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62.

195) 김명세, “주체사상의 인간개조론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p. 36.

판된 어린이 동화, 아동소설 및 아동만화 등 175편을 분석한 한 연구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중에서 집단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⁹⁶⁾ 여기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가치를 예로 들면, 개인의 자만과 공명심을 배격할 것, 집단의 협동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개인성과의 종합보다 훨씬 크다는 것, 집단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따른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기주의는 사악하므로 이타적 태도를 함양할 것, 집단의 힘에 의해서만 자주적으로 자신의 마을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집단의 것이 곧 개인의 것이고 개인의 것이 곧 집단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을 가질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정치경제 생활에서 ‘군중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서는 ‘공산주의적 미풍’의 발양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미풍’의 발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억제하며 집단과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사회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사회의식(social ritual)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정신이 발양되고 있다는 증거로 각양의 ‘공산주의적 미풍’을 소개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가 고아에 대한 입양이다. 북한은 입양을 ‘공산주의적 미풍’으로 강조하고 고아입양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부터 1993년 9월 사이에 5백 37세대 1천 60명의 고아를 입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¹⁹⁷⁾ 어느 인민반에서는 24세대 모두가 26명의 고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도덕화”되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¹⁹⁸⁾ 또한 영예군인에게 시집을 가도록 장려

196) 박영옥,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초기 정치사회화: 사회화 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199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p. 207.

197) 『평양방송』, 1993.11.27.

198) 『로동신문』, 1993.4.28.

한다든지 혹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즉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일을 장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다. 교육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대해 인간적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⁹⁹⁾

북한은 이러한 사회의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행위들은 단순한 일회적 미담이나 자선사례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식, 나아가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짐으로써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북한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적 가치 실천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나치게 요구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집단주의 가치를 생활화하는 의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을 응집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본받아 주민들이 수령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독려하는 소위 ‘실효투쟁’을 전개한다. 문화예술부 산하 영화보급사업소는 영화보급원들을 동원하여 각지에서 영화를 순회상영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직장별로 영화에 대한 학습과 효과적인 실천모임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효투쟁과 병행하여 ‘지상토론회’를 개최하고 특정영화에 대한 감상과 토론을 기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감상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회 평양비동맹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도라지꽃’을 토론

199) 이찬삼 기자의 방북 취재기 (95.1.3~12) 및 방북소감 참조.

작품으로 선정하여 『청년동맹』(당시 사로청)은 1987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 동안 “조국을 사랑하라, 향토를 사랑하라”는 표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지상토론을 전개한 바 있다.

물론 윤리와 도덕 가운데 가장 고상한 윤리도덕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키는 윤리라고 주장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 도덕의 핵”이라고 규정²⁰⁰⁾하고 있는 데서도 주체사상의 윤리가 수령론과 연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게 되며 그러한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북한사람들은 혁명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혁명의 대가 바뀔 때마다 음모가,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타나 수령을 혈투고 당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각성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교양한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에 도전한 사람은 이미 예견되었던 음모가, 배신자, 변절자로 인식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람있는 삶을 산 사람이며 비록 육체적 생명은 죽었으나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남아 있는 영생을 삶을 산다고 믿는다.

한편, 북한의 교회가 기독교의 두 측면, 즉 신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중에서 신학적 측면보다는 특별히 윤리적·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의 내면화와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생의 체험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북한목사들의 설교내용이 주로 윤리적 생활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북한 봉수교회를 맡고 있는 리성봉 목사의 설교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신학적

200)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61.

내용과 구원의 교리보다는 윤리적 생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1년 5월 미국뉴욕 소재의 부르클린 한인교회에서 한 설교를 예로 들어보면 「온유와 겸손의 미덕」이라는 설교제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온유와 겸손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윤리 생활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리성봉 목사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8절에 나타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2~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원칙이라고 설교하였다.

리성봉목사의 또다른 설교로서 1990년 제24차 북미주기독교학자회 연례대회의 폐회설교인 ‘애국애족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제하의 설교에서도 기독교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19장 41~42절, 23장 28절을 인용하여 예수가 지녔던 숭고하고 열화같은 높은 차원의 민족애를 본받자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의 봉수교회 박춘근 목사는 「디모데전서」 6장 9~10절 말씀에 근거하여 ‘돈을 탐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예도 있다. 물론 이들과 함께 다니는 여전도사들을 통해 신학적인 논의와 기독교로의 회심배경 등을 설명함으로써 교리적 내용을 보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교회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의 설교내용은 인간의 윤리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호중에 성경구절이 들어 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하라”는 구절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상옥감독이 제작한 영화, 『소금』의 첫머리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명언을 마태(Matthew)의 말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말씀에 나오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덕목이다. 그리고 방북자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김일성생가인 만경대 근교의 한 우물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는 내용들은 북한사회가 기독교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장엽씨가 망명하기 이전 주체사상 연구의 대표자로 불리웠던 박승덕의 경우 기독교를 평화, 사랑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이 기독교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정일은 1986년 8월 5일 자신의 문헌에서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즉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²⁰¹⁾ 박승덕은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애국·애족 등 기독교 교리에는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과 구원론에서도 가치 있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²⁰²⁾

주체사상은 기독교가 불변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해왔다고 본다. 기독교의 역사적 형태를 원시기독교, 국교화되거나 자본가 계급에 복무한 기독교, 현대기독교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민중을 착

201)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986.8.5), p. 185;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p. 81에서 재인용.

202)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p. 85.

취, 억압하는 종교였으나 현대 기독교에 이르러 민중의 편에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남한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현대자본주의 사회악을 폭로하고 비인간화를 반대하며 반핵평화, 공해반대, 반제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는 등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해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성도덕이나 성윤리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성도덕과 성윤리의 발언을 금기시하며 성개방이 비교적 억제되어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기독교와 같이 절대적 가치를 요구하는 신은 없지만 유교적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조관념은 철저하다. 주체사상이 성적 문란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타락을 경계하는 것은 기독교의 금욕주의 윤리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체적 간통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으로 간주할 만큼 기독교의 성윤리는 엄격하다. 주체사상이 건전한 성윤리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윤리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귀순자 김현희는 “천호동, 미아리 기생집(사창가)은 사람동물원을 연상시켰다. 잘 분칠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들이는데 이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너무한 일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남한에 온지 1년 쯤 됐을 때 우연히 음란비디오를 보고 현기증을 느꼈다. 북에서도 당간부들이 역도산 레슬링하는 것이나 남녀가 노는 비디오를 본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되나 싶어 충격이 컸다”라고 토로하였다.²⁰³⁾ 또 물건에 욕심을 부려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자본주의 한다’고 비판받는다.²⁰⁴⁾ 어

203)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218.

204)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p. 95.

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물질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도록 배우고 생활하는 데서 이러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식량난이 악화된 최근 몇 년 동안 도둑질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가치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윤리는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다.

2. 개인의 종교적 열성도의 차이

공동체내 신자들의 종교적 열성도는 동등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자들간의 다양한 종교적 열성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종교적 열성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아주 높은 것에서부터 매우 낮은 것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형성하고 있다.²⁰⁵⁾ 개인들은 이 연속선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게 된다. 같은 종교를 믿고 동일한 종교단체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성이 적어서 비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 종교성의 차이는 상이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독교의 신자공동체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의 정도와 공동체내 사회관계의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강렬한지, 사회관계의 유형이 어느 정도 집단주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공동체는 다양한 색채를 띤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의 정도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정도, 행동과 실천의 강도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은 나뉘어 진다. 예를 들면, 교리 지식의 정도, 예식에의 참여도, 헌금의 열성도, 교회단체의 참여도 등이 신자들의 높은 종교적

205) 오경환, 『종교사회학』, pp. 112~134.

헌신(commitment)의 척도로 흔히 사용된다. 신앙공동체 내에도 종교적 열성분자들이 있는 반면 형식적 참여자들도 있고, 신념체계, 행위규범, 실천 등 각각의 종교양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종교성 정도는 개인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세부 가치별로도 다르게 표출된다. 예를 들면,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신봉하는 북한사람들은 북한주민 전체의 약 70~80% 정도로 평가되며, 집단주의는 50%, 김일성에 대한 신뢰는 99%,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60%, 북한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30~40%, 북한체제의 사회적 우월성은 70%,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는 99% 정도로 평가된다.²⁰⁶⁾ 물론 이들이 주체사상을 얼마나 열렬하게 믿고 생활화하고 있는가는 그 정도가 다를 것이며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다.

주체사상의 신앙정도를 기준으로 북한사람들의 공동체를 분류했을 경우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⁷⁾ 제1부류는 주체사상의 내면의 정도가 완전하고 철저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으로 이들은 소위 “주체의 요구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통칭된다. 제1부류는 주체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집단으로 약 25%로 추산된다. 제2부류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나 의심도 하고 있는 중간부류, 즉 “믿기는 믿으나” 회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약 25%의 인구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부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체사상의 ‘교재’가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즉 내면화의 정도가 약한 집단으로 역시 25%의 인구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 제4부류는 주체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구의 25%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06)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78~105.

207) 위의 책, pp. 78~105.

북한사람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개략적인 추정
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체공동체의 성격과 각 그룹별 특징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는 북한사람들을 대략 25%씩 4부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⁰⁸⁾ 첫 번째 집단은 매우 열렬한 신자이다. 여
기에는 약 300만명(전체인구의 15%)에 달하는 노동당원들이 포함되
며 미래에 당원이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10%를 포함한다.

두 번째 집단은 기득권자들로 열성적 신자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열성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
람들은 체제가 무너지면 체제를 버리고 나올 사람들이지만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사수하고자 하는 사
람들이다. 대부분의 관료지도층과 정치지도자, 대학교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기득권층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집단은 여러 종류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이지만 체제 내에서 요령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회의주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사람들
에게 주체사상의 교리와 신념체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지는 않는
다. 이들은 머리가 좋아 열렬한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하며
체제에 충성하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외국회의에도 참석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회의의 상한선을 참지 못해
탈북한 사람이 황장엽이지만 이들은 절대로 반체제 운동을 할 사
람들이 아니다.

208) 박한식, “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 2000.1.22.

네 번째 집단은 그냥 국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하는 훈련이 안된 사람들이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의 최하류층으로 자율적 사고능력이나 자립적 생활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들은 국가가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지 않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체사상의 신앙정도는 사회집단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계층·계급별로 신앙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약 25~30%의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신념도 강한 반면, 하층민인 복잡군중들은 상대적으로 신앙심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앙심을 이론적 이해정도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실천의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계층간에 다를 수 있다. 노동자들과 농민의 경우에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이해의 정도는 낮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투철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론적 이해는 높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대별, 집단별 차이도 존재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 군대조직까지는 사상무장이 잘되어 신앙심이 높다. 귀순유학생 중 한 사람은 “김일성의 명령만 떨어지면 수백만의 북한 젊은이들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종교적 열정으로 마치 순교자처럼 생명을 던지고 남쪽으로 쳐내려 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²⁰⁹⁾ 또한 60, 70대의 노년층도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에 익숙해져 경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앙심이 흔들리기 쉬운 가변적인 집단은 30대를 전후한 혁명 3세대들로,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 초기단계에서 주체사상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회의 및 권태기를 겪는다. 또한 지역별로는 집단주의 생활과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신앙심이 높은 반면, 농민들은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열악성 때문에 신앙심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209)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p. 95.

전반적으로 볼 때 주체사상의 공동체는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으며 체제지탱의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내걸고 있는 강성대국 슬로건에 걸맞게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계층간 격차의 심화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 합리화해 온 주체사상의 정당성의 근거는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수령교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신자들과 같이 열성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폭넓게 존재하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신앙심도 다르다.

3. 공동체의 조직운영 체계

북한의 공동체 생활조직을 통제·관리하는 기관은 북한사회의 두뇌에 해당하는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이다. 북한의 당은 교회의 사제단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제단은 교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제의 충원과 신자들의 교육, 선교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공식·비공식 통제채널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주체사상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당은 “사람과의 사업”과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꼽고 있다.²¹⁰⁾ 노동당의 최우선적 기능과 역할은 조직사업 및 사상사업에 두고 있으며, 이 중 사상사업은 사상통제와 사상교양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조직을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지식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린시절

210)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에 습득해야 한다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²¹¹⁾라는 말씀에 따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 2세~4세는 유아부, 5~6세는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로 나뉘고 중고등학생들도 중등부, 고등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생 이상은 대학부 혹은 청년 1부, 2부, 3부 등으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에 익숙해야만 집단주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용이하다는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 노동당 제5차대회(1970.11.2)에서 6개년계획 기간 내에 북한의 모든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유치원 높은 반을 포함한 11년 의무교육제를 시행한데 이어 1976년 6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공포하였다. 북한은 일찍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의식교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어린시절의 정치사회화 교육은 사회의 일반적 가치를 자아의 일부로 흡수, 내면화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일찍이 프로이트, 미드, 에릭슨 등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대개 유아·아동기의 어린시절에 습득하며 이는 일생동안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체계적인 탁아소·유치원 교육은 유아시기에 집단주의적 가치를 학습시킴으로써 전통·유교적 가족주의 혹은 기성세대의 낡고 퇴색한 가치의 오염으로부터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가정으로부터 일찍 격리시켜 사회주의 제도와 밝은 미래, 집단주의 정신, 노동정신, 애국심 등 사회주의적 제 가치관과 혁명적인 조직생활의 기풍을 주입시킴으로써 혁명의 계승자·후비대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만3세까지 어린이는 탁아소에 맡겨지며 부모가 없는

211) 구약성경 「잠언」 17장 6절.

고아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만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반에 입학하게 되고 만5세가 되면 높은 반으로 진학한다. 북한전역의 약 3만여개의 탁아소와 2만여개의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학습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2년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만 6세에 인민학교에 입학한다. 인민학교에서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²¹²⁾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있다. 특히 1977년 노동당 제5기 4차 전원회의(1977.9.5)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입각한 4대원칙, 즉 양성·노동계급성 구현, 주체확립, 혁명·실천결합, 국가책임을 목표로 깨우쳐주는 교수법, 이론-실천 결합, 조직생활 및 사회정치활동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평생교육(성인교육) 강화 등 5대방침을 학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민학교 2학년 때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는데 주로 4.15명절(김일성생일), 6.6절(소년단창립일), 9.9절(정권창립일) 등 주요행사시에 선별적으로 가입한다. 충성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한번에 모두 가입시키지 않고 기간을 두고 자격이 되는 사람부터 가입시킨다.

고등중학교에서부터는 주체사상에 대해 이론적인 기초학습을 시작한다. 고등중학교 교육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사상, 이론,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다. 사상교육을 위한 학습과목으로는 ‘현행 당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등 5

212) 북한 사회주의 개정(1998.9)헌법 제43조.

개 과목이다. 고등중학교 교육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가지고 보면 전체과목의 25%로 많지 않은 것 같으나, 국어, 한문, 외국어, 역사는 물론 자연계 및 예·체능계 과목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이상화를 비롯한 정치사상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교육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총 75개 단원 중 정치사상성을 주제로 한 단원이 54개로 72%를 차지하며 그 중 김일성과 그 가계 이상화를 주제로 한 단원은 42개 단원으로 78%를 차지한다.²¹³⁾ 고등중학교 고등반부터는 청년동맹 조직에 가입하여 당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학습한다.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부자의 당정책 관련 논문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적 상식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 이외에 조선로동당투쟁사, 정치경제학, 철학, ‘김일성주의의 기본’, 김일성·김정일문헌 등 보다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사상학습을 실시한다. 특히 대학 졸업시험에서 전공과 외국어 이외에 김일성·김정일 로작 460여개 중 1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에 이 문헌들을 가능하면 암송하고 아니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정도로 김일성·김정일문헌을 학습한다. 심지어 대학 운동선수의 경우도 실제로 매일 저녁 9시반부터 10시반까지 하루 한 시간씩 김일성저작을 학습하는 등 학습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대학졸업단계에서는 주체사상상의 이론적 근거와 김부자의 노동당역사를 구체화하도록 하여 김부자의 사상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 시절 김현희는 월요일 아침 8시에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부학장의 사열을 실시했으며, 학부별로 구령에 맞추어 ‘우

213)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 pp. 65~66.

로 뵈'하면 “김일성 원수님 만세”라고 일제히 외쳤다고 한다. 남학생들이 ‘만세’를 외치고 여학생들이 ‘만세’라고 다시 하면 남학생들이 받아 ‘만세’라고 외친다고 한다.²¹⁴⁾ 대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강당에 모여 ‘강연회’를 갖는다. 주로 정치사상 교양이어서 그 출석을 철저히 통제한다. 선전활동은 토요일 오후 6시에 담당구역을 정해서 나간다.

당은 통제된 북한의 사회체제 속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내면화시킨다. 취학전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시기부터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학습을 실시하고, 인민학교에서는 덕성교양을, 고등중학교에서는 역사교양을, 그리고 성인기에는 수준별, 직능별로 구분하여 대상과 수준에 맞는 사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김정일은 학습을 학습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실천적 차원에서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저작 학습을 통하여 이론·실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활동과 조직생활, 실천 투쟁의 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로 사상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다.²¹⁵⁾

주체사상의 내면화 과정에서 유아·아동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아·아동시절에 습득된 가치는 청년시절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사회심리학 이론에 근거해 볼 때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북한사회에서는 더욱 어린시절에 받은 교육의 영향이 크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이어지는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규범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범적 압력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주제로 반복적인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

214)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pp. 122~123.

21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61~66.

들의 행동을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내면화된 것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세대적 단절과 변형을 우려하여 성인의 사회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²¹⁶⁾ 북한에서 성인들의 주체사상학습은 ‘김일성교시’ 및 ‘김정일말씀’ 학습을 주내용으로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직장인들이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수령의 요구와 수행방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성인기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조직생활을 근간으로 조직별 학습을 실시한다. 당 조직생활은 첫째, 교시·말씀, 주체사상, 당정책 학습, 둘째, 혁명과업 수행, 셋째, 강연, 실무학습, 영화 학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조직별 학습이란 원만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강연, 영화, 문답식 학습방법 등을 통하여 교시·말씀과 주체사상 및 당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조직별 학습에서는 당과 혁명, 수령에 충직하기 위해서는 조직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조직생활우선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학습의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다.

조직별 학습반은 각 직장별로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여맹을 중심으로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조직별 학습은 등급반학습보다 좀더 엄격하고 철저하다. 직맹의 경우 직총산하에 9개의 산업별 직업동맹이 조직되어 있고 각 직업동맹은 세분화된 조직원리에 따라 소집단활동을 하고 있다.²¹⁷⁾ 학습시간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은 주체사상을, 나머지 한시간은 김일성·김정일교양학습을 한다. 주체사상학습은 당정책학습 또는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청년동맹의 경우 청년들의 실정에 맞게 1920년대 항일운동가 김혁, 차광수 등의 청년전사

216) Richard E. Dawson and Kenneth Prewitt, *Political Sociolization* (Boston: Little & Co., 1969), p. 95.

217)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3), p. 65.

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다. 학습시간과 요일은 직장단위로 당세포와 부문당을 중심으로 정하되 학습내용과 전체적인 계획은 중앙조직이 하달한다.

학습교재는 수준별, 직능별로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 즉 당원과 간부, 일반인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해서 만들며, 직맹, 여맹, 청년동맹 등 직종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한다. 당 선전선동부 교양과는 주체사상 학습을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학습교재도 1년을 단위로 내용을 새롭게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원래 주체사상학습이란 계급교양,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등을 포괄한다.²¹⁸⁾ 실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주체사상’이라는 과목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주의의 일부분으로 학습한다. 전 10권으로 된 『주체사상총서』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자체를 놓고 학습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공식적으로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이라고 부르며 대상과 수준에 맞게 『덕성실기』 학습, 『항일빨치산회상기』 학습,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등의 구체적인 학습교재를 선택한다. 현재 사상학습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은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김일성로작’, ‘김정일로작’ 등이다.

종교성이 강한 북한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조직의 사제와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능력이 없이는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며,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부자의 교시와 말씀에 대한 학습은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도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반영되어 있는 바, 교시와 말씀을 모르는 지도일군은 지도자로서 행세를 할 수 없다. 노

21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54~55.

동자와 농민들은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에 근거하여 작업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노동자·농민에게 교시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지도해야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간부는 일반주민과 달리 주체사상에 대한 지식을 충실히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교시·말씀에 대한 학습은 조직별(직능별) 학습과 별도로 간부에 대한 등급별(수준별) 학습을 시행하며 직급, 직위, 분야에 따라 대상을 세분하여 실시한다. 등급별·직급별 학습은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혁명과업에 이론적으로 결부시켜 이해함으로써 이론적 정당성을 심어주고 실천적 의지를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연회의 경우도 직장장들 이상의 간부들은 간부강연회에 따로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다. 간부들의 교시·말씀학습은 강의, 토론, 반복학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습과정에서는 주로 교시와 어긋나는 사업활동과 생활을 지적하고 이를 사상투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가르친다.

사제 즉 간부가 되기 위해서 당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당원칙과 북한사회의 관행이 일단 당원이 되지 않고서는 지배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초급간부에 등용되려면 당원이 되어야 한다. 또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당은 약 300만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 자체가 아주 특수한 지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따라서 당원은 기독교의 교회조직에 비유하면 세례나 영세를 받은 신자들 혹은 그 신자들로 구성된 제직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당 간부는 성직자(사제)에 비유될 수 있다. 당조직은 최고 중앙당으로부터 최하위 단위인 당세포의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직장내 조직구성통계’라는 것을 하달하여 집단내 노동당원의 비율을 몇 퍼센트를 유지할 것인가, 그중 남

녀비율은 몇 퍼센트를 보장할 것인가를 지시한다. 또 조직내의 당원은 노동자, 농민, 학생, 사무원, 군인 등 사회성분별로 구성비를 규정하여 항상 그 규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당기관내 기본직 성원들은 100%가 당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 정무원 등 중앙급기관 각 위원회 및 부서의 기본직 성원은 신규채용자를 제외하면 거의 당원들이다. 그러나 군, 사법, 안전부, 행정경제, 농업, 과학,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산하기관 단체는 내려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며 최하부 말단 조직에는 전체성원의 10~20%를 유지하며, 많게는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나 기관의 중요성,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당원의 비율은 달라진다.

당원이 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통로로서 당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동당규약은 당원이 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동안 후보당원을 거쳐야 한다.²¹⁹⁾ 동규약은 만 18세 이상의 성원에게 입당자격을 부여하며 몇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후보당원(약 1년정도)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하며 피보증인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고 당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입당은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하게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은 철저히 당자체의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청원자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입당과정에서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구분된 계층적 위계는 반드시 다른 자원의 배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제·사회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간부로 진출하기

219) 『조선로동당규약』 제1장 참조.

위해서는 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간부의 충원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간부부, 지방당위원회 조직부, 국가 및 정부와 사회의 각 부문 기관의 간부처 혹은 간부과에서 담당한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는 당과 국가 정부의 최고위층의 간부후보들은 물론 장성급 이상의 군부·보안기관 고위층 인사 및 해외공관 파견 대사 등의 인사를 전담한다. 노동당 간부부에서는 조직지도부의 인사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와 정부의 국장급 이하 모든 간부들과 각급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한다. 각 지방당위원회 조직부에서도 각급 간부들과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한다.

또한 간부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비서국비준대상,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당중앙위 간부부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그리고 각 도·시·군 당위원회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인 충원절차는 대상자의 선발과 추천, 인물심사 혹은 담화, 신원조회 및 현지확인, 신원보증 등을 실시하며 간부이력문건, 주민등록문건, 평정서 등의 각종 문건과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 등의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간부선발시 계급적 토대, 출신성분, 본인의 현재사상, 노·장·청 배합 등 4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²²⁰⁾

종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을 통해 필요한 간부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제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금성정치대학, 강반석정치대학이 그것이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전문적인 고급당일군을 교육시키며, 인민경제대학은 경제관련 간부를, 국제관계대학은 전문외교관을, 금성정치대학과 강반석정치대학은 청년간부와 여성지도자를 각각 양성

220)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 (미발표 논문), p. 8~9.

하는 전문기관이다.

중간간부로 진출하는 데는 각 지방에 설립된 공산대학이 큰 역할을 한다. 각 도소재지에 1개씩 배치되어 있는 공산대학은 1946년 북한이 각 도소재지에 도당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자단체에서 일할 간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창설되었다. 이 도당학교는 1954년 3월 도인민위원회 간부학교와 통합하여 도간부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60년 9월 1일 도간부학교로 발전시켜 각 도의 공산대학을 창설하였다. 중요한 공장과 기업소에는 공산대학 분교를 두고 있다. 공산대학에서는 김일성저작과 혁명역사, 노동당, 국가, 근로단체, 경제관리 등의 과목을 배운다. 공산대학은 각 도의 지방간부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 각 도별로 유자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편제와 독립되어 있는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해주 혁명유자녀학원」은 6년제의 특수학교이다. 이들학교는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중 희생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열사들의 유자녀들에 대한 특별우대 교육기관으로, 예비 군사간부와 당정의 간부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의 간부훈련과 학습강사의 교육은 초급당비서가 당원 가운데서 추천하거나 상급당에서 내려보낸다. 직맹과 청년동맹 등 조직별 위원회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상급 조직의 위원장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연합기업소는 연합당을 갖추고 있는데 연합당은 조직비서와 선전비서가 있고, 선전부에는 선전비서, 선전부장, 연구실장, 지도원의 순으로 조직되어 있다. 당의 지도하에 간부들을 훈련시킨다.

간부 가운데 사회주의 혁명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전문적 활동이 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선교’의 역할을 수행하

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예수가 재림하여 완전한 천국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교는 기독교의 지상명령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기독교에서 선교사를 훈련시켜 선교지에 파송하듯이 북한도 공작요원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 파견한다.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는 기독교 조직의 총회 해외선교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문화부는 남한 내 수령교의 '선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공작원들은 북한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환경이 좋은 엘리트층을 선발하여 혁명사업을 위해 은밀히 활동하는 전문적인 선교사와 같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사보다 더 체계적이며 철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공동체의 윤리생활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윤리생활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정당화한다. 특히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자신들의 공동체와 '세상'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집단을 정당화하듯이 북한은 자기집단을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사랑과 의리로 뭉쳐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비교하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정당화를 시도한다.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사제들을 충원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교육과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의 공동체 조직을 유지해 나간다. 당조직 내에 간부를 충원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수령교의 종교지도자를 키워내며, 해외와 남한에 수령교를 은밀히 전파하는 전문적인 선교사를 훈련시켜 내보낸다. 이러한 조직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유지시킨다.

VI.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종교양식의 촉진 배경

1.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 경험

맑스-레닌주의와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북한사회에 기독교적 특성이 이처럼 자리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적 영향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김일성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소위 모태신앙을 갖고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남한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김일성이 기독교의 사상과 조직원리를 모방하여 통치이념과 통치방식으로 이용해 왔다는 얘기를 자주 거론하곤 한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맑스가 바로 유태인 랍비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사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였던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맑스는 청년시절에 신앙을 버리긴 했지만 공산주의의 ‘이상향’이라는 아이디어를 바로 기독교의 ‘천년왕국설’에서 빌어왔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버지 김형직은 1911년 평양의 기독교계통의 미션스쿨인 송실중학을 입학, 1913년 졸업한 후 순화보통학교, 명신보통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 동시에 기독교 항일사회주의 운동단체인 조선국민회의 주요멤버로도 활동하였다. 송실중학교는 당시 미국계 미션스쿨로서 한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당시 김형직이 기독교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에 송실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그의 기독교 신앙의 독실성을 말해준다. 어머니 강반석은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나 고향 칠

골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신앙인이었다. 김일성은 어린시절 어머니와 함께 거의 매주일 주일학교에 착실하게 참석했던 사람이다. 중학교 때에는 중국연변의 손정도목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생활을 하였고, 학생성가대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교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²²¹⁾ 김일성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는 않았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내용과 교회생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일성은 만경대에서 1912년 4월 15일에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 큰아들로 태어났다.²²²⁾ 김일성은 아버지로부터 기독교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형직의 기독교 신앙은 당시 기독교 일반의 경우처럼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김형직은 1917년 3월 23일 장일환(의장), 배민수, 백세빈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²²³⁾ 조선국민회는 기독교 항일운동단체로 당시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평안장로신학교 개교일을 전후하여 많은 조직원을 확보함으로써 막강한 세력으로 발전하였다.²²⁴⁾ 김형직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극심한 옥살이로 고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⁵⁾ 김일성은

221) 김일성은 길림의 손정도 목사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이 레베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예선전대의 활동도 지도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

222) 김일성 자신은 “우리 가문은 김계상 할아버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4. 김일성의 가족은 그의 12대 조상인 김계상 할아버지 대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평양근교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5;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p. 14.

22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26.

224) 최영희, “삼일운동에 이르는 민족독립운동의 원류,” 『한국근대사론』 제2권, pp. 9~25;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p.17~18에서 재인용.

225) Tai Sung An, *North Korea in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14세 때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기독교와 항일독립활동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으로 있던 강돈욱 장로의 둘째딸로서 장로교계통의 독실한 기독교집안 출신이었다.²²⁶⁾ 강반석의 반석이 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별명인 盤石(Rock)이라는 의미인지 혹은 班錫²²⁷⁾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베드로의 별명인 盤石에 어울리게 신앙심이 두터운 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강반석은 고향 칠골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1992년 4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건립에 이어 어머니의 고향 칠골에 칠골교회를 건립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김일성의 심경에 혹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전쟁이후 교회를 완전히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억압·숙청했던 북한이 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더욱이 김일성 자신의 기독교적 가정배경을 공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도 김일성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혹시 기독교로 심정적인 귀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쉽게 버리지 못했다.

김일성은 어린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다.²²⁸⁾ 송산에 있는 장로교계통의 교회에 어머니를 따라 다녔다고 한다. 김일성이 비록 자기 어머니의 신앙심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자신도 “동심에 맞지 않는 엄숙한 종교의식과

Dynast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3).

226) 창덕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친척 강신애가 설립했다고도 하며 김이재가 창설하고 교장으로 재직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기봉,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사진남북사, 1976), pp. 30~31;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p. 16에서 재인용.

227) 朴洸, 『韓國基督教 100年』 제4권 (서울: 鮮文出版社, 1971), p. 347. 강반석이 오빠 강진석과 같은 항렬을 따랐다면 이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22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104.

목사의 단조로운 설교에 싫증을 느낀 다음부터는 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²²⁹⁾고 교회출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는 어린시절 어머니를 따라 비교적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기독교신자로 양육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국민학교 5~6학년 2년동안 외조부댁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강돈욱과 강양욱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강돈욱은 김일성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강양욱은 김일성의 담임을 맡기도 하였다. 강양욱은 강반석의 아버지 강돈욱의 육촌동생으로 해방전까지 감리교 계통인 평양 암정교회 목사로 활동했다. 김일성은 자신이 바랬던 대로 강양욱이 자기의 6학년 담임선생이 되어 매우 기뻐했다고 회고할만큼 강양욱목사와는 친밀한 사이였다.²³⁰⁾

사람의 가치관 형성과 인격형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치정향은 대부분 어린시절에 형성되며 성인기의 정치정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습이론과 정신분석학, 모방학습이론 등은 유아기 또는 아동기에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명제를 전제하면 김일성의 성격과 정치정향도 기독교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의 기독교적 영향과 잠재력이 사회건설 과정에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배경 때문에 김일성이 세례교인이냐,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일성은 14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20세에 어머니를 잃음으로써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교육은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항일운동 때문에 가정에 거의 없었고 당시의 불안

22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103.

230) 위의 책, p. 78. 강양욱목사는 정권초기부터 1982년 사망하기까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과 부주석을 지내며 김일성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한 사회상황으로 잦은 이사와 전학을 함으로써 가정교육이 평탄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은 기독교 신앙이 자리잡기에는 너무나 어린 시기에 부모의 죽음을 맞았고 독립투쟁에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과 식민통치라는 사회적 현실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독립투쟁에 헌신하도록 몰아갔다. 맑스를 향해 칼 야스퍼스가 퍼부었던 비난처럼 김일성도 어린시절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증오에 찬 사이버예언자”로 성장했는지 모른다.²³¹⁾

김일성은 최근 발간한 그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단지 기독교인으로 부터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장과정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고 묻는데 나는 종교적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신자들에게서 인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술회하였다.²³²⁾ 이로 짐작컨대 김일성은 기독교 신념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기독교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아버지가 기독교학교인 송실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위에 교인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교인들과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가정환경 덕분에 항일운동시절 여러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하였다.²³³⁾ 김일성은 개인적으로 특

231) 부모를 잃은 자신의 심정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가고 없는 셈이었다”(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p. 91~92). “나는 두 동생을 부여 안은채... 영영 울었다”(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 421).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었다...갈대가 처량하게 설렁거리는 소사하 골짜기에 설움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치른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 430).

23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104.

233) 위의 책, pp. 103~104.

히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만큼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손정도 목사는 김형직과 같은 송실중학교 출신으로 3.1 운동 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에서 의정원의장, 노공부장 등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이 1929년 가을 육문중학 시절 교내시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8개월간 길림감옥에 수감되었을 당시 김일성의 출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후에도 김일성의 생계를 전적으로 도왔다. 김일성은 길림의 어린시절 손목사의 가정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면서 기독교 신앙활동을 했으며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만큼 기독교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²³⁴⁾

김일성의 어린시절을 감싼 집안의 정서는 기독교와 함께 민족주의가 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²³⁵⁾ 김일성의 외숙부인 강진석은 독립운동가였으며 이러한 집안의 민족주의 정서는 아버지 김형직의 뜻에 따라 1926년 3월 천도교도인 민족주의자 최동오가 숙장으로 있던 만주의 화전현 소재 정의부 소속 화성의숙 입학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의 도움을 받으며 만주에 거주했던 당시 만주 한인교회는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인식되었다.²³⁶⁾ 때문에 김일성은 교회와 기독교의 항일운동과 민족운동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이 조만식과 송실중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어머니쪽 가족들과 조만식의 종교적 친분관계로 인해 해방직후 북한 내 정권기반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독교 장로인 조만식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목사인 강양육은 1946년 2월 결성된 북조선인시인민위원회의 서기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김일성의 초기 정치활동을 도왔다. 김일성의 친척이자 6학년 담임선생이었던 강양육목사는 주체사상

23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p. 1~16.

235)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183.

236) 당시 만주에는 172개의 한인교회와 764명의 종교지도자, 그리고 1만 328명의 신자가 있었다.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p.44.

이 기독교 종교방식을 모방하여 수령교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방에 신자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때, 평양에서 정권기반을 구축한 김일성 주변 참모들 가운데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고백처럼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감정은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일성이 어린시절을 회고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반항감을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어린시절의 기독교 경험이 컸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비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다. 예수의 교리가운데 인도주의적인 것도 많았으나 민족의 운명을 두고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나에게는 구국으로 부르는 력사의 웨침소리가 그보다 더 절박하게 들리었다.²³⁷⁾

김일성이 청년시절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것도 기독교 가정배경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김일성은 자신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친구들이 김일성에게 혁명을 한다는 사람이 술도 못 마시니 어떻게 혁명을 하겠느냐고 놀리기도 했다고 한다.²³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한 특징으로 1920년대와 30년대 ‘절제운동’을 전개하여 금연, 금주 및 아편사용과 매춘행위를 금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금주·금연에 대한 철저한 실천은 현재까지 한국개신교의 윤리로 간주되고 있다.²³⁹⁾ 항일운동 당시 지도자의

23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103.

23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 432.

239) Ki-Young Shin, *Christianity and Nation-Building in Korea* Arizona State Univ. Ph. D. Dissertation, 1993, p. 59.

위치에 있었던 김일성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일성 가정의 기독교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정권구축 과정에서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조직의 도움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강렬한 기독교 경험을 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11월 3일 총선거에서 선거일을 일요일로 잡은데 대해 기독교인들이 전개한 ‘주일선거반대운동’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기독교 집단의 단결력을 경험하였다. 당시 북한의 2천여 교회와 30만 기독교신자들이 주일선거를 반대하였다. 김일성은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대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 조직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특히 강양욱은 김일성의 측근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책에 대한 조언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⁰⁾ 이러한 반대에 부딪힌 김일성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사대주의자, 매국노로 몰아 부쳤다. 김일성은 “일부 목사들과 장로들 속에는 이러한 종교선전에 넘어가 미국을 하느님처럼 받들면서 우리 조국을 딸라에 팔아 먹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반동적인 목사 또는 장로의 일부가 민주당에 기여 들어와 나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였다.²⁴¹⁾

김일성은 북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일선거반대’를 이유로 비판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자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주일선거반대 움직임을 통해 김일성은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종교활동가중의 어떤 분자들이 종교의 전통과 교리를 구실삼아 이번 선거에 교인들이나 승려, 목사들이 참가하는 것을

240) 박완, 『한국기독교 100년』, p. 298.

24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173.

반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외국에 매수되어 간첩으로 된자들이 종교를 자기들의 파괴활동에 리용하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자들은 선거 때에 파괴공작을 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선량한 감정을 통략하며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교의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을 다시금 식민지화하려는 적의 앞잡이들입니다.²⁴²⁾

1946년 3월 토지개혁 당시에도 종교계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며, 토지개혁에 협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동적인 장로, 목사로서 땅을 안가졌던 자가 거의 없고 놀고 먹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에게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놈들은 40년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땅에 자기들의 사상적 영향을 퍼뜨리려고 광분하여 왔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반동적 장로, 목사들을 길러내고 비호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신자들 가운데는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당을 싫어하며 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나르고 있습니다.²⁴³⁾

김일성의 이러한 경험은 북한정부가 공식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기독교적 교육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김일성은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갈등을 경험하면서 기독교를 더욱 적대시한 것을 볼 수 있다.

242) 김일성,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p. 118.

24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pp. 249~250.

지난날 일제통치시대에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종교리상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민족이 해방된지 몇해가 지났으나 아직도 일부 농민들과 청소년들이 레배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은 레배당에 가면 연필 같은 것도 주고 또 풍금도 치기 때문에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가지만 일부 농민들과 청년들은 무식한데로부터 종교에 기만당하여 레배당에 다닙니다.²⁴⁴⁾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종교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남반부에 나가서 종교와의 투쟁을 잘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에게 종교의 본질과 그 해독성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²⁴⁵⁾

주체사상이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정치와 사상을 이끌어 간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일성은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배경의 초등학교를 다녔고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녔으며, 중학시절에는 손정도 목사의 가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였다. 중학을 마친 이후에는 만주에서 혁명활동을 하느라 공식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김일성이 후시 혁명활동 과정에서 맑스-레닌서적을 읽고 학습을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만주지방의 기후는 매우 추웠을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이라는 활동 자체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린시절 교회를 통해 얻은 성경지식이나 교훈적인 내용이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의 전부

244) 김일성,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54.

245)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52.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이 기독교의 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간에 성경의 스토리와 사상은 김일성의 지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정치활동 중에 경험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독교를 경계하면서도 기독교적 방식을 모방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북한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김정일의 기독교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김정일은 7세에 친어머니를 여인 관계로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²⁴⁶⁾ 이들의 신앙 정도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들 역시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로서 김정일을 키우면서 기독교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조부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을 것이며 김정일은 부모의 기독교 인맥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자신의 기독교경험과 기독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체험담도 들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정일은 강양욱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70년대에 부주석으로까지 활약한 강양욱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강성산, 강희원, 강현수, 강주일, 강석승 등 조모 강씨 집안의 인물들과의 접촉에서는 기독교에 얽힌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기독교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조직·통합기술을 당선전선동부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유익하게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시작하여 1974년에는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명문화하고 사상학습

246) 양형섭의 처(김신숙, 사망)와 허담의 처 김정숙이 김정일의 양육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생활주기에 따라 체계화하는 등 종교적 성격으로 사회를 조직화해 나갔다. 그는 주체사상을 '수령교'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령교의 유지에 필요한 각종 종교의식과 행위규범을 구체적으로 고안하였다. 오늘날 주체사상이 기독교적 종교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 데는 김정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일성·김정일은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한국인에 비하면 기독교적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가정배경과 기독교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기독교 세력의 도전 경험 등으로 김일성은 기독교 교리와 교훈, 생활방식을 접할 기회를 빈번하게 가질 수 있었다. 김일성은 어린시절에 기독교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기독교 방식을 이용했을 것이다. 설령 비의도적이었다 할지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독교와의 접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조직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독교 경험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생활양식과 조직원리, 그리고 중요한 교리 및 교훈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적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적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표출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과정이 과연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잠재의식적인 것이었는지 하는 문제를 검증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다.

2.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관

김일성과 김정일은 기독교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기독교관을 나름대로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결정에 절대

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관은 통치과정과 사회조직원리로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게 된 배경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갖고 있는 기독교관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가. 김일성의 기독교관

(1) 민족주의

김일성은 북한건설 초기에는 기독교를 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한국의 기독교를 민족주의, 특히 애국주의적인 것으로 보았다. 해방직후 김일성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내보인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은 기독교를 반민족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석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다.

미국선교사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원뿔을 치거든 오른뿔을 돌려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인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조선인민은 반항할 것이 아니라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미국의 이러한 기만적인 설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놈들에게 《네놈이 한번 치면 우리는 두 번 갈기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실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²⁴⁷⁾

이러한 초기의 태도와는 달리 만년에 김일성은 기독교의 민족주의

24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p. 173.

적 경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일성이 길림의 항일운동 시절을 회고하면서 종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한다. 당시 장두범이라는 사람이 독립군에서 싸우다가 독립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내도산에 들어와 천불교를 만들어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 천기에 빈 사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앙과 민족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종교인들을 애국주의자라고 과감히 주장한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나는 물론 부정하지는 않소. 그러나 이 명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오. 일본에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래 아편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울 수 있겠소? 나는 천불교를 애국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며 이교의 신자들을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애국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 세우는 것 뿐이오.²⁴⁸⁾

물론 김일성의 회고록에 드러난 기독교의 민족주의적 해석은 최근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해 보려는 의도가 숨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자신의 기독교적 과거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독교의 민족주의적 요소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 태도는 기독교적 가정배경에서 형성된 김일성의 가치관이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⁴⁹⁾ 즉 사회주의 보편적 이념이 퇴색하고 각 민족의

24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267.

249) 김일성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태도가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배경에서 연유한다는 데 대한 연구는 최영호, “김일성 생애 초기의 기독교

독특한 사상과 문화가 강조되는 세계적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기독교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2) 사상과 신념의 중요성

김일성이 기독교로부터 받은 두번째 영향은 사상과 신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다. 김일성은 물론 기독교 자체를 사상과 신념의 종교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김일성은 기독교가 인민의 혁명성을 고취시키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레베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 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무저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²⁵⁰⁾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역할이 고통을 인내케 함으로써 혁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사상과 신념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김일성은 설사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바를 왜곡·해석했다 하더라도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과 신념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일성이 역경의 가정환경에서 일어서서 항일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상과 신념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사상과 신념은 인간적인 정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

적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호, pp. 69~78.

25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242.

각하고 이를 삶의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⁵¹⁾ 이러한 사상과 신념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으로 발전하였고 사상과 신념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김일성이 사상과 신념을 중시하고 주체사상을 만들 수 있었던 신앙 혹은 믿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상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배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복음전파의 선교적 사명

김일성이 공산주의 운동을 바라보는 입장은 마치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의 시각과 같다. 항일운동 당시 김일성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²⁵²⁾ 라고 하였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혁명의 과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선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자세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죄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감옥을 하나의 장소로 여긴 것과 흡사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수가 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²⁵³⁾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다.²⁵⁴⁾ 즉 개인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간에

25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 120.

25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349.

253)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

254)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궁극적으로 그것은 선한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 사상 전파를 바라보는 김일성의 세계관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복음전파의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독교와 일맥상통한다.

(4) 이상촌 건설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의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는 김일성의 아이디어는 실력양성론을 주창한 안창호의 ‘이상촌건설’운동에 깊이 영향을 받은 듯하다.²⁵⁵⁾ 칼 만하임의 용어를 빌리면 김일성은 온갖 유희와 타락으로 가득찬 사악한 세계가 곧 종말을 고하고 더욱 순수하고 더욱 선한 세계로 대체된다는 묵시론적 견해를 주장하는 ‘천년왕국 신봉자’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²⁵⁶⁾ 따라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이상촌 건설과 같은 기독교공동체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기독교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주장하는 자신의 사상이 기독교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향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²⁵⁷⁾

김일성의 기독교관은 민족주의, 사상과 신념의 중요성, 복음전파의 사명, 이상촌 건설 등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가정과 지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김일성의 기독교 경험은 기독교를 항일투쟁의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과 유사한 점에 대해 비교시각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상과 신념을 갖고 고통을 인내

25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 151.

256)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New York: Harcourt, Brace, 1936), pp. 190~197;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p. 62에서 재인용.

25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104.

하며 좌절하지 않을 때 마침내 이상사회가 건설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정배경과 기독교사상으로부터 습득한 김일성의 기독교관은 주체사상이 왜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임이 분명하다.

나. 김정일의 기독교관

김일성이 기독교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상과 신념의 중요성은 김정일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김정일은 사람의 본질을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상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에 있다”고 주장한다.²⁵⁸⁾ 사상과 도덕을 유난히 강조하는 김정일의 가치관은 사상과 신념을 중요시하는 김일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배경을 통해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기독교관은 1986년 8월 5일 문건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김정일은 이 문건에서 “수령님께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²⁵⁹⁾ 북한의 주체사상 이론가 박승덕은 김정일의 견해를 발

25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53.

전시켜 주체사상의 종교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신중심의 세계관인 기독교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다만 보편적 종교이념으로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에 대한 교리에서 주체사상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⁰⁾ 수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박승덕이 해석하는 기독교는 바로 김정일의 기독교관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승덕이 구체화한 종교관을 보면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특히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화를 들며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과 단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교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인 종교들이 교리에서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보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교리들은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⁶¹⁾ 박승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신학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매개 민족의 문제, 민중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기독교를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상으로 간주한다.²⁶²⁾

김일성·김정일의 이와 같은 기독교관이 최근 들어 표면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건설 초기에 종교에 대해서 적대감

259)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p. 189 ;박승덕, “기독교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주체사상과 기독교』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 81에서 재인용.

260) 박승덕, “주체사상의 종교관,” 『주체사상과 기독교』 pp.187~188.

261) 위의 글, p. 188.

262) 박승덕, “기독교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p. 84.

정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며, 기독교를 달리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시해는 1991년 5월 북미주기독교학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초기에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과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최근 발행한 학습지침서에 따르면 “지난날 우리 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는 민족적 광심을 가지고 일생을 반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으며 지금 남조선의 기독교 신자들 비롯한 애국적인 종교계 인사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있다.²⁶³⁾ 기독교에 대한 이 같은 전향적 해석은 정치적 의도를 떠나 김일성·김정일이 기독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3. 기독교적 친화력

주체사상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적 종교양식과의 유사성이 반드시 김일성·김정일의 기독교적 배경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교와 같은 전통종교에 의한 영향과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부터 기독교의 어떤 부분이 일종의 친화력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이 단군릉을 복원하고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상을 보더라도 북한사회의 종교성을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유교와 단군과 같은 전통종교의 영향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유교를 ‘봉건 유교사상’, ‘봉건유교도덕’으로 표현하면서 “봉건통치배들의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²⁶⁴⁾이라고 규정하고 유교적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

26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p. 193~194.

264)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p. 282.

력했으나, 전통적 유교문화와 단절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현재 북한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장유유서, 충효사상 등을 기반으로 국가권위에 대한 인민들의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질서와 통치이념으로 유교의 윤리규범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 김일성을 ‘아버이’로 만들고 아버지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하도록 하는 개인숭배행위는 상당한 부분 이러한 유교이념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²⁶⁵⁾ 특히 권위에 대한 복종, 중앙집권, 집단주의, 혈연강조, 교육중시, 충효사상 등은 유교문화의 잔영이다.

그런데 종종 유교의 가부장적 전통에서 나왔다고 주장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 이론이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²⁶⁶⁾라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신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있다. 북한이 발전시킨 사회주의 대가정 논리도 ‘사회정치적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이며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공동체가족 개념은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과 같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여러 교리 가운데 전통유교의 문화와 친화력을 갖고 있는 가족개념이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제국주의를 사탄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배척하는 배타적 태도는 한국전쟁의 엄청난 피해의식으로부터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종교국가적 특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당시 960만 인구의 약 18%인 175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다.²⁶⁷⁾ 사망자, 실종자와 함께 부상자도 182만명

265) 김영수, “북한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1;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7).

266)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5절.

267)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

이 발생하는 혹독한 전쟁경험을 하였다. 전쟁으로 북한사회의 가족구조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초래되었고 이런 바탕 위에서 북한은 노동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급정책과는 달리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을 전사자, 피살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사회의 핵심군중으로 우대하는 소위 성분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사자, 피살자가 중심을 이룬 약 30%의 핵심군중이 사회의 상류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제에 대한 적개심과 미제의 앞잡이로서의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다.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이 두터운 기독교층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교육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내면화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열악한 사회적 조건들이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앙으로 승화시키게 된 배경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전쟁경험과 전쟁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를 지속했다.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사문화는 권위주의적인 '수령론'으로 이어졌다. 일사불란한 지도력이 요청되는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지휘체계가 정착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최고사령부 결사옹위, 총폭탄 정신 등 수령을 보위하기 위한 전투적,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며 수령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낸다. 북한사회에서 발견되는 김일성숭배의식의 배경에는 병영국가적 요소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군사문화를 배경으로 김일성에 대한 숭배의식이 일상생활과 사회조직에 투쟁적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군사조직과 같은 획일적 지도체계와 사상교양을 위한 학습체계는 유일체계 수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구, 제9권 1호, pp. 219~242.

되었다.²⁶⁸⁾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이론 학습이 병행되었고 맑스-레닌주의를 아는 것이 오히려 인테리의 자격기준이 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사상학습에서는 유일사상교양과 계급교양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유일체제 수립이 시도된 1967년부터 모든 문제판단의 최종심의회는 김일성교시로 귀착되었고, ‘김일성저작선집’을 출판하여 모든 사상이론적인 문제해결이나 사업지침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상교양 학습과정에서는 노동당과 국가, 그리고 김일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신성화, 절대화를 추구하였다. 사상교양학습체계를 통하여 북한은 김일성(수령)과 대중 사이에 공통의 정서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1960년대 중·후반부터 강조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결국 김일성저작선집 학습은 빨찌산 회상기학습에서 획득된 새로운 정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유일체제의 기본 특징인 개인숭배를 발효시키는 사상문화적 기반이 된 것이다.

북한사회가 보이고 있는 종교성은 이와 같이 유교적 전통 혹은 전쟁의 위기적 상황과 같은 사회적 조건으로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절대자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충성은 유교의 도덕이나 교훈보다 더 철저하며 단순한 선인에 대한 존경 이상의 신앙을 요구한다. 유교는 법과 도덕, 규범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만 공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를 단순한 성인이 아닌 신으로 숭배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다. 북한은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어도 영생하는 길이 바로 수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철저한 충성을 요구한다. 또 개인의 생각과 행위를 매우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다양한 종교의식과 행동규범, 교육과 언어패턴은 유

268) 이종석, “유일체제의 수립과정,” 장을병 외 지음, 『남북한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pp. 339~341.

교의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듯 보인다.

또한 전쟁의 위기 및 혁명과 같은 사회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는 기독교적 종교양식이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와 불교를 문학장르에 비교한다면 불교는 산문과 같이 서술적이고 정적인데 반해 기독교는 시와 같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²⁶⁹⁾ 따라서 전쟁과 분단으로 위태롭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보다 역동적인 기독교적 종교양식이 친화력 있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상황과 기독교가 친화력이 있다는 점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가 극도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공동체 가운데 마가나 요한의 공동체와 같은 집단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화될수록 이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비주의, 분리주의, 배타주의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북한도 초기 기독교공동체가 직면한 극도의 긴장상황에서 분리주의적이며 신비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띤 종교공동체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양식을 원용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김일성이 자신이 알고 있던 기독교적 지식을 전후 복구과정에서 주체사상의 발전과 통치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혹은 기독교 지인들로부터 실제로 사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전혀 알 길이 없다. 또한 김일성 주변의 실세 가운데 강양욱 목사나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나 자료도 접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전

269) 하유상, 『예수와 붓다 1』 (서울: 명문당, 1990).

쟁을 겪은 북한사회가 어떤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남한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요인으로 전쟁의 경험과 분단갈등 구조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기독교는 전쟁직후 교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안을 달래고 교회를 통해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심리를 바탕으로 급성장하였다. 기독교 국가인 우방국들의 원조가 기독교의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전쟁의 불안과 사회의 아노미적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절대적 신앙체계와 역동적 삶의 해석을 제공한 기독교는 종교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기독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2차대전 중에도 벌어진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²⁷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때 전쟁의 경험과 분단대결이라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종교양식이 일종의 친화력을 가지고 주체사상에 자연스럽게 접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 자체가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의 사상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도 주체사상이 기독교적 종교양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산주의를 이론화한 맑스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기독교의 영향하에 성장하였으며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을 공산주의 사상에 활용했다고 주장된다.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맑스의 사상은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원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⁷¹⁾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동양의 반복, 순

270) 전호진, “해방 후 한국교회의 성장과 해외선교,” <http://user.chollian.net/~ikch0102/nm4-3.htm>, p. 5.

271) Julio de Santa Ana, “Liberation for Social Justice: The Common Struggle of Christians and Marxists in Latin America,” Whitfield

환 또는 윤회와 같은 관념보다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발전적으로 진보한다는 서양문화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도 기독교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이 기독교적 종교양식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년시기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사상을 접하였던 김일성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일본식민통치의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해방신화’를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평등,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기독교 사상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Foy (ed.), *Man's Religious Quest* (Sydney: Croom Helm Australia Pty. Ltd, 1985), pp. 701, 710; Richard J.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개념에 대한 연구,” p. 63에서 재인용.

Ⅶ. 결 론

지금까지 북한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적 특성을 기독교의 종교양식에 견주어 설명하였다.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의 교리와 상징체계, 각종 집회와 모임, 행위규범과 윤리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기독교 신앙의 숭배대상인 하나님 혹은 예수와 북한의 공산주의 혹은 김일성·김정일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지만 종교의 형식을 구성하는 초월적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신앙의 대상을 절대화하기 위한 십계명과 ‘10대원칙’에 나타난 유일성과 배타성은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인간을 자연과 구별된 존재로 파악하고 세계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간론, 신앙의 대상과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고리로서 예수와 수령 존재의 필연성,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과 영생의 개념, 교회공동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탄이나 제국주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낙원 혹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은 교리와 신념체계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높은 종교적 친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북한은 사회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독립건물 혹은 부속건물로 건설하여 그 곳에서 종교의식과 종교학습, 종교활동을 거행한다. 북한이 일반교양학습이나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문화회관과는 별도로 매우 성스럽고 엄숙한 곳으로 간주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을 조성하고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거행한다는 점은 주체사상이 종교양식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여맹, 당원으로 구분하

여 일주일 주기로 진행되는 생활총화를 비롯하여 학습생활, 수요강연회, 인민반회의, 아침독보회의 집회와 모임은 북한사회의 종교성을 유지시켜주는 종교의식이다. 김일성교시와 김정일말씀을 성문화한 정경인 ‘로작’과 김일성·김정일을 칭송하는 찬양가가 갖추어져 있고, 언어의 내용이나 언어사용의 패턴, 일상생활 혹은 학문활동에서의 교시·말씀 인용, 종교예의 입문절차 등 행위규범에서도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유사한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자들의 단순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그것은 이미 북한주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초월적 신앙으로 내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고 공동체적 윤리와 도덕을 생활화하려는 인간개조의 시도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윤리와 흡사하다. 물론 개인의 종교적 열성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열성분자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생애주기와 생활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교재의 개발, 전문적 사제의 충원을 통한 공동체의 종교성 유지 형식도 유사하다.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유사한 종교양식을 가졌다고 해서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내용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교리체계와 예배의식, 윤리도덕 등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숭배대상이 존재한다는 종교형식은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으로 성육신한 예수와 주체사상의 김일성은 같을 수 없다. 교리체계에서 기독교의 종교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자유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같은 현대신학이 주장하는 교리내용을 흡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북한의 총화제도는 예배의식과 흡사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외적인 별칙을 가한다는 점에서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기독교의 고백과 사죄의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인간관계를 강조하지만 성윤리와 같은 도덕적 차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의 철학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나머지 개별 인격체로서의 ‘나’는 상대적으로 존재의미가 상실된다.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종교양식으로서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구성하는 형식의 큰 틀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 북한사람들의 이러한 생활양식을 관찰한 루이제 린저는 “기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²⁷²⁾ 즉 주체사상이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전혀 다르지만 유사한 교리체계를 갖고 있고 사람들의 행위규범과 공동체적 생활양식도 기독교 신앙인들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생활하는 북한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김일성의 기독교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가정환경과 어린시절의 기독교 종교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독교 지식을 활용하여 교리와 신념체계, 상징메카니즘, 종교의식, 윤리의 ‘형식’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종교양식과 유사성을 띠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이 김일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시도된 것인지 아니면 잠재의식의 표출에 기인하는 것인지 경험적으로 검증할 길은 없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북한은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주체사상을 점차 종교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주체사상을 주체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주체사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272) 루이제 린저 著, 강규현 譯, 「루이제린저의 북한이야기」 (서울: 형성사, 1988), p. 154.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수령교’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기독교자,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수령교는 아직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world religion)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령교가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앙의 대상에서 세계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러한 의문을 낳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는 심화되고 있어 종교적 색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주체사상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이지만 북한주민들은 종교시설과 집회, 모임을 통해 주체사상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상황강제에 의해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게’ 된다.²⁷³⁾ 뒤켁(E. Durkheim)의 말을 빌리자면, 주체사상은 “저밖에(out there)” 존재하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안에(in here)” 들어와 있는, 그래서 북한주민의 심층적 내면세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삶의 일부이자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단순한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절대화, 신격화한 수령교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사회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들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볼 때 북한인들이 김일성 없이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심리적 공허감이 있을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목적 없는 삶과 같을 북한인들에게 종교생활과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의 분야에서 이러한 심리갈등을 돕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73)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환완상 역, 『社會學에의 招待』, p. 166.

북한사회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에서 반복적인 북한의 조직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교조직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에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권유받은 북한귀순자 가운데는 “북한에서 수십 년 하던 일을 여기 와서까지 해야하는가”라고 하며 종교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의 주체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집단생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종교생활에 대해 매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반면, 조직생활에 익숙한 열성분자들은 조직생활이 와해되었을 때 다가오는 허전함, 공허함을 종교적 신앙생활로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 귀순자들은 한국에 와서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사람들과 비슷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가 와해되어 통일이 된다 해도 사회생활의 패턴과 가치관은 바뀌기 어렵다고 볼 때, 북한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사람들에게 종교생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종교공동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령교’ 신자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사람들이 최근 종교단체의 대북지원 과정에서 남한종교인들의 공동체생활과 윤리성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다행이다. 이런 점에서 남한의 종교공동체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확대하는 일은 ‘수령교’의 교인을 남한의 종교공동체로 끌어당기는 데 절실히 요청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 ‘수령교’ 신앙의 근원이 되고 있는 김일성신앙을 어떻게 주체사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수령교'와 세계종교와의 신앙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도 김일성에 대해 북한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역사적 평가와 신학적 이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일성주의로부터 주체사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의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김일성의 신격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비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계기로 주체사상에서 버려야 할 부분과 통일된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사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행운이다. 종교계는 주체사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사상적, 문화적 탐구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공준표. 『기독교와 공산주의』. 서울: 지혜원, 1988.
- 웨이인 그루뎀. 노진준 역. 『조직신학』 상, 하. 서울: 은성출판사, 1997.
- 기독교학문연구회 엮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IVP, 1994.
- 김도빈. 『목회자 핸드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성철.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 서울: 분도출판사, 1986.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1권, 제2권. 서울: 고려원, 1991.
-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북한』.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 도홍렬. 『김일성주체사상 그 사실적 검증』.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 라종일 편.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예진, 1991.
-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서울: 공보처, 1994.
- 헤르만 리델보스 저. 황영철 역. 『하나님 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리승복 편. 『변증법적 유물론 1』.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78.
-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박용근·김화효. 『주체사상입문』. 동경: 구월서방, 1989.
- 박완. 『한국기독교 100년』 제1-6권. 서울: 선문출판사, 1971.
- 박형룡. 『기독교 현대 신학난제 선편』. 서울: 은성문화사, 1975.
- 코넬리우스 반 틸. 신국원 역. 『변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백종국.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3.
- 루이스 별콕.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 개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4.
- _____. 권수경·이상원 옮김. 『조직신학』 상, 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제임스 벤틀리 지음, 김쾌상 옮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서울: 일월서각, 1987.
- 북미주기독교학자회.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3.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 2. 서울: 자료원, 1995.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4.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7.
- 양성철. 『박정희와 김일성』. 서울: 한울, 1992.
- 연합통신. 『북한50년』. 서울: 연합통신, 1995.
- 紫田敏夫 편, 편집부 역. 『정치와 종교』. 서울: 교양사, 1988.
-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주체의 신'에서 해방되어 인간을 되찾기까지』. 서울: 고시계, 1990.
-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서울: IVP, 2000.

현원석. 『주체의 인간론』. 동경: 구월서방, 1992.

An, Tai Sung. *North Korea in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ynast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3.

Bellah, Robert N.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he classic sociological study of primitive religion*. New York: Collier Books, 1961.

Feuerbach, Ludwig. *The Essence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Hough, Jerry F. and Merle Fainsod. *How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O'Dea, Thomas F.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1966.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Vintage Books, 1971.

Tillich, Paul.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Tucker, Robert C.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8.

Weber, Max.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Mass.: Beacon, 1963.

2. 논문

강영안. “기독교와 주체사상.”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제10회 기독교문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1994. 2. 18~19.)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편, 『해방후 북한교회

- 사」. 서울: 다산글방, 1992.
- 김명세. “주체사상과 기독교,” 『북한이해와 민족통일』. 서울: 남북나눔운동연구위원회, 1996, pp. 20~42.
- _____. “주체사상의 인간개조론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년 1월.
- 김병로. “북한의 사회통합 방식과 기독교의 유사성.”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1995.
- 김요한. “탈북자를 통한 북한선교 전략.”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강의안, 1999), pp. 1~7.
- 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평양시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정일.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스티브 린튼. “기독교인이 본 북한,” 『신학정론』 제4권 1호 (1996년 5월).
-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1996).
- 박명철. “주체철학의 인간이해와 그 평가.” 『통일연구』 제3권 제2호 (1999).
-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_____. “주체사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p. 160-181.
- _____. “주체사상의 종교관,”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박신호. “‘주체사상화’된 북한주민 선교방안 연구: 중국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2월.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개인숭배 교조적 성격: 통치이데올로기의 부자세습작업과 관련하여.” 『아세아연구』 Vol. XXX, 1989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유석렬. “김일성 개인 숭배 및 권력승계.”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신정적 특성.”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이재봉. “북한 신천박물관 관람기.” 『월간말』 (1998년 12월).
-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과 構造變化에 關한 研究: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 이현경.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건설기 종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1996년 겨울).
- 임순희.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25~250.
- 장해성.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 인식.” 『극동문제』, 1999년 1월.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1호 (1997), pp. 109~167.
- 조갑제. “황장엽씨의 인간중심 철학은 주체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월간조선』, 1999년 6월, pp. 440~442.
- 조동진.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평화통일과 북한선교(I)』 (서울: 서부연회출판부, 1998), pp. 143~166.
- 최영호, “김일성 생애 초기의 기독교적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1제2호, pp. 69~78.
- 리차드 태이트 (Richard J. Tait).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개념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년 7월.
-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http://www.onekorea.org/research/t22.html>.
- _____.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http://www.onekorea.org/research/000916.html>.
- 한화룡. “탈북자들의 기독교로의 회심과정 연구.” 기독교북한선교회 연구논문, 1999.6.26.
- 홍경란.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자세.” 『조선사회민주당』, 1993년 3월.
- 황장엽. “인간은 우주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시대정신』, 제9호(2000. 3~4), pp. 5~29.
- _____. “인간중심철학과 종교.” 『시대정신』, 제10호 (2000.5-6), pp.

100~107.

_____. “인간중심사상의 철학적 기초.” 『시대정신』 제11호 (2000. 7-8), pp. 158~177.

Shin, Ki-Young. “Christianity and Nation-Building in Korea.” Arizona State Univ. Ph.D. Dissertation, 1993.

3. 기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_____. 『백과전서』 제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_____.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2-199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2-1998.

부록: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4)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시대, 김일성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

인류가 낳은 혁명적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었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이 억년 드눌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는 깊고 역센 력사적 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 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끌어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인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리론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전체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 있는 당으로 되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은 가장 존엄 있는 나라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운동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 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사회주의

새 조선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독립되고 존엄 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수령님께서 항일의 기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직접적 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었고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하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과 근로단체들에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

지난날 남에게 놀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은덕에 의하여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나가는 힘있고 존엄 있는 인민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 나아가는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 인민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을 가지고 위대한 주체의 조국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것보다 더 높은 영예, 더 큰 자량과 행복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난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민족의 영예를 떨치시었으며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 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려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0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어 천리마조선의 혁명적 기개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을 온세계에 떨치게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수행해나가심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곧바른 길을 펼쳐주시었으며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을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압박받던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서게 하시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 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실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오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땅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 세우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바쳐 오시었으며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신다.

진정 우리의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 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강구한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당이 오늘 것처럼 온 누리에 뿔뿔이 자랑떨치는 영광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권위와 영예, 그것은 곧 세계인민들이 한결 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이다.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 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품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

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강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수정주의와 온갖 원썩들에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품, 수령님의 현 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며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 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7)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말

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 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체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며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대장을 만들어놓고 교시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

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아가야 한다.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수령님께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 사상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 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1)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계 싸워나가야 한다.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4)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5)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6)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겸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8)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1)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하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

2)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4)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6)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7)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성을 발휘하며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 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 나가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아래 단위의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때거나 만들어 붙이며 당중앙의 승인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당, 국가 및 군사 기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 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극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